

제418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정기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11일(월)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03533)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변안의 건(추가)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상정된 안건

-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1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1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03533) 2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3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변안의 건 153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0시05분 개의)

○소위원장 강승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03533)

○소위원장 강승규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통상교섭본부장, 제1차관, 제2차관 소관 순서에 따라 사업별, 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세부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활한 속기록 작성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꼭 마이크를 켜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소위 심사자료입니다.

먼저 통상교섭본부 소관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입니다.

먼저 K-콘텐츠 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강승규 위원님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수출초보기업 해외진출 독려를 위한 수출안전망 확대를 위해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재봉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수출 중기 벤더사 맞춤형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1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서일준·송재봉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소형 조선사 위주로 RG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서일준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번 항목 중에서 K-콘텐츠 예산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또 K-콘텐츠 열풍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를 수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

해서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K-콘텐츠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국적으로 10개 정도의 광역·기초지자체, 유관 기관 등이 참가하는 지역 영세 수출기업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17개소로 늘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산업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160억 원 예산을 증액하는 수출 중기 벤더사 맞춤형 유동성 공급 관련 사항은 우리 중소기업들 다수가 실은 간접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수출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출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못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중소기업 수출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형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은 대기업, 대형 조선사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소형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선수금환급보증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역시 조선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번 무역보험기금출연……

○장철민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운용배수는 각기 다르게 적용돼 있는데 이건 설계가 맞는 거예요? 어떤 건 3배, 어떤 건 12.5배, 어떤 건 30배로 되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그것은 지금까지 지원 추세나 수요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비율을 정한 겁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적용된 운용배수가 여기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그렇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보고……

○장철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의견 없으시면 1번 무역보험기금출연은 증액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두 번째 사업입니다.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확산은 수출기업 대상 교육·홍보 확대, 대학과정 개설 등을 위해서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내역사업 전략물자안전수출지원은 주요국 신규 통제품목 대폭 증가에 따른 선제적 분석 및 대응을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2건 다 정부로서는 수용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전략물자 관련한 교육 필요성은 일찌감치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감사드리고. 또 역시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따라서 이에 관련되는 분석을 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요구한 대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 3번 수출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미국, 일본, 베트남 지역에 대해 한국 화장품 수출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증액하겠습니다, 3번.

4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4번입니다.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입니다. 이것은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에 대해서 사업 운영 직접비까지 전년도 이월금으로 충당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간접보조금의 연내 집행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그동안에 증진공, 옥타(OKTA) 등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고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부대의견 수용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부대의견 수용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연번 5번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먼저 해외 원루프(One Roof) 구축 확대를 위해 조직망 운영비 30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전쟁 등 위험지역에서 업무 수행하는 무역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 조직망 운영비 24억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 부실 운영 등이 지적되고 있는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를 지원하는 교포 무역인 네트워크 사업비 1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세계대표자대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지역경제인대회, 국제통신전략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서 교포 무역인 네트워크 사업비 1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바이오의료 해외마케팅의 전문성 강화 및 병원 해외진출 파트너링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코트라 알리바바 온라인 지원 사업의 성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4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입상품전 및 해외구매상담회를 위해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2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의 예산 소진으로 인해 자부담 기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자부담률과 지원 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소상공인 등 수출초보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수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증액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하고요. 옥타 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과 더불어서 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로서는 증액을 원하지만 또 감액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감액이야, 감액.

○김교흥 위원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고.

○소위원장 강승규 그래요.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교포 무역인 네트워크 사업비,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업이, 같은 사업에 증액과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옥타 사업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부대의견 두 가지는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재관 위원 설명이 정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김교흥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옥타 사업에 대해서 증액에 찬성한다는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예, 증액에 찬성하지만 또 저희들은 강승규 위원장님께서 내신 부분에 대해서 불수용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이……

○김교흥 위원 아니, 그러면 찬성하면서 불수용 의견을 낸다는 건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2개 다 불수용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김교흥 위원 2개 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예.

○박형수 위원 원안대로 하겠다 이 말이지.

○김교흥 위원 원안대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예, 저희들 원안을 유지합니다.

○김교흥 위원 먼저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장께서 감액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몇몇 위원들도 같이 동의를 해 줬습니다만 제가 사실 20년 전에 이 월드옥타 멤버였습니다. 제가 초선 때 산자위원 할 때 사실 월드옥타를 만든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데, 세계의 우리 교포들이 열심히 하면서 사업을 일구고 또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또 차세대까지 하면 많은 숫자의 우리 교포들이 함께하는 그런 조직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런데 물론 월드옥타가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이 나 코트라에서 감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부분적인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비엔나에서 세계경제인대회를 할 때 제가 가서 보니까 부스만 400부스를 차리고 2415억 원의 매출을 현장에서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저희 지역인 인천에서 하는데, 저는 강승규 위원장님만 허락해 준다면 이 예산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셔야지.

○소위원장 강승규 아니, 다른 위원님들 하고 저는 마지막에 의견 얘기할게요.

○서일준 위원 제가 한번……

○소위원장 강승규 예.

○서일준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김교홍 선배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어차피 세계 무역전쟁인데 현장에서 이렇게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지만 이걸 개선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홍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제가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옥타에 대해서 18대 국회의원 때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했구요. 또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가 있어서 옥타 문제를 들여다봤는데요. 제가 그동안 문제 제기했던 것, 여기 지금 문제가 다 드러났다고, 다 해결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옥타 관련해서 정부 측에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오전 중으로 다 위원님들한테 갈아 주시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소명이 된다고 생각할 때, 보류했다가 오후에 이 부분은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 4번은 보류했다가 이따 자료를 저한테, 다른 위원님한테도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되면 제가 동의할 것이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번 항목의 3·4번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6번 보고해 주세요.

○이재관 위원 원안대로가 아니라 증액……

○소위원장 강승규 아니, 5번의 3·4번은 보류하고 다른 부분은 증액 요구한 것은 증액된 대로, 부대의견은 부대의견대로 그렇게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연번 6번은 1차관 소관이니까 잠시 후에 1차관 심사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양자산업협력입니다.

먼저 기존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민간사무와 국가사무를 중첩해서 추진했는데 신설된 민간위탁 비목에 따른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해당 비목 예산 10억 5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EU, 미국보다 일본 협력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어서 10억 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을 고려해서 실소요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23년도 결산 결과 일반수용비에서 다른 비목으로 이·전용한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정책·입법 동향을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서 한미 간 신경재통상 구축 사업비 3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첫 3건의 안전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기존 민간경상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에는 정상 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 안전인 미국, EU 등에 비해서 일본에 대한 협력사업이 많다는 점은 그동안에 일본의 우수 퇴직 기술자들을 유치해서 국내 중소기업들 기술 전수를 해 주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없는 일본과만의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덩치가 좀 커졌을 뿐이지 그걸 빼고 나면 미국, EU와 유사한 규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 항목은,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정상 행사가 많고 해서 또 이를 준비하기 위한 국외여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2023년의 경우에는 엔데믹에다가 또 통상 현안이 급증하면서 여비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한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외교 활동을 위해서 이 예산도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번째 항목은 수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권향엽 위원 방금 10억 300만 원 감액 의견 설명을 하시면서 일본 협력 예산과 관련하여 우수 퇴직자들을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시켜서 기술이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정책·입법 동향, 지금 현재 대통령이 특히나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저희들이 한미 간 신경재통상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억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부연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말씀하신 일본 퇴직자 기술연수 사업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빨리 보내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미국, 특히 워싱턴DC 중심으로 한 로비 활동이라든가 정보수집 비용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태국 등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금액이 월등히 작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또 정권교체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미 아우트리치(outreach) 활동을 위해서는 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청을 드린 건데 이 관련된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산업부의 무역본부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 수출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산업부에서 희망하는 대로 하는 게 좋겠는데, 권향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두 부분은 자료를 좀 보고서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 나머지는 산업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2·4 보류하고 1번은 일단 정부 측 의견대로 불수용으로 정리하고요. 3번은 수용으로……

○장철민 위원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좀 정확하게 제출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정확하게 위탁비 예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보통인데 서왕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걸 보면 지금 이 내역 자체가 좀 불분명한 건 아닌가요?

○소위원장 강승규 자료 준비하실 수 있나요, 정부 측?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저희들이 관련된 자료 준비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어차피 보류하니까.

○소위원장 강승규 1·2·3항목 보류하고.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위원장님, 우리 담당 국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강승규 예.

○서일준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저도 하나 여쭙봅시다.

지금 일본 협력 예산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일본 우수 퇴직자 유치한다고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분야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 김종철 통상협력국장 김종철입니다.

일본의 퇴직자들 가운데 주로 소재라든지 특히 로봇 개발이라든지 또 아니면 불량률을 낮춘다든지, 나노입자의 설계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한 2~4년 정도 뒤떨어진 분야에 있어서 일본의 어떤 기업에서 퇴직한 인력을 채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성과나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있고요. 또 계량적인 분석도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리고 세 번째에 제 의견 나가 있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이 감액 의견 1억이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금액이라기보다 이런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너무 반복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쉽게 사실 이·전용하고 있는, 일종의 부처 내부에 예산 이·전용을 너무 쉽게 하는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감액을 해 놓으면 상징적으로 그리고 또 국가재정법상 이·전용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렇

게 과다하게 이·전용을 남발하지 마라라는 의미에서 의견을 드렸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확실하게 약속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늘 반복적으로 국회 예산심사 때마다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산자부의견을 남겨 주시고, 앞으로 정말로 특별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이·전용을 안 해 주시는 게 사실은 예산심사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남겨 주시고, 그거를 전제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장철민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3번은 철회하시나요?

○장철민 위원 예.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일단 1번·2번은 자료를 요구한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기로 해서 보류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잠깐이나마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교흥 위원 이따 자료를 주세요. 이따 자료를 주시고 그때 설명을 해요. 일단 넘어가지요.

○소위원장 강승규 1번·2번·4번 보류, 3번 철회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옥타 관련 문제인데 민간에 경상보조비를 지원했잖아요. 사업예산 지원했지요. 그리고 그 해에 수용비 다 쓰지 않고 그다음 해에 이월해서 쓸 수 있어요? 우리 의회의 승인받지 않고 쓸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소위원장 강승규 제가 경험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18대 의원 때 대한야구협회장을 하면서 세계청소년대회를 유치했었는데 야구협회에서 정부와 어떤 단체 등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정부 예산을 10억을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세계대회 끝나고 잘 끝나서 예산이 남았어요. 그런데 사단법인이니깐, 조그마한 단체니깐 회계 처리 등을 제대로 몰라서 이것을 다음 해에 이월시켜서 그대로 썼어요. 예를 들면 정부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만 한 5억 남았다 그래서 제가 특수2부 수사를 받았어요, 특수2부. 제가 대한야구협회장도 끝나고 국회의원도 끝나고 할 때 문체부에서 저를 특수2부에다 고발해서 제가 수사를 6개월 받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예.

○소위원장 강승규 옥타에 대해서도 아까 그 항목에서 코로나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 등을 이월해서 다 썼어요. 그런 부분 아까 다 해소됐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감사 결과나 이런 것 등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기준 이런 것도 다 내놓으시고.

이상입니다.

○김교흥 위원 이따 자료 내놓을 때 코트라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같이 내 보내요, 여기에다.

본부장님, 코트라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하여튼 제가 어제 예산 지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일체 다 내놓으세요.

○장철민 위원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의견 자체는 철회를 하지만 지금 방금 보고를 받아 보니까 실제로 이·전용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나 이게 여비 관련된, 실제로 어디로 출장 갔었는지 그 출장 시 소요된 예산이 어떻게 됐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을 했더니 산자부에서 제대로 제출을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출장 내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가지고 바로 제출해 주시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음, 8번 보고하십시오.

○장철민 위원 해 주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강승규 그건 뭐 자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장철민 위원 바로 좀 확인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업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내 협의의사록이 미체결되는 경우 해당 과제의 2025년도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불수용 말씀을 드리고요. 이집트 그린에너지와 과테말라 섬유 TASK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국 내부 사정에 의해 가지고 계약 체결이 지연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쪽에서 다들 금년 내 계약 체결을 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해 오고 있어서 이 부분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그러면 수용하시는 것으로?

○이종배 위원 불수용이에요, 불수용.

○소위원장 강승규 불수용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예, 불수용입니다.

○서일준 위원 이 내용을 김원이 간사한테 잘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예.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불수용으로 정리하고 나중에 김원이 위원님께는 이것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예.

○소위원장 강승규 9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9번입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수임국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글로벌 경제인 행사 확대에 국격 제고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40억 원 증액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수용합니다. 내년도 행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10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은 78쪽, 통상교섭본부 소관 무역보험기금입니다.

자료 10번부터는 1차관 소관이니까요 이따가 다시 심사를 하시고 78쪽 보시면 됩니다. 무역보험기금 수입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전체적인 현금수지 유입 흑자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초과 수입 등을 고려해서 2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불수용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보험금 지급이, 큰 보험 지급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상으로 여유가 좀 있게 보인다는 내년도에는 중소 조선 선수금 보증금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요. 또 방산 수출도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역시 이 기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원전이라든가 방산 등의 수출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10~20년까지 걸치는 장기 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무역보험제도의 재정 여력을 강화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저희가 자료들을 확인해 보고 실제로 국회 전문위원들도 확인을 해 봤을 때 사실 이 출연금 대비 다른 수입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수지 개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내년도에 특별하게 더 소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한 2020년 정도를 피크로 계속 줄여 온 게 일반 수입들이 워낙 늘어나서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일반회계 전입금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판단들이 있어 왔던 것 같은데, 이게 내년도에 다시 출연금을 늘리는 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히려 과거에 몇 년간 정책적으로 해 오던 대로 일반회계 출연을 다시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자체적인 수입 확대를 통해서 수지 개선들을 계속해 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앞으로 통상 환경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지난 몇 년간은 다행히 큰 보험금이 나갈 일이 없었지만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구조는 대형 기자재나 설비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우에는 역시 무역보험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유사 기관인 수은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도 저희들이 자본금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수은과 무보에서 각각 50 대 50 정도의 보험을 들어 주는데 수은에 비해서는 저희 무보의 재정이 약한 상황이고 또 OECD 같은 경우에는 장철민 위원님께서 잘 분석을 해서 말씀해 주셨습시다마는 이런 무역보험의 평균 자본비율이 한 18 정도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25로 여전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현금 수지가 한 3500억 정도 플러스될 것 같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7700억 정도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2년만 보더라도 거의 한 1조 2000억 이상의 현금 수입이 있는, 수지가 개선된 상황에서 200억, 300억 방식의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것이 정책적으로 큰 의미가 있나,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원래 기존 몇 년 동안의 추이대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줄이고 나중에 내년도에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실제로 수지가 안 좋아질 경우에 그 이후에 정책적인 대책을 토론해서 만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들이나 국회에서도 이 정도의 수지 개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라고 이해하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서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경우에는 일단 원래 추세대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줄여 놓고 내년도에 저희 산자위에서 이후에 상황이 발생하면 토론해서…… 이미 2년 사이에 수지 개선이 1조 몇천억이 이렇게 늘어난 상황인데 굳이, 올해 500억이었으면 그냥 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판단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냥 다른 기관에 비해서 어렵다 이것은 사실 논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이종배 위원님 의견 주세요.

○**이종배 위원** 지난해보다 350억이 늘어난 800억인데 요즘 수출이 늘어나고 특히 수출 중에서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대형 수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한 보증을 서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반회계 전입을 해 주는 건데요. 정부도 지금 굉장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무보에 전출해 줬다는 것은 상당히 따지고 따져서 해 준 겁니다. 무보에서도 자료 같은 것 잘 내서 설명을 하셨었는데 필요하면 그런 것을 장철민 위원님한테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가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위원장님, 담당 국장이 잠깐 설명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예.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조익노** 무역정책관 조익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무역보험 여유자금에서 수익이 난 것은 추세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보험 사고가 없었던 데다가 잘 아시겠지만 2023년하고 2022년 계속 고금리 상태였고요 그래서 채권 수익도 늘어났고 또 미국 증시도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건데,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연준이 피벗을 해서 올해 0.75bp를 내렸고 계속 내리면 내년에 한 1% 정도 더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수익이 한 2000억 되는데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면 내년에는 한 500억~1000억 정도 더 떨어지는 그

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금융 수익으로 발생하는 것은 항상 일시적이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부 출연금을 계속 꾸준히 증가해서 넣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수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저희 무보의 한 2배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출연하고 출자를 한 4.1조 이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대적으로 무보는 그것에 뒤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해외 대형 프로젝트로 갈 때 무보하고 수은이 50 대 50으로 가는데 이게 보조가 안 맞으면 조금 차질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장철민 위원** 일단 제가 정리할게요.

어차피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 분석을 해야 되고 기금 재정 부분에 출연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통합적으로 정리할 시기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제가 동의를 할 텐데 말씀하신 구체적인 자료는 전달을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조익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실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최근 4년간 수입이 거의 2조가 늘었는데 이것 200억 1%도 안 되거든요. 오히려 출연을 하나, 안 하나는 약간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로 기금의 큰 부분은, 포션은 아니잖아요. 1%밖에 안 되는데 최근 2년간 수익 개선의, 그래서 이것은 제가 더 들여다볼 테니까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조금 전에 기금을 늘리는 이유가 중소 조선, 방산 수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중소 조선 같은 경우에 지금 지원을 못 받아서 아우성인데, 지원을 안 해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도 중소 조선소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 조선업체에 대한 RG를……

○**서일준 위원** 지금까지도 안 해 줬는데 앞으로는 더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그렇습니다. 그 수요가 필요합니다.

○**서일준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 줘야지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무역보험기금 일반회계전입금 문제는 감액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지출입니다.

무역보험신용정보채권관리입니다.

무역보험신용정보채권관리에 관해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채권추심 비용을 정확히 추산해 적정한 채권관리 비용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서왕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비용 추산할 때 특별히 큰 숫자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제거를 하고 통상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비용 추계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부대의견 수용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부대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사항.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계속해서 바로 밑에 쪽에 있는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총한도는 280조 원으로, 본한도는 255조 원으로, 예비한도는 25조 원으로 설정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별다른 질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 몇 항으로 가지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은 1차관 소관 사항입니다.

우선 자료 1쪽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기타유가증권매각대입입니다.

2025년 청산 예정인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의 회수 예상 자금 132억 원을 기타유가증권매각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일부 수용입니다. 이번에 회수 가능한 금액을 확인했더니 85억 원만 확실히 회수가 가능하고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 결과 이 85억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아예 빠져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 의견들이 있어서 의견을 드렸던 거기는 한데 사실 이런 게 예산에 안 잡혀 있고 나중에 실제로 정산 자금이나 이런 게 수입으로 잡히면 예산 내역이 없는 게 갑자기 결산에 잡히는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엄밀하게 이런 청산 예상 자금을 잡아 올 것을 요구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예결산 하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청산이 될 것만 잡겠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청산하고 이후에 어느 정도 회계적으로 될 만한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아 놔야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미 확실하게 결정돼 있는 것만 세입으로 잡겠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잡아 놓고 그 정도의 세입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기재부하고 그 정도 계산이 돼 있으면 그것을 신뢰하기는 할 텐데 앞으로 이런 종류의 업무를 하실 때 세입 수준을 결정하는 부분도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기타유가증권매각대 수입 반영 문제는 일부 수용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아까 연번 6번은 1차관 소관으로 추후에 하기로 했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 해외플랜트진출확대입니다.

조선기자재 및 중소형 선박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이 24년 대비 5억 300만 원 감액하여 편성되었는데 중소 조선소 및 기자재 업체의 안정된 수출을 위해서 2024년보다 좀 더 지원하고자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외플랜트진출확대는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은 6쪽의 연번 10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RE100과 달리 구체적인 이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강제력 없는 협약만 체결되는 CFE 추진에 따른 실익이 불투명하므로 CFE 이니셔티브 추진 관련 예산 10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불수용입니다.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 지원을 위해서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불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연번 11번입니다.

제조 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구축입니다.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전기차용 소재·부품 성능평가 지원 및 환경 규제 등 안전관리 통합 지원을 위해서 2024년까지 감액된 군산지역 인프라구축 사업비 30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12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2번입니다.

국가생산성 혁신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광융합산업혁신생태계기반구축은 광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생태계 구축 및 기업 매출 증대를 위해서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비 4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3번입니다.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입니다.

전국 73개 공과대학과 산업계를 연계하여 융복합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학부생 인재 배출을 위해서 업종특화공학교육혁신센터와 기획평가관리비를 합해서 12억 1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4번입니다.

산업혁신 인재성장지원입니다.

먼저 첨단 분야 석박사 고급인재 양성 지원 프로그램인 교육훈련 지원 확대와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위해 해외연계 지원 확대를 합해서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국가 첨단 핵심소재의 기술 확보 및 섬유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해서 최소 연간 60명 이상의 인력 양성이 필요하므로 하이테크섬유전문인력양성에 10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1, 14-2 다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5번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확산 제도 기반 지원입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육성 등을 위해서 13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번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6번입니다.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 사업입니다.

비수도권 소재 반도체 관련 기업 및 대학의 수요 그리고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의 지역 확대를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 10억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7번입니다.

산업혁신기반구축(R&D) 사업입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전정밀분해적용 친환경 미래차 부품산업 지원기반 구축 사업에 25억 원 신규 반영, 그다음 중소형 CDMO 육성 항원·항체 소재뱅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 24억 원 신규 반영, 디지털 콕핏 기반 운전자 인지·편의 부품 성능평가 기반 구축 사업비 20억 원 신규 반영, 보급확산형 원·하청 AI-DX 생산공정 시스템 조성 사업비 20억 원 신규 반영,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발포 소재 상용화 공정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비 20억 원 신규 반영 그리고 동물대체시험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17억 원 신규 반영,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 사업비 17억 원 신규 반영 그리고 기존 전통 LED조명 제조산업을 차세대 순환형 LED 제조·서비스 융합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비 15억 원 신규 반영, 초안전 주행 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 가상환경시험 기반구축 사업비 10억 8400만 원 증액,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인프라 사업비 6억 5000만 원 증액, 스마트 파밍을 위한 디지털·전동화 기반 농기계 실증 기반 구축 사업비 5억 원 증액……

그다음 쪽입니다.

하이테크 롤 첨단화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2억 5100만 원 증액, 24년 예산 감액으로 구매하지 못한 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장비 구축비 2억 4700만 원 증액,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 성능 검증 기반 구축 사업비 2억 4500만 원 증액, 중고 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 구축 사업비 2억 4400만 원 증액, 물류 영역 서비스 로봇 공동 플랫폼 구축 사업비 2억 3500만 원 증액, 국가 재난 슈퍼박테리아 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기술 개발 기반 구축 사업비 2억 2700만 원 증액, 플렉서블·스트레처블 산업 창출을 위한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 구축 1억 3500만 원 증액, 지능형 의지 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사업비 5800만 원 증액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산업기술 혁신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장비 또는 시설의 임대,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직접비로만 투자할 수 있는바 총 사업기간 동안 미사용한 수익금에 대한 적정 처리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장철민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R&D 과제 신규 반영하면, 그러니까 원래 있는 계속사업들을 증액하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규 반영은 사실 저희가 R&D 처음 신규 반영할 때, 예를 들면 과기부의 국가기술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의 절차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것 하는 게 절차적으로 가능하기는 해요, 신규 반영하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예, 가능하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의견 주신 내용을 소관 과에서 1차적으로……

○소위원장 강승규 아니, 본인 직함하고 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죄송합니다.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입니다.

말씀 주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 과 검토를 거쳐서 일단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고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고요.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 내부 편성 절차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증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냥 반영이 가능합니다.

○장철민 위원 진짜 그냥 궁금해서 여쭙보는 거예요. 이것 제가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통 R&D 신규 반영할 때의 원래 절차를 사실 추월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부 내부에서 조정이 되는지……

○김교홍 위원 예결위 가면 안 된다니까.

○장철민 위원 그게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 예결위는 다른 이야기고.

그래서 여쭙본 거고, 가능한 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과제들이 전국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그런 과제들도 있고 또 정부 내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과제 틀을 짜 가지고 공모를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것처럼 과제를 특정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지금 주신 것들은 맨 후자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과제들을 제안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각 과에서 다 1차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후속적인 정부 내부 프로세스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디펜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7 산업혁신기반구축 예산은 원안대로 다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부대의견도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8번입니다.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의 24년도 R&D 신규 과제 협약 지연분 237억 원, 24년도 R&D 신규 과제 4개 미선정에 따른 25년도 과제비 감액 32억 8800만 원, 25년도 R&D 신규 과제 예산 80억 원, 신규 협력센터 2개소 설립 예산 12억 원 등 총 361억 8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중에 24년도 R&D 신규 과제 협약 지연분 등 269억 8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 신규 과제 4건 미선정에 따른 내년도 계속과제비 8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25년도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해서 9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불수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과제 선정 협약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 의견과 내년도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비 감액 의견들로 나뉘지는 것 같습니다. 신규 과제들 같은 경우에 금년도 사업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좀 늦었지만 사업비 집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국제협력이라는 게 전 세계 주요국에 대비해 봐서 우리나라가 비중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앞으로 늘려 나가야 될 분야고 기업들의 수요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일단 제가 드렸던 의견부터 조금 여쭙보면, 저희가 신규 과제 4개 미선정해 가지고 사실 계산상 4개는…… 그러니까 원래 48개 목표였었는데 44개만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지금 미선정된 4개 과제가 말씀하신 대로 미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 절차를 진행했는데 과제들을 조금 보완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과제를 좀 제대로 된 과제를 추진해 보고 싶은 욕심에 보완 사항들을 제시하다 보니까 당초의 계획보다는 늦어졌는데 12월 초에는 다 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면 12월 초가 아니라 저희 예산 마무리되기 전에 완료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미선정됐다는 건 없는 과제에 예산을 태우는, 형식논리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란인데 예산만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심사를 통과시킨 면 좀 이상해지는 건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처음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사업 개시 시점, 협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원래 8월로 예정해 놓고 예산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8월 대비해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걸 최대한 단축해서 8월로 선정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일부 과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과제를 하는 건 맞는데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 해서 그렇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래도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저희가 그게 완전히 치유된 상황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의결을 해야지, 그 문제가 치유되지 않았는데 그냥 공란인 상황에서 이 4개 과제도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건 사실 저는 논리적으로 완전히 말이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드리기는 어렵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미선정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12월 초까지 다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정으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전체로 해 갖고 해 놓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채우는 형태로 이렇게 예산한 적이 있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정부 내에서 예산 협의를 할 때…… 생각해 보시면 이게 8월 달에 과제가 선정되는 걸로 돼 있고 정부의 예산 프로세스는 오히려 상반기, 거의 한 오뉴월 되면 다 끝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는 이게 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진행이 됐지만 일부 과제가, 저희가 보기에는 이 과제가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이 되려면 이런 일은 이런저런 보완 과제가 필요하다 해서 조금 늦어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과제를 좀 제대로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교흥 위원** 차관님, 그런데 이게 뭔가 특수한 상황이 있었나요,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라는 것은 해외에 있는 존스홉킨스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술적으로 우리하고 채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금년 같으면 6개를 뽑는 건데, 뽑고 그 기관들과 우리 기업들과 같이할 과제들을 뽑아내는 그런 두 단계로 나뉘어서 일이 진행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기관들과 협의를 하는,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한테 그냥 과제를 주는 거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상대방 국가가 있다 보니까 협의를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아니, 이걸 할 때, 과제를 만들 때 우리는 미리 예측을 하고 이러이런 걸 하자 이렇게 됐을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김교흥 위원** 그러면 그쪽 상대 국가의 연구소하고 얘기할 때 이미 진행을,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었을 텐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것 지금까지 안 된다는 건……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지만 위원님, 아까 6개 글로벌 협력 거점을 정하는 것은 이미 다 돼 있는데 그 기관들과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48개나 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를 협의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건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센터를 정하고 그다음부터 협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미리다 예정을 해 놓고 과제들을 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시다.

○**김교흥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여러 가지 건건마다 계획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율주행이면 예를 들어서 미국

의 스탠퍼드대학의 연구소가 잘한다 그러면 거기하고 진행을 할 텐데 이걸 왜 지금까지, 지금 11월이 넘었는데도 안 된다는 건 이게 쉽지 않은 것 아닌가? 차관님이 12월 초까지 그렇게 확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그럴 상황으로 저는 알고……

○김교흥 위원 아니, 무슨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추가적인……

○김교흥 위원 아니, 잠깐만.

무슨 근거로 확언을 하냐고. 지금까지 안 됐던 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지금 그 남은 과제에 대해서 협의를 상당 부분 진행을 해 왔고 저희가 사업 보완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 이렇게 하십시오.

차관님, 자료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이런 식으로 한 사례가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과제들이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12월까지 확실하게 지금 차관 얘기한 대로 될 수 있다든지 그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줘야지. 그걸 보고 판단하고, 지금은 잠깐 보류해 놓도록 하십시오.

○소위원장 강승규 18번 산업기술국제협력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어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건의 미션정 과제 등이 12월 초는 자신하고 된다고 하면 12월 초에 공개될 내용 중에 다는 안 쓰더라도 과제 제목이라든지 어느 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데 그게 보완상 문제가 없는 정도면 열람이든지 아니면 이따 자료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 보류를 해 놔다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리고 과거 사례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 지적한 것 등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18번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산업기술국제협력의, 지금 논의하신 거 바로 밑에도 보면 내역사업에 다른 내역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 보류했다가 그러면 오후에 같이 논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시지요. 19, 20, 21번이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8번의 내역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18번은 다 보류하는 걸로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입니다.

70kV의 신송전 전력기자재 평가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하여 기획용역비 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20번입니다.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에 첨단산업특화단지를 지정하였으나 SOC 지원, 예타 면제 사업 등의 지원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소재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수용으로 정리합니다.

21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1번 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는 철회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21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21번 사업은 김원이 위원님이 제기하신 감액 의견인데 어제 저녁 늦게 철회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22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조선스마트생산혁신지원 사업입니다.

중소 조선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디지털전환, 조선소·협력사 연결화 기술지원 등 중소 조선 생산공정 혁신 및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서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번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3번입니다.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지원입니다.

이차전지 소재 공정 파일럿플랜트 및 셀 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8억 4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23번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4번입니다.

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사업입니다.

중소형 조선소 및 조선업 협력사의 중대사고 예방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서 2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5번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용후배터리 산업 활성화, 통상규제 대응, 사용후배터리의 무단폐기 방지 등을 위해서 ISP 용역비 산출 내역 근거에 부합하도록 2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26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6번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바이오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송도, 남동, 영종 등 바이오 특화단지 내 R&D 인프라 구축 및 연구비 66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리튬인산철 사용후전지에 대한 친환경·재자원화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비 5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신속 투자가 필요한 과제 중심으로 특화단지별 기술개발 사업 수요에 비해 부족한 44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술개발 사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전후방산업 차세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비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기스쿠터, UAM, 전기선박 등 다양한 배터리팩 수요 증가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용 배터리팩 제품화 지원센터 예산 39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이차전지 산업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확보 및 자원 자립을 위한 디지털트윈 기반 사용후배터리 재자원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비 3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극재 생산 시 대량의 전력과 공업용수가 사용되므로 전력·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발생량을 감축할 수 있는 공정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비 21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전체적으로 수용하고요. 다만 네 번째의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내용 중에 일부 기존에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8억 원을 제외하고 32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번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사업의 경우 다른 항목은 증액으로 원안대로 하고요. 네 번째의 울산의 경우 8억 원을 감액해서 32억 원 증액으로 그렇게 정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7번입니다.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접합부 품질관리 기준 마련과 실증기반 구축을 통한 배터리 안전성 향상을 위해 4억 8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번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28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8번입니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입니다.

이차전지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을 위해서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건립을 위한 장비구축비 6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장비구축비가 그동안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증액 요구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증액입니다. 기존에 있는데 한 6억 7000만 원 증액하는 거고요. 장비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예, 28번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9번입니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국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한데 96억 원 증액의 의견과 6억 원 증액의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몇 번 수용하지요? 96억 또는 6억.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각각의 장비가 다른 장비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장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강승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다른 장비예요?

○산업통상자원부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 첨단산업정책관입니다.

첫 번째 96억 원 증액은 초고속 반도체 파형 측정 분석기와 같은 장비를 증액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6억 원은 에플레이터라고 대략 한 1대당 70억 원 정도 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워낙 고가 장비다 보니까 저희가 분할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너무 예산이 적어서 당초에 분할 납부를 할 금액을 충분히 충족지 못해서 에플레이터 구입 비용을 좀 더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장비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없으니까 2개 다 증액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30번입니다.

지능형반도체 개발 실증지원입니다.

AI 반도체 산업 발전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중기재정계획상 기존 투자계획 반영을 위한 6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1번입니다.

생산 기반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첨단기술을 농산물 생산에 적용하는 애그테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핵심장비 구축 및 센터 착공·기업지원사업 운영 등을 위해 사업비 감액분인 22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번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2번입니다.

첨단 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첨단 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 사업의 시급성 및 필수적 사업 운영 규모를 고려해서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하고요, 3억 3000만 원 증액이면 내년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번은 3억 3000만 원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3번입니다.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입니다.

첨단산업의 초격차·고난도 기술 확보를 위해 신규 과제 예산 2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4번 CVC투자연계대중견중소기업협력입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연계 R&D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14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잠깐만요. 일단 증액 의견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셨을 거라고 보고 동의할 하는데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릴게요.

이 CVC에 대해서 대개 정부가 CVC를 육성하는 걸로 그동안에 얘기를 해 왔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CVC가 벤처캐피탈 성격보다는 약간 기관 성격이 강해요. 은행이든지 기업이든지 기관이잖아요. 대기업입니다. 혁신투자에 안 맞는 조직이에요. 대개 위에서 인사를 해야 되고 위에서 압력도 오게 되고 의견도 주게 되고. 그런데 이게 혁신투자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시장의 혁신적인 수요를 가지고 좀 과감하게 투자 결정을 하는 조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양을 늘리기 위해서 자꾸 CVC를 강조를 해 왔기는 한데 지금 양보다는 혁신투자의 질적인 수준을 좀 글로벌이 가져가는 게 중요한 시기니까 이 CVC에 대한 지원을, 계속 이게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일단 조금 바뀌어야 될 타이밍이 됐다고 보거든요.

산자부에서도 CVC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야말로 기업이나 은행이 자기들이 끌고 가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하는 거는 저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터닝을 할 때가 됐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차관님이 잘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 한번 설명 좀 하실 수 있어요, 지

금 이 의견에 대해서? 누구……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입니다.

저희가 CVC 대상 기관, 투자 기관을 정할 때 혁신 R&D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지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각도를 가지고 정부 R&D 추진 방향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은행과 같은 기관 역할을 하는, 투자 기관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요. 정부 R&D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유념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질적으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CVC 자체가 은행이나 기업 같은 그런 대기업 조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혁신투자 조직을 글로벌 시키는 게, 그러니까 사이즈를 키우는 게 기업이나 은행 도움받아서 키우는 거는 한국적 상황 때문에 좀 특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리(globally) 혁신투자 기금을 모으는 쪽으로 이 VC를 육성을 해야지 기업이나 은행 도움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다 또 정부 지원까지 이렇게 갖다 붙여 주면, 이런 CVC들이 계속 활성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건, 한 건 아이템이야 R&D 아이템 다 검사했겠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CVC에 대한 지원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김종민 위원님 의견 참조해서 34번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35번입니다.

제조데이터표준인공지능활용제품전주기탄소중립지원기술개발입니다.

EU의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을 위해 디지털 제품 여권 플랫폼 구축과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거 35번의 경우 그러면 정부가 이 부분의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예산 요구했는데 감액을 한 게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지금 플랫폼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정부안에. 지금 이 플랫폼은 탄소가 각 제조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얼마큼 들어갔는지를 판단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고 다만 일반 중소·중견기업들이 유럽의 규제에 대응을 하려면 유럽의 규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을 추가로 담았어야 되는데 못 담은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35번,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6번,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관련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시 개별 사업의 적정성 검토 후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타 부처의 도전적·혁신적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예타 면제 후에 적정성 검토가 지금 진행 중이고 1월 달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제 중복도 관계 부처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중복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부대의견 채택합니다.

37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7번입니다.

R&D혁신스케일업융자(이차보전) 사업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향후 이차보전 지원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24년도 대출승인 실적도 2500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27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번, 감액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8번입니다.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는 제철산업에 자체 동력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스마트 용선운반차 기술개발을 통한 제철소 품질·안전·생산량 증대가 시급하므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불수용 의견입니다. 기업들이 고로에서 전로로 쇳물을 실어 나르는 그런 운반차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기업들이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두 군데밖에 고로가 없기 때문에 이 기업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것 제가 한마디.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

○김교흥 위원 제가 증액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이 용선 차량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쇳물의 온도 보존 및 안전한 운송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매년 6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용역을 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3억을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이것을 한대요,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습니다. 포스코 쪽에서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교흥 위원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철도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는 사업 같은데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좀 맡겨 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김교흥 위원 확인을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확인했습니다.

○김교흥 위원 확인했으면 그 확인한 것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확인을 좀 저한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 과제를 제안해 주신 연구원 하 고도 다음 주에 같이 3차 회의를 해서 설명도 드리기로 했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김교흥 위원 그러니까 확인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38번은 불수용으로 정리합니다.

39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39번입니다.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5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자원순환 시범산단이 지속적으로 신규 구축되도록 16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수산단의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비 8억 원 반영 그다음에 포항철강산단 저탄소 자원순환 단지 조성 8억 원 반영 필요하 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0번입니다.

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 사업입니다.

입주기업의 재난·안전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 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1번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입니다.

내역사업 서비스핵심기술개발 그리고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의 기존 정부안 규모로는

제조서비스 혁신 및 유망 비즈니스모델 서비스 상용화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10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불수용입니다. 산단 청년들을 포함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K-패스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또 인천을 비롯해서 여러 곳 산단에서 통근버스 운행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의 긴급성 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참, 불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아니, 위원님들.

○김교흥 위원 강조를 해.

○소위원장 강승규 이게 뭐지? 이게 다른 문제인데. 지금 41번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교흥 위원 내용이 다른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헛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교흥 위원 차관님이 헛갈리면 안 돼.

○소위원장 강승규 41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42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2번,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입니다.

좀 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션기업과 연계 지원하는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의류봉제산업 커넥티드 마이크로팩토리 구축지원 사업 30억 원 증액 필요 그리고 새로운 국내 의류제조 공급망 기반 구축을 위해 K-패션 2.0 의류제조기업 구축 및 레벨 업 지원사업에 15억 원 증액 필요, PET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이용한 폐섬유 자원순환(탄소중립) 플랫폼 구축 사업비 15억 원 증액 필요, 부산의 영세 신발기업 디지털 제조 및 혁신을 위한 디지털 기반 신속 신발제조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비 11억 원 증액 필요 또 방직산업 제조공정 안정화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차별화 화섬사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침체된 섬유업계의 신제품 확대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10억 원 증액 필요, 내역사업 제로 웨이트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을 통해 섬유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10억 원 증액이 필요, 내내역사업인 그린&클린 팩토리 전환지원 사업에 산업 수요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서 7억 원 증액 필요 그리고 탈탄소·중양화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섬유패션기업의 민첩한 대응 등을 위해서 패션 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 사업 7억 원 증액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번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3번입니다.

글로벌재활용규제대응플라스틱밸류업을위한혁신기술개발입니다.

플라스틱 재자원화 기술개발로 자동차, 에너지, 석유화학 등 관련 산업의 고부가 공정 기술 확보를 위한 파일럿 규모의 연구개발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8억 원 증액과 28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합니다. 58억 원 증액으로 해 주시면……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예전부터 우리 플라스틱 재자원화 기술개발 같은 것들을 해 놓고 나중에 완료된 성과물들에 대한 일종의 인증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잘 안 돼 가지고 R&D 끝나고 사업화 끝난 이후에 또 민원 생기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반복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후에 성과물 활용 방안까지 좀 고민하면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플라스틱 오일 같은 것들 활용 기준 문제 때문에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제한되고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니까요. 이 결과물 이후에 활용 방안 같은 것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기름 등을 생산하면 그게 RE100이나 이런 데 다 플러스되는 겁니까? RE100은 아니더라도 재활용……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자동차 폐범퍼 이런 데 플라스틱인데 재활용을 위해서 거기서 PP를 뽑아낸단든지 또는 풍력 블레이드에서도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플라스틱을 녹여 가지고 거기서 기름 뽑아내는 것은 뭐야, 이 사업 하고는 다른 건가요? 다른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공급망국장 나성화입니다.

열분해유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때 아예 녹여 가지고 그것을 유분화시켜서 처음부터 플라스틱을 다시 재생산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강승규 아니, 거기에서 기름을 생산한다니까. 기름 나온단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플라스틱을 만들 때에는 기초 유분 그러니까 납사라고 하는 석유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기초 유분을 거기서 뽑아냅니다. 기초 유분이라는 게 결국 기름 덩어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가공을 해 가지고 합성수지라든가 합성원료라든가 고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우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폐플라스틱 분야 관련해서 그동안은 지금까지 이 자원

순환 분야에 R&D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관계서 말씀하신 것처럼 EU 같은 데서는 신차를 제작할 때 범퍼 같은 데 일정 부분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그런 재활용 플라스틱을 넣어라라고 규제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맞춰야 수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폐플라스틱을 기존 제품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분야들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R&D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이해했습니다.

58억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44번, 농업기계디지털전환향개방형응용소프트웨어오픈소스 및협력개발서비스플랫폼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농기계의 전기구동, 자율주행 등 디지털전환에 따라 오픈소스 및 플랫폼 구축 등 초기 연구개발비 2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대의견으로 농업 분야 주관 부처인 농림부와 기술개발 관련 유기적인 협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부대의견도 수용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부대의견에 따라서 농림부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번, 증액 및 부대의견 수용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5번입니다.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나노 분야의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으로 투자 규모 축소 시 사업 성과 창출 저조가 우려되므로 10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6번입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입니다.

먼저 급성장 중인 로봇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로봇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글로벌 수준 로봇 실증환경 및 실증·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므로 본격적인 건축설계, 공사 등 인프라 구축 일정에 맞게 2년 차 사업비의 정부 원안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24년 내에 기본설계 완료가 어려운 부분과 부지 감정평가 및 부지 확정 지연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194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90억 6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132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정부 원안대로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액 의견에서는 이게 부지 선정이 지연돼서 앞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냐 이런 걱정, 우려를 해 주셨는데 부지 선정이 당초 24년, 금년도 5월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개월 지연됐습니다. 1개월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질 건축설계를 하고 건축 기본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려가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이것 어디에 설치되고 있는 겁니까, 필드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대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대구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다양한 서비스 로봇들, 배송 로봇, 물류 로봇 이런 것들이 실제 환경에서 작동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게 하는 테스트 필드가 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래서 원래 착공 시점 예정하고 지금 지연되는 착공 시점이 언제 정도로 예상이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지금 착공 시점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게 내년 9월로 지금 예산을 하고 있고요. 9월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내년 9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완료돼서 착공에 들어갑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면 착공 자체도 거의 내년 연말 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선정과 건축설계, 두 단계로 나누고 그다음에 착공에 들어가는 프로세스인데 부지 선정이 1개월……

○장철민 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사는 결정이 돼 있나요?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입니다.

아직 용역사업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리고 총사업비 조정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허성무 위원 말씀 다 하셨나요?

○장철민 위원 이거 확인 좀 하려고요.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권향엽 위원 입찰공고는 했나요, 10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아직, 이번 달 중에 지금 그런 부분 마무리 지어서 바로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가능해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예.

○권향엽 위원 그런 데다가 지금 로봇 실증평가·기술개발 과제비 19억은 아예 편성도 안 돼 있는데 가능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제가 위원님 질문을 잘 못 들어 가지고요.

○권향엽 위원 로봇 실증평가·기술개발의 경우 19억 원의 과제비가 편성되었지만 사실 교부된 바가 없다고 지금 저희는 자료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냥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다라고만 말씀하셔서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지금 이것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담당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면 저희가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제가 좀 궁금한데요. 이게 대구가 그때 확정돼서 대구로 이 사업이 갈 때 이미 어디에다가 부지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를 정확히 해 가지고 부처에 신청했고 그렇게 확정된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런데 부지가 확정도 안 됐다 하면 이게 어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부지는 확정이 돼 있고요. 건축공사 시점 질문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업체, 실제 건축을 실행할 담당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허성무 위원 여기 보니까 ‘감정평가 및 부지 확정 지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당초 계획에 부지 입지로 정해졌던 것을 구매해야 되는데요. 대구시나 이런 쪽에서 자금 조달이 약간 한두 달 정도 차이가 발생해서, 지금은 문제없이 해결됐습니다.

○허성무 위원 시에서 부지 제공이 제때 안 됐다 그 이야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예.

○허성무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어떻게, 위원님들 지금 뭐 추가로 자료 보시고 가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바로 확인해서 말씀……

○권향엽 위원 바로 확인하시고요. 지금 현재 과제비가 편성도 안 돼 있는데, 교부도 안 돼 있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니까 관련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46번 일단 보류하고 자료 제출하셔서 위원님들 이해되시면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47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7번, 첨단 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 사업입니다.

농기계산업 분야 인프라 확충 및 시험평가·설계 공정 지원 등 생태계 전반에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핵심장비 구축을 위해서 당초 사업비 감액분 4억 원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48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8번, 핵심전략산업대응탄성소재재도약사업입니다.

탄성소재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3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8번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9번입니다.

바이오매스기반비건레더개발 및 실증클러스터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부산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세계적으로 기술이 초기 단계인 비건레더 소재 분야의 선도적 연구를 위한 것으로 실증장비 도입 및 기술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1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동 사업은 버섯 폐배지 등 바이오매스 기반의 비건레더 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으로 저탄소 소재산업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해 10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두 가지가 다, 위엣것은 자동차용이고요 밑엣것은 소비재용인데 둘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9번, 49-1, 49-2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0번입니다.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자 기술개발·실증사업입니다.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주항공용 특수 기능성 소재의 국산화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산 전투기 양산계획에 맞추어 적기의 기술개발과 인증·실증 기반을 구축해야 하므로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1번입니다.

폴리에스터혼방섬유의F2F리사이클핵심기술개발입니다.

동 사업은 분리가 어려운 의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신규 사업으로 세계 최초로 시도 되는 기술로 상용화 수준의 기술개발을 위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2번입니다.

자동차산업기술개발입니다.

먼저 그린카, 스마트카 분야의 신규 과제 중에 총 13개 과제에서 9월 말 기준으로도 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등 사업 지연이 발생했으므로 이들 과제비의 6개월 치에 해당하는 141억 6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5년 예산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서 올해 9월 말까지 과제 협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20개 과제에 대해서 과제비 8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충주시와 연계한 모듈러하우스 이송 및 하역작업 자동화 가능한 제한된 자율주행 PBV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사업에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불수용입니다. R&D 과제의 공고 횟수와 관련해서 당초에 연 한 번 하던 것을 3회로 이렇게 확대해서 추진하면서, 기재부에서 만든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불일치하는 부분은 내년도, 후내년도 예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52-3은 어떻습니까? 35억 증액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 부분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협약 미체결이 있었다고 해서 이게 초과 편성된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초과 편성이 이루어졌으면 그만큼을 계산해 가지고 감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산자부 의견은 초과 편성 자체가 아니다, 이거는 분기로 나뉘어서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다, 그냥 실무상의 행정적 변화일 뿐이다라고 지금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 이해가 맞나 싶어 가지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연중 1회 하던 것을 1월, 5월, 7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 보통 공고를 하면 사업자 선정하는 데 한 두 달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려면 내년도 예산편성 한 번으로는 이게 해소가 안 되고요, 후내년에 기간 단축하는 예산 조정이 한 번 더 필요하긴 합니다.

○장철민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 과제 협약 미체결 현황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

는 자료로는 9월 말 기준으로 13개 정도, 212억 정도 협약 미체결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1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 조정들이 다 필요한 상황이긴 한 거잖아요.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해 가지고 감액을 해 놓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차관님 설명 올린 대로 일단 세 번 정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되거나 혹은 다음 연도에 집행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25년의 사업비를 일단 한 2개월 정도를 줄여서 저희가 정부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 과제나 이런 부분도 실제로는 조금 당겨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줄여 간다면 충분히 집행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금년 5월에 공고를 했다 하면 7월에 사업자 선정이 될 것입니다. 협약이 체결될 텐데. 그렇게 하면 연말까지 하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신규 과제들 사업비를 예산편성해 주실 때 9개월 치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6개월만 금년에 남잖아요. 그러면 3개월을 이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니다. 내년에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폭이 줄어들면서 후내년 되면 완전히 일치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월이 불가피하게 그 예산편성 과정에 담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장철민 위원 하여튼 그거는 좀 자료를 보고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월을 예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확 쉽게 납득은 되지 않는데 저희가 자료를 조금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것 자료로 추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일단 52번 항목은 보류하겠습니다. 52-1·2·3 다 일단 보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3번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입니다.

소형 e모빌리티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PM 핵심부품 개발·제작 및 실증연구에 필요한 3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이 부분 불수용입니다. 저희 산업부와 과기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판정을 받아서 증액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권향엽 위원 사업평가 미흡이 어떤 항목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외 진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좀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인도네시아랄지 이런 쪽에

배터리나, 해외 진출이나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권향엽 위원 그게 지금 현재 해외 진출에 대한 그쪽 상대국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그런 것이 미흡했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e모빌리티의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배터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기술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인지……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떨어지지 않는데요, 전체적으로 중국의 배터리가 가격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해외 진출이 좀 어렵지 않았냐,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는 지적이었습니다.

○권향엽 위원 평가자료 같은 거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예.

○소위원장 강승규 권향엽 위원님, 그러면 정부 측 불수용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송재봉 위원 잠깐만, 저도 좀……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추진 실적이 미흡했기 때문에 불수용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예,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도 어느 정도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지금 정부 전체적으로 R&D 편성 기본 지침상 이 부분은 감액하는 걸로 원칙을 정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불수용으로 의견을 정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러니까 감액의 원칙을 정한 게 이 사업만 특별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여기는 어떤 기준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산업부 R&D 예산편성 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기부 예산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이나 이런 부분……

○송재봉 위원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서?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예.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특히 혁신성 부분에서 좀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 평가 결과를 좀 저희가 보고 판단하시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강승규 평가 결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예.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이것도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54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4번입니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입니다.

배터리 공유스테이션의 안전성·신뢰성 문제 해결을 통한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4번,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5번입니다.

특장차 안전 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특장차 기술개발 및 지원 등 특장차산업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비 22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불수용입니다. 이게 원래 장비를 도입하려면 금년도 과기부 심의를 통과했어야 하는데 심의에서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아서 내년에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 그게 그러니까 총 국비가 146억, 지방비가 92억, 민자 29억 그런 사업인데 어쨌든 지금 특장차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과기부 통과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그렇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액인데, 이게 특장 시스템의 고도화라든지 작업능력 그다음에 특수목적 자동차의 안전, 신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과기부에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어차피 지방비도 있고 민자도 있고 한데 이걸 그렇게 보류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나요? 원스톱의 그런 진행을 목표로 하는 건데.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그것은 저희가 과기부 쪽에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심위를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장차의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중에 장비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당초의 도입 사유라든지 견적서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아마 이게 장비심의위원회 통과가 안 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장비심의위를 통과하고 내후년 예산에 올리는 방법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열심히 한다는 전제로 미리 예산에 올릴 수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아무래도 이게 했던 사업이라서 이것을 또 내년에, 그러니까 공백이 생기면 이런 것 진행하는 사업이 제대로 원만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사유를 좀 듣고서, 자료를 좀 우리도 추가로 해서 이따 오후에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소위원장 강승규 55번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6번입니다.

디지털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미래차 전환 대비 중소·중견기업의 부품 성능·기술 고도화,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기반구축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니까 56번,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7번입니다.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산업 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시험 및 분석장비의 도입 관련 심의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추진이 미흡하고 조달청 입찰공고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10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건축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등 센터 구축 사전 준비 절차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불수용입니다. 지금 감액에 대해 지적을 하셨는데 10월에 장비 발주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통과했고요, 나가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권향엽 위원 지금 건축부지 매입하고 실시설계 등의 센터 구축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입니다.

지금 준비가 미흡해서 이게 제대로 되겠냐라고 하는 지적 취지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관련 시설 스피드업 해서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장비는 구축이 됐는데 여기 센터 건립에 관한 것도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예.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권향엽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57번은 정부가 불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 현황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예.

○소위원장 강승규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58번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여기 58번부터는 그러면 점심시간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승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58번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8번, 전략제품창출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팹리스산업 육성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감안해서 기존 요구안대로 19억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9번,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뿌리기업이 밀집된 특화단지의 업종별 집중육성 및 지역 주력산업 연계·혁신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공동활용시설·공동혁신활동 등 선도형 사업 지원을 위해서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60번입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입니다.

내역사업인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에 실증사업과 국내외 인증 지원을 위해 2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61번 항목입니다.

25쪽부터 26쪽까지 사업 증액 요구한 쪽지들이 많은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AI 기반 뉴시니어 건강분석 디지털헬스시스템 실증지원 사업을 위해서 56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내 실증시스템을 지원하는 AI·빅데이터 기반 혁신의료기기·의료로봇 실증센터 구축비 5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스마트헬스케어 산업통계 및 해외 마케팅 지원센터 등 스마트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사업화 통합지원에 4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AI 기반 맞춤형 뷰티기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 글로벌 지원 사업에 3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임상시험 빅데이터 지원센터 및 실증환경

구축을 위해 3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ABBM 기반 첨단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추진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ABBM 기반 휴먼증강 기술 실증 플랫폼 30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지역 AI데이터 센터 구축 및 활용 실증지원을 위해 디지털 의료데이터 산업적 활용 촉진 28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헬스 산업 제품에 온디바이스 AI 적용을 위해서 인공지능 프로세서 탑재 의료헬스기기 사업화 역량 지원 강화 사업으로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미국, 유럽 등 국제적인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규제 의무화에 따라서 이의 대응을 위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내재화를 위한 시험평가구축을 위해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에게 이미지 정보를 멀티모달 체계로 전달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K-EYE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에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를 중부권 첨단의료기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의료기기 첨단기술 실용화센터 구축에 1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휴머니제이션 기능성 바이오 식이제품 해외진출 지원 프로젝트 믹스 기반구축 사업에 1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상용화를 위해 지원 예산 8억 2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대전 바이오혁신특화단지 선정에 따라서 혁신신약 개발 초고속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7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국제협력 임상실증 기반 구축이 필요하므로 AI 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확산 지원 사업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해외 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예산 10억 원을 원안대로 유지하고 충남에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바이오 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사업에 각각 10억 원 또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일괄적으로 수용합니다. 다만 11번 세부 과제의 경우에 지역을 이렇게 충주로 특징을 해 놓았는데요 기반 구축 사업을 할 때 전국 공모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정 지역은 삭제하고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모든 것은 증액 또는 원안을 유지하고요. 11번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이 부분에서 충주를 빼고 바이오헬스, 그러면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바이오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사업에 10억 또는 1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 이재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10억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10억 증액으로 하고요.

‘충남 공모 지정’이라고 제가 의견 냈다는 것, 이게 이렇게 여기다 써도 돼요? ‘충남 공모 지정’이라는 게 뭐지요, 여기서? 내가 이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충남을 포함해 달라는 것 아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 위원장님, 그 공모 특성상 저희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기는……

○소위원장 강승규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 한정해서 공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러면 그 앞의 지역 원주도 마찬가지로.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지요? 충남을 포함해 달라는 것 아니었어요, 공모하는 데?

○산업통상자원부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 그것은 전국 공모를 할 테니까요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요.

○소위원장 강승규 아니, 여기 충남에도 바이오 이것 지정 추진하고 있는 게 맞는데, 제가 이 의견을 충남 공모 지정 필요하다는 얘기를 냈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제가 이런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이렇게 충남이라고 써도 되는지, 제가 특정 지역을 지정할 수 없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위원장님, 이렇게 사업 내용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다’ 이런 표현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렇지요. 당연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여기 관련 지역 이런 것들은 관련 지역이 관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하지 싶은데 어떤 특정 지역에 이 사업을 준다 그런 표현은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아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의견을 냈길래 이게 ‘충남 지정 공모 필요’ 해 가지고 강승규……

○김교흥 위원 본인이 내 놓고……

○오세희 위원 충남에 계시잖아요. 위원장님이 충남에 계시잖아.

○소위원장 강승규 잘못 썼대요, 우리 보좌진이. 이것 빼세요.

○김교흥 위원 공모하는데 지역 특정할 수 없지.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니까 제가 자백하잖아요.

○장철민 위원 충남 쪽에 얘기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김교흥 위원 얘기가 됐어도 이런 건 서류상 이렇게 남겨 두면 안 돼.

○장철민 위원 남겨 놓으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강승규 이것도 원안 유지, 마지막 항목에서 ‘예산 유지’ 이렇게 쓰고 충남

이것은 뺏니다.

○**장철민 위원** 아니, 어차피 증액으로 동의했으니까 그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유지가 아니고 증액이니까.

○**소위원장 강승규** 증액이니까?

○**장철민 위원** 10억 증액에 동의했으니까 이것도 필요 없는……

○**소위원장 강승규** 이 항목 빼면 10억 증액으로.

○**장철민 위원** 예, 그렇게 심플하게 정리하시지요.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62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형융복합바이오의료제품기술개발및실증 사업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제비를 연내 집행 가능한 과제추진계획에 맞추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불수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6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그 해당 세부 내역사업이 작년 12월에 공고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 2월까지, 아까 유사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월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 내년도 예산 신청 금액은 2개월을 차감하고 10개월분만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불수용?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원래 정부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이게 뭐지요? ‘산업통상자원부는 과제비를 연내 집행 가능한 과제추진계획에 맞추어 편성 필요’ 했는데, 이게 김원이 위원 의견에 어떻게…… 불수용이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이 지연된다고 보시고 그만큼을 내년도 예산 신청에서 감액을 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내년도 2월까지 사업이 간다라고 보고 원래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편성되어 있었고……

○**소위원장 강승규** 오케이. 그러면 이것 불수용이네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김원이 위원님의 내년 2월까지 집행 가능한 것 등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했거나 정부 측 설명이…… 그러니까 이걸 김원이 위원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이재관 위원** 그렇게 보면 44억을 내년도에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10개월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원래 2월까지라는 거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강승규** 그렇게 해서 62번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김원이 위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63번입니다.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로봇산업 연계형 로봇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구축사업은 국산 로봇 상용화를 위한 검증 및 마케팅 장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디자인산업진흥입니다.

먼저 내역사업 지역디자인산업진흥 중에 미래 선행상품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고도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 사용성 검증 등의 디자인 연구를 담당할 5개 권역별 디자인 리빙랩 구축 예산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역사업 중 디자인 수요기반 확충 사업은 신기술 학부 지원 신설,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 사업 등 전방위적인 해외진출 지원 확대를 위해서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내역사업 중에 디자인 제조기업 혁신은 지역산업 발전과 혁신성장 지원을 수행하는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서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내역사업 중 디자인 제조기업 혁신은 충청권에 센터가 부재하므로 충청권을 지원하는 충북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신규 구축을 위해서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도내 디자인 수요 증가와 산업 고도화에 따른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건립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전체적으로 수용합니다.

다만 3번 세부과제와 관련해서 청주지역에 디자인 제조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서 이것도 전국 단위 공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을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어디, 몇 번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3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네 번째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다음에 5번은요? 5번은 괜찮아요? 전북에 디자인진흥원 수립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5번은 괜찮습니다.

○오세희 위원 제가 좀 얘기하자면요 지금 대구, 부산, 전남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북이 없다, 그래서 지역별로 거점이 있는 상태에서 전북을 추가하자는 내용이에요.

○이종배 위원 아니, 4번은 안 되고 5번은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이게 어떤 뭘 설립하는 것은 특정 지역을 특정해서 할 수 없고 기획하는 용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여기에 설립하기 위한 용역인데 그게 그거지. 아니, 그 지역에 설립하기 위한 용역이면 그게 그 지역을 특정하는 거지, 어째 용역은 괜찮고 설립은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된 게……

○이종배 위원 아니, 제가 답변 저기한테 물어봤으니까 답변 듣고 얘기하시지요.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에서 답변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특정 지역을 짚어서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제안해 주신 사항은 그 설립 여부를 확정 짓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타당한지를 리뷰해 본다는 사전적인 절차에 해당해서 그것은 특정 지역에, 이게 반드시 전북에 설치를 한다면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건립을 위한 용역비인데 왜 특정 지역이 아니예요?

○소위원장 강승규 아니, 용역은 괜찮다는 거예요, 할지 안 할지 검토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 얘기는 그 얘기에요.

○이종배 위원 아니, 이 지역에 설립하기 위한 용역인데……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4번 항목 이것도 지금 예산이 수립이 안 돼 있지요, 충북 디자인 제조혁신센터?

○이종배 위원 안 돼 있고.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이것도 용역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특정 지역을 넣을 수 있겠네?

○이종배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용역은 괜찮고……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얘기는 그 얘기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추가 확인을 해서 아까 오전에 말씀 주신 것들과 같이 오후에 좀……

○소위원장 강승규 자, 보류.

○김교흥 위원 보류요?

○소위원장 강승규 보류. 이건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해소하자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그 부분은 해소시키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잠깐만. 차관님, 3번, 4번도 지역만 빼 버리면 똑같은 것 아니요?

○소위원장 강승규 아니예요. 정부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예요.

○김교흥 위원 디자인 제조기업 혁신하고 밑의 충청권 센터만 빼 버리면 똑같은 얘기인데.

○소위원장 강승규 타당성 용역을 할지 안 할지는 지명을 넣어도 된다는 얘기고……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소위원장 강승규 아니, 정부 기준이 그거라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게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예, 그러세요. 이것 보류.

○오세희 위원 지금 디자인산업진흥원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가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지역 디자인진흥원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어디어디예요? 대구, 부산……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부산, 경북 그다음에……

○오세희 위원 경북, 전남, 광주……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예, 광주도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대구, 경북, 부산, 광주, 전남, 다섯 군데잖아요. 그러니까 거점이 없는 데가 제주하고 전북하고 충청권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북 하시면 되지요. 거기서 제안해야지,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이종배 위원 그러면 충청권도 하나 넣어.

○오세희 위원 아니, 이제 내년에 제안하라고 해야지요. 없네, 지금. 충남 하든지.

○이재관 위원 충남을 하나 넣지요.

○이종배 위원 같이 넣으면 뭐……

○오세희 위원 그래요.

○이종배 위원 예산이……

○김교흥 위원 아니, 잠깐. 그런데 차관님, 이게 3번, 4번이 말이에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중복을 빼면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면 이것 보류해서 정리를 할 때 같이해서 증액을 시킬지 이것 명확하게 해야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여기 보면 디자인 제조혁신센터가 있고요 지역 디자인진흥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지역 디자인진흥원은 판교에 디자인진흥원이 있는데 지방마다 이렇게 다섯 군데를 정해서 그것의 지방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역 디자인 제조혁신센터는……

○김교흥 위원 둘 다 제조혁신센터 아니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아니, 그것은 전국에 7개가 있습니다, 따로. 그건 좀 다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세 번째 것은 보시면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를 증액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설명처럼 충북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신규 구축을 위한 사업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교흥 위원 새로 만드는 것?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하고는.

○소위원장 강승규 이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정말. 어디는 진흥원 지회를 두든지

안 두든지 하고, 혁신센터는 또 뭐고. 좀 정리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것? 어찌할래요? 정리해서…… 보류할 테니까요 이따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미설치 지역에 진흥원이 필요하면 충북, 전북, 충남 등 이렇게 하든지요.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정리를 해 오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65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65번, 엔지니어링산업진흥입니다.

공정한 엔지니어링 대가 지급 환경을 위한 표준품셈 제·개정 확대, 대가 산정 시스템 고도화, 발주자 교육 강화 등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66번입니다.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입니다.

해외 수요처가 확보된 첨단 나노소재 기술·제품의 성능 검증 및 제품 제작을 위해서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67번입니다.

나노인프라공정서비스역량고도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본사업 대비 55%가 삭감되어서 8개의 나노인프라 기관이 기업 지원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원활한 수행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68번 사업입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지원입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정보화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관리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69번 사업입니다.

글로벌중견기업육성인프라구축입니다.

먼저 중견기업 통계시스템의 보안체계 구축 및 일자리 박람회 확대 개최를 위해서 모두 20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중견기업의 해외 우수인재 확보 지원을 위해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두 부분 다 수용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9-1, 69-2 각각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70번입니다.

유통물류기반조성입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사업 예산에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71번입니다.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입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을 위해서 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 이것은 아니지요. 저는 이걸 아니라고 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취지가 골목상권을 지키자는 거거든요. 평일로 전환을 하는 게 골목상권하고 전통시장한테 굉장히 매출 감소가 따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2억을 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취지가, 원래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을 구하고 골목상권을 구해서 일요일 날,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휴일을 쉬어라, 그래서 가족들과 시장을 좀 봐라 한 건데 이걸 평일로 전환하면, 더군다나 예산까지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소위원장 강승규 이게 어떤 예산을 주는 거지요? 예산 2억 원을 어떤,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지자체가 지역에 있는 마트와 슈퍼 또 인근 상가들과 함께 상생 모델을 만들어서 지원을 요청하면 그중에서 몇 개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현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 축진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평일 전환 축진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 보면 이런 상생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자면 원래 법이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을 휴일에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을 다수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유통산업발전법도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로 전환하는 데 더군다나 예산까지 준다? 2억 가지고 또 무슨 예산을 줄지는 몰라도 그걸 가지고…… 일단은 지금은 법이 휴일을 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 권한이 있어서 지금 일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2억 원을 들인다는 것도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 상충되는 부분을 증액까지 해 가면서 지원한다는 건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

○**김교흥 위원** 차관님, 오세희 위원 얘기에 제가 동의하면서 만약에 평일로 전환하기 위한 기금이라면, 또 지자체와 전통시장과 상생의 기금이라고 하면 이건 명확하게 해야 돼요. 평일로 전환하지 않고 그냥 상생의 기금만 본다면 2억 원은 적은 거고, 평일로 전환하기 위한 상생기금이라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다음에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오세희 위원** 이게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그냥 여기서 2억 주고 3억 주고, 이게 돈을 떠나서……

○**김교흥 위원**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이게 서일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서일준 위원님하고 좀 상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시지요. 잠시 보류하고 이따 서일준 위원한테 상의하시지요.

○**이재관 위원**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이것 근거법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김교흥 위원** 휴일에 하게 돼 있어요.

○**이재관 위원** 순서라 하더라도 현재 그 근거 규정 먼저 선행,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고 난 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저는 하여튼 이거는 평일 전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방의 상생을 위해 가지고……

○**이재관 위원** 아니, 그런데 차관님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수용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래서 서일준 위원님하고 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취지를 좀 조정을 하든지.

○**이재관 위원** 그런데 정부의 입장이 근거 규정이 있는데 근거 규정은 놔두고 이것을 예산으로서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 규정에 대해서 뭔가 합의적으로 바뀐 상태에서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따라가는 것이 맞지, 지금 현재 의무휴업일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으로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법과 사업이 안 맞다는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걸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 예산을 받아들일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상생을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축진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서일준 위원님께서서는……

○**이재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시적으로 ‘의무휴업일의’ 그것을……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게 말씀을 서일준 위원님이 하시면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나눠 보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재관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차관님께서 수용이라고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예,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72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72번 산업정책실 기본경비입니다.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을 고려해서 실소요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23년도 결산 결과 일반수용비에서 다른 비목으로 이·전용한 기본경비 1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구요.

72번부터 그다음 장 79번까지 산자부의 부서별 기본경비에 대해서 같은 취지에서 73번의 경우 산업기반실 기본경비 1억 원 감액, 74번은 에너지정책실 기본경비 1억 2000만 원 감액, 75번은 무역위원회 기본경비 1억 원 감액.

그다음 장입니다.

자원산업정책국 기본경비는 1억 원 감액, 원전산업정책국 기본경비는 1억 3000 감액, 통상협력국 기본경비는 1억 원 감액, 통상교섭실 기본경비는 1억 7000만 원 감액, 이렇게 79번까지 세부사업에서 부서 기본경비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불수용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감액이 되면 기관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제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것도 1건이 있었는데 상세하게 보고를 들어 보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3년 결산을 할 때 산자부에서 일반수용비 15억, 나머지 여러 가지 비목에서 여비로 이·전용을 한 55억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55억 여비가 어떻게 들어간 건지 구체적인 내역을 달라라는 얘기를 결산부터 지금까지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해 왔고. 돈이 어디에 쓰인 거냐? 여비라고 하면 어디로 출장을 갔든지 뭐 이런 내역이 있을 텐데.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산자부 직원이 한 1500명 정도 되시잖아요. 55억이면 1인당 근 한 500만 원 가까이를 쓰신 건데, 그러면 출장을 한 40일 정도를 모두가 가신 건데 이 정도면 당연히 내역이 있는 거 아니겠냐, 내역이 없으면 이거 정말로 여비로 쓴 게

맞냐, 약간 이런 의문들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 했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안 오고 국가재정법상 문제가 없었다라는 답변 하나 끌랑 오니까 이거는 일반수용비가 그나마 15억 정도로 제일 많은 부분이라 저희가 일종의 결산 이후의 조치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감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55억, 여비로 이·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면 제가 그다음에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게 5억이나 6억이나 일반적으로 그 정도 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사정상 그랬을 수 있겠다 싶은 수준이라고 하면 그냥 보지 않고도 동의를 해 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50억이 넘는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만 15억이 넘는 이·전용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내역을 결산심사 과정부터 지금까지 저희한테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자료제출, 정확한 내역 제출 전까지는 저는 사실 동의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규모가 너무 크네요, 이것 다 합치니까.

○**김교홍 위원** 500억이야?

○**장철민 위원** 55억.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 여비고 해외출장 예산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해외출장 같으면 또 비용이 조금 많이 들 텐데 이게 다 국내 여비가 55억이 더 필요해 가지고 이·전용을 해서 썼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로 산자부 직원 전체가 한 달 반을, 평일 기준으로 따지면 한 두 달을 계속 출장을 가셔야 되는 예산이라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것은 내역을 봐야 내년도 예산을 동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저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황은 저번에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2023년 예산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서 출장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시기였고 그 당시에 공무원 여비 규정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22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여비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그걸 근거로 해서 23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너무 적어 가지고 직원들이 도저히 출장을 못 가서 업무가 안 돌아갈 정도라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던 상황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들을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시켰고 이제는 이런 일들이 크게 재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장철민 위원**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중기부는 그런 일이 없었더라고요. 코로나를 중기부는 아니고 산자부만 겪은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55억이면 진짜 너무 많은 날짜 수의 여비가 필요했던 거라서 이거는 그냥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넘어가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에는 저는 확실하게 좀 자료를 쫓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차관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출장 일수가 폭증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연도, 코로나 이전과도 비교해 보고 정확하게 그게 합당한지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기는 하는데. 하여튼 이걸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야 동의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제가 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엑스포 유치 활동 지원비입니까, 전용 이 부분이?

○김교흥 위원 해외는 빠졌다면?

○장철민 위원 해외는 아니래요. 해외라면 또 그럴 수 있지. 해외가 아니래요.

○소위원장 강승규 해외가 아니에요?

○장철민 위원 국내 여비래요, 국내 여비.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산업부 예산 기본경비 속에 부산엑스포 일반용역비, 수용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엑스포 관련된 그런 여비들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그때 엑스포 활동이라도 국외는 아닌 거잖아요. 국내, 저한테는 그렇게 보고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거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강승규 제가 이렇게 한번 중재해 볼게요.

장철민 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일반수용비가 50억 안팎으로 전용이 된 만큼……

○장철민 위원 일반수용비 15억, 나머지 다른 것까지 합쳐서 55억.

○소위원장 강승규 그 55억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내든 국외든 엑스포 활동 지원 때문에 어느 정도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이렇게 대략이라도 줄 수 있습니까, 회의 끝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장철민 위원한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거는 그때까지 해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80번입니다.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입니다.

25년도 신규 편성된 카드뉴스 제작 및 SNS 관리용역, 정책 홍보영상 제작 및 관련 용역사업은 디지털콘텐츠 홍보사업과 중복되며 산업부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SNS 관리 외주 운영을 지양할 필요가 있으므로 1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재관 위원 4억 2000……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불수용입니다.

카드뉴스 제작 및 SNS 관리용역은 이미 다른 예산 항목에 있던 사업을 이쪽으로 이관해 온 사업이고 금액도 금년과 동일합니다. 한편 정책 홍보영상 제작 관련 용역은 홍보 트렌드가 동영상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려는 것이고 이 금액조차도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 금액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게 1억 2000만 원인데요, 혹시 어제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4억 2000으로 표시가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고 저희가 금액을 또 조정을 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이거는 정부 측 의견대로 불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81번입니다.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입니다.

AI 관련 산학연계 시설 컴퓨팅 인프라 GPU 지원 예산에 3000억 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일부 수용입니다.

지금 김종민 위원님께서 AI와 관련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GPU를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지 데이터센터를 지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클라우드 이용하는 걸 좀 수월하게 접근성을 높여야 될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지원 대상을 어떻게 할지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과기부 차원에서는 국가 AI 컴퓨팅센터라고 해서 이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들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지금 3000억의 GPU 지원 예산을 바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기획비를 한 5억 원 정도를 반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정부 의견에 의견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일단 제가 이게 지난번 국정감사 때 한번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산업 현장의 수요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나 간담회나 이런 걸 해 보신 적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위원님, 실태조사는 저번에 상임위 이후에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산업 AX 전략이라고 해서 발표를 하면서 기업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정말 이게 GPU 하나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 또 클라우드가 해외 기업들이나 국내 데이터센터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심지어 대기업조차도 그걸 이용하는 데 부담이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인프라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하면, 개별 기업에 맡겨 놓으면 네이버도 지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OpenAI나 MS, 구글 이런 거대 빅테크들 말고는 사실은 AI에 치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연구나 또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신기술 개발, 혁신 이거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해 보면 미국하고 어깨를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것도 실기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은데 이것을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서 긴급하게 인프라 지원 차원에서, 저는 민간기업에다 GPU 나눠 주는 방식은 쉽지가 않다고 봐요. 그거는 추가 비용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이걸 컴퓨팅센터와 같은 형태로 새로 신규 구상을 해서……

이걸 왜 과기부에서 합니까? 지금 과기부는 연구자들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요. 과기부가 한다는 거 그건 연구자 대상이에요. 그런데 산업부나 중기부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 정책에 그런 점이 비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걸 어떻게

사업화시켜야 되는데……

○소위원장 강승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저도 지난번에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의미가 있어 보였고요. 지금 차관님도, 정부 측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대뜸 GPU 지원 신설 3000억이니 1000억이니 이렇게 할 때 기재부나 이런 데서 동의할 리가 없고 오히려 좀 타당성 있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산학연계 시설 컴퓨팅 인프라 GPU 지원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까지, 그러니까 타당성 및 기본계획까지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기재부나 이런 데 설득이 되고 그렇게 해서 바로 구축해서 산학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빠르게 움직이는 정도로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그게 1억 원이든 5억 원이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김종민 위원님, 그 정도로 동의……

○김종민 위원 그러면요 일단 그렇게 사업 추진을 담아 주시고 거기에 부대의견으로 꼭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증액을 일단 취소하는 대신에, 제가 중기부에도 얘기해서 중소기업·스타트업들 중에 AI 관련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12월 전에 꼭 하기로 했어요, 현장 실태조사를, 지금 용역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산업부도 현장에 있는 주요 기업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꼭 현장 간담회를 하셔서 제가 같이 참석을 할 테니까 꼭 이것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KIET에 연구용역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산자부에서 KIET 연구 수요로 집어넣어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비교를 꼭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한국과 다른 선진국들이 AI와 관련해서 기업 활용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업이 AI 활용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와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리서치를 꼭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5억이든 잡아서 결정할 때 그게 레퍼런스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KIET에다가 얘기하면, 연구용역을 하면 아마 금방 나올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기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빨리 얘기를 해 주세요.

○소위원장 강승규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82번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산단 내 중소기업에 청년근로자를 유입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2022년 일몰된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2년 예산 기준 751억 94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60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불수용입니다. 전 국민 대상 K-패스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인천을 포함해서 여러 산단에서 통근버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의 긴급성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교흥 위원 그런데 차관님, 아까 인천의 남동공단도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김교흥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청년근로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아직도 굉장히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버스도 출근 시간대에 잠깐 하고 인터벌도 좀 있고.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이 액수가 다 아니더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산단 교통비 사업을, 일몰된 사업을 바로 재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측면에서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현재는 어렵지만……

○김교흥 위원 이것도 그렇게 해 보면 되잖아요. 수요 조사를 하고 시간대별로도 보고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안을 세워 보는 게 어떻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체감경기가 좀 안 좋다고 그래서 틈날 때마다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산단을 보고 있는데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용역을 해 봐야지 그냥 면밀히 살펴본다고 이게 되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도 하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세워야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강승규 그런데 청년교통비 지원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청년교통비만 딱 특정해서 하기는 그렇고요.

○김교흥 위원 아니, 그것만 특정하지 말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김교흥 위원 그리고 청년들이라고 해서, 이게 연령대별 범위가 넓어요.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서른아홉까지는 청년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지금 저희가 문화산단 이런 것 해 가지고 사실 종국적인 목표가 청년들이 산단에서 편하게 취업을 하고 거기에 정주를 하고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 같은 것을 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용역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산에 안 담고 할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저희 정책용역 예산을, 국회에서 늘 해마다 그 항목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것은 큰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용역하는 것만 확실하게 확인하면 예산은 안 넣어도 돼요.

○김교흥 위원 그렇지요. 용역만 해 준다면 돼요, 원래 정책개발비가 있으니까.

○권향엽 위원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지요.

○김교흥 위원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지요, 용역을 한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김종민 위원 이것은 신규라서 부대의견으로 달 수가 없잖아요?

○박형수 위원 신규라서 안 돼요.

○**김교흥 위원** 예산 증액이 안 되니까 부대의견도 못 다네. 그러니까 차관님이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용역한다는 얘기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산단의 청년들이 산단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달 수는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달 수 있어요?

○**김종민 위원** 예, 달 수 있대요.

○**장철민 위원** 달 수 있지요. 그냥 용역하는 것은 할 수 있지요.

○**김교흥 위원** 그러면 용역만 달아 주세요.

○**김종민 위원** 용역하는 것으로 일단, 어떤 규모로 할지는 알아서 산자부에서 판단하고.

○**오세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청년들만 골라 가지고 지원하기보다는 출퇴근 전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청년만 골라 가지고 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러니까 산단 환경 개선, 정주 여건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시지요.

○**김종민 위원** 그런데 이것은요 지금 오 위원님도, 청년하고 다른 세대하고의 구별도 있는데 지금 문제가 특히 지역 산단이 문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김종민 위원** 지역 산단에서 100만 원 더 받는 것보다 홍대에서 스타벅스 알바하는 것을 더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유동성이 훨씬 심해요.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꼭 교통비 문제만이 아니라 임금 문제, 정주 여건 문제, 문화인프라 문제, 기타 종합적으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가능한 것을 산단 중심으로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냐, 안정되고 있는 거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보셔야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 좀 해 주세요, 부대의견을 달아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강승규** 82번 항목은 청년근로자를 위한 교통 여건 등 정책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불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83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83번, 바이오산업·자동차부품산업의 AI·로봇 자율제조 플랫폼 조성입니다.

AI 로봇 기반 바이오·자동차 부품산업 대량제조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4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첨단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테스트베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첨단반도체 후공정 기술 개발·검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중소·중견기업 R&D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고급인력 양성 등을 위한 5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같은 취지에서 산학연 공동개발이 가능하도록 첨단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1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두 가지 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4-1, 84-2,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85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85번입니다.

자율주행차실차 잔향실 검증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국제적으로 잔향실 활용 강제화 추세에 따라서 국내도 자율주행차량·부품 인증 시 잔향실 시험을 법제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자파 간섭 및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잔향실 검증센터 구축에 4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86번입니다.

수소 연소 엔진 탑재 특장차 및 AI융합 지능형 성능 최적화 플랫폼개발입니다.

수소 연소 엔진 탑재 특장차 실증과 지능형 운행 모니터링 및 성능 최적화 기술개발을 위해서 4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의견 없으시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87번입니다.

입자빔 기반 기업지원 실증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입자빔 활용 첨단산업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 실증 기반 구축을 위해서 3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불수용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과기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산업부에서는 전혀 여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입자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지 않고 당초에도 과기부 사업으로 검토를 하다가 이게 아직 사업화가 못 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불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88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88번입니다.

차량용 AI 반도체 설계·검증·패키징 기초 인프라 구축입니다.

AI 반도체 설계·검증·패키징 평가 기반 구축을 통해 국내 중소 팹리스 기업의 차량용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3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89번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공정장비용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반도체 장비용 소재·부품에 대한 국산화 및 내재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29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90번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입니다.

첨단 R&D 육성을 위한 신약개발 필수장비로서의 초저온 전자현미경 및 초저온 집속 이온빔장치 구축 사업비 28억 8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바이오의약품 원부 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24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두 사안 모두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0-1, 90-2,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91번입니다.

백신·바이오의약품제조혁신공정플랫폼구축입니다.

디지털 기반 백신·바이오의약품 제조 혁신 공정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26억 45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92번입니다.

첨단수요산업시장선점형핵심소재응용기술개발입니다.

차세대 첨단소재인 그래핀의 초물성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응용기술 개발에 25억 56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93번입니다.

DX 기반 자동차부품 품질검사 혁신 지원사업입니다.

DX 기반 자동차부품 품질검사 혁신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94번입니다.

수요·공급기업 협력형 AI 솔루션 실증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수요·공급기업 간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발적인 산업 AI 솔루션 시장을 형성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내 기업의 AI 솔루션 수요·공급 역량 강화 및 자생적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24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95번입니다.

미래자동차 인지부품의 표준기반 신뢰성 인증센터 기반구축입니다.

자율차 인지센서의 국제인증표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설계비 24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장철민 위원님 제안대로 96번부터 121번까지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먼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도 이에 대해서 수용·불수용을 간략히 얘기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96번부터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일괄해 가지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6번, 친환경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생산·제조 기반구축입니다.

극저온 단열시스템의 핵심 기자재 파일럿 생산설비 구축 및 소재·부품 공급업체 양성을 위해서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다음 97번,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에는 설계·검증 단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최적화된 시험평가 기반 구축을 위해 21억 원 반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98번 사업은 앞에 13쪽에서 했던 26번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9번입니다.

이차전지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는 특화단지 산업 육성 및 이차전지 혁신 거점 공간 구축에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0번입니다.

복합환경 배터리팩 안정성 실증평가센터 구축입니다.

복합환경 배터리팩 안전성 실증평가센터 구축 사업비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입니다. 101번입니다.

해양환경 대응형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는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해양환경 국제협약 대응 등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2번입니다.

전력구동차 고전압부품 신뢰성 검증 및 제품화지원입니다.

미래차 신전원체계 대응 고전압부품 시험평가 장비 구축 등에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3번, 수출형 K-모빌리티 통합 운영 플랫폼 개발 및 해외실증 사업입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수출형 K-모빌리티 통합 운영 플랫폼 개발 등에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104번입니다.

양자컴퓨팅 기반 산업지원센터구축입니다.

이는 차세대 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 17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5번입니다.

미래차 사용자중심 편의안전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입니다.

미래차 산업 활성화와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을 위해서 1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6번, 미래상용차 자율주행 운송 전주기 검증을 위한 실환경 모사 기반 구축입니다.

이는 새만금 일원에 기구축된 자율주행 인프라 등과 연계해서 실환경 모사 기반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1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7번, 산업 인공지능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입니다.

이는 산업 AI 전환 수요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1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08번입니다.

중대형 전기상용차용 대용량 에너지저장시스템 및 초급속충전 평가기반 구축입니다.

중대형 전기상용차로의 전환 가속화, 대용량 에너지저장시스템 및 초급속충전 기술 확산 등에 따라서 이를 위한 센터 설계 및 장비구입비 1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9번입니다.

바이오백신 소부장 실증테스트 지원입니다.

백신·의약품 분야 핵심 소재에 대해 실증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14억 7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0번, 지능형 센서 소재·부품·구성품의 spin-on을 위한 군 적합성 검증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지능형 센서의 신뢰성 검증 및 민수기술의 방산전환 지원 등을 위해서 14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1번, 해외전문기술인력활용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산업현장의 전문기술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서 25년 상공회의소 해외 전문기술인력 활용 지원사업의 시범운영을 위한 13억 7000만 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2번, CRC 국가디자인 및 미래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의정부 캠프레드클라우드 부지를 활용해서 경기 북부와 대한민국의 디자인 및 미래에너지 선도지역 클러스터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비 1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3번, 첨단 공정기술혁신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엔지니어링 설계, 로봇 용접, 금형제작 장비 및 기술지원 등을 수행할 첨단공정기술혁신센터 구축에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4번입니다.

창원 AI 자율제조 전담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미래선도형 첨단 AI 자율제조 R&D 기술개발을 통해서 창원 AI 자율제조 전담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5번,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입니다.

평가 인프라 구축 및 전주기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6번, 고전계강도 전자기파 신뢰성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전계강도 전자기파 신뢰성 시험 성능평가 장비 구축, 기업 지원에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7번, 저궤도 위성 기반 자율주행차 부품 지원 기반 조성입니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 구현에 필요한 저궤도 위성 관련 핵심부품 및 센서부품 연계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8번, AI 자율제조 지역 거점기업 지원입니다.

기계·항공·방산·드론 등 제조업 전 분야에 걸쳐 AI를 접목한 지역 거점기업의 육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9번,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체계 구축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및 부품 생산 감소에 대비해서 중고차 부품 수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사업 설계비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20번, 친환경자동차 부품 탄소저감 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위해서 장비구입비 등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21번, 글로벌 항염증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항염증 분야 창업 거점화 구축 사업을 위해서 3억 200만 원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각 항목별로 수용, 불수용을 짧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96번, 친환경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은 수용입니다.

97번,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도 수용입니다.

98번, 에너지저장형 친환경 고에너지밀도 양극재 제조공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수용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전에 26번 안전에서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수용으로 하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어느 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오전에 회의 심의한 것하고 같은 사업인데 사업명이 조금 다르게 들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오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99번, 이차전지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조성 사업은 일부 수용입니다.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다만 기존에 유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없게 잘 기획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일부 수용이면 얼마……

금액 지금 20억인데, 10억?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금액은 동일하고요.

○김교흥 위원 금액이 동일한데 일부 수용이야?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죄송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99번 사업에 대해서는 불수용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 사업은 지금 포함하고 경주……

○김교흥 위원 아니, 98번은? 없어지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98번은 오전에 같은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불수용이
고요.

99번도 불수용인데 이것은 유사·중복 사업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불수용하겠습니다.

100번, 복합환경 배터리팩 안정성 실증평가센터 구축은 수용입니다.

101번, 해양환경 대응형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은 수용입니다만 부대의견으로, 이게 해수부에 국내용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출용으로 특화를 해서 중복이 없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게 서천으로 특정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제안해 주셨는데, 아까 다른 사업들처럼 전국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102번, 전력구동차 고전압부품 신뢰성 검증 사업은 수용입니다.

103번, K-모빌리티 통합 운영 플랫폼 개발 사업은 불수용입니다. 이 사업은 K-모빌리티를 해외, 특히 동남아로 수출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ODA 사업으로 인니에 이 모빌리티센터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유사 사업들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104번, 양자컴퓨팅 기반 산업지원센터구축은 수용입니다.

105번, 미래차 사용자중심 편의안전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도 수용입니다.

106번, 미래상용차 자율주행 운송 전주기 검증을 위한 실환경 모사 기반 구축은 수용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부대의견을 좀 달고 싶습니다. 지금 해당 새만금지역에서 실도로 주행시험장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먼저 추진되는 게 맞고, 그러고 나서 지금 제안된 과제들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들 간에 서로 속도 조절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07번, 산업 인공지능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 사업은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108번 중대형 전기상용차용 대용량 에너지저장시스템 사업, 109번 바이오백신 소부장 실증테스트 사업, 110번 지능형 센서 소재·부품 적합성 검증 지원 사업, 111번 해외전문기술인력활용지원사업은 수용입니다.

112번, CRC 국가디자인 및 미래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불수용입니다. 이유는 이 해당 부지에 지금 디자인센터를 구축하는 사업 제안인데요. 지금 해당 구역이 미군이 이전하고 난 공여지입니다. 이 공여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공여지개발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떻게 이 공여지를 개발할지 그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물류센터를 구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부터 바뀌어야 여기에 예산 사업을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113번 첨단 공정기술혁신센터 구축사업, 114번 창원 AI 자율제조 전담지원센터 구축사업, 115번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사업, 116번 고전계장도 전자기와 신뢰성 기반 구축 사업은 수용입니다.

117번, 저궤도 위성 기반 자율주행차 부품 기술지원 기반 조성 사업은 불수용입니다. 이유는 지금 과기부에서 저궤도 위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제 예타가 통과되어서 2027년까지 저궤도 위성 2대를 쏘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나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관련 부품이나 표준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조금 속도가 빠르다는 판단입니다.

118번 AI 자율제조 거점 지원 사업, 119번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체계 구축 사업, 120번 친환경자동차 부품 기반구축 사업, 121번 글로벌 항염증 사업화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지금 정부 측에서 96번부터 정리를 했는데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96번 수용. 97번 수용. 98번 불수용. 99번 불수용. 100번 수용. 101번 수용, 대신 ‘공모 사업으로 한다. 수출용 특화에 집중한다’로 부대의견 다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102번 수용. 103번 불수용. 104번 수용. 105번 수용.

106번이 뭐라 그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인데 부대의견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속도 조절 의견?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강승규 속도 조절로 부대의견 달고요.

107번 수용. 108번 수용. 109 수용. 110 수용. 111 수용. 112 불수용.

○장철민 위원 112 잠깐 좀 여쭙볼게요.

불수용한다고 하셨으니깐, 또 박지혜 위원님도 산자위원이신데.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물류센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물류센터 수도권이든 전국적으로 거의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자체나 다른 부처에서 다른 종류의 계획들이 뭔가 제안이 돼야 행안부도 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든 말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사업 자체는 불수용이거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산자부 차원에서 그런 일종의 사업계획을 행안부에 대해서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가능한 상황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행안부가 공여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할 때 관계 부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데 아마 이미 그런 걸 반영해서 만들어졌지 싶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박지혜 위원님의 제안이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예, 그러면 112번은 일단 불수용으로 하고 박지혜 위원님한테 이 부지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추가로 산업부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번 수용. 114번 수용. 115 수용. 116 수용. 117번 불수용, 이거는 과기부 자체로 한다고 그랬고요. 118번 수용. 119 수용. 120 수용. 121 수용.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음.

○이종배 위원 121번에 ‘(홍천)’ 이렇게 들어가는 건 괜찮은 거예요? 이것도 괄호 지우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121번 수용입니다.

○이종배 위원 홍천 이렇게 특정 지역이 들어가는 건 괜찮은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그거 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차관 소관 계속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료 53쪽입니다.

먼저 세출 첫 번째입니다.

구역청투자유치지원입니다.

현재 예산은 홍보 지원 위주이므로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지원방안을 다각화하고 경제자유구역 간 외국인 투자유치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3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두 번째입니다.

주요기반시설지원입니다.

여수 정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사업에 26년 여수섬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추어 개통될 수 있도록 4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도로 건설 사업에 관계 기관 협의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니까 2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는 수용이고 여수 정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은 불수용입니다. 불수용 사유는 지금 관련 공사를 진행하던 업체가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2023년도에 편성된 예산하고 24년도에 편성된 예산들도 대부분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법정관리하고 나머지 같이하는 사업자들은 정리가 돼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기존에 미집행 예산들이 재이월되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증액까지는 안 돼도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면 2-1번 불수용, 2-2번 수용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3번입니다.

산업단지환경조성 관련해서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좀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역사업 중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확대를 위한 증액과 부대의견이 3-1부터 4까지 4건이 있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중에 돌봄중점형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1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청년유입 및 문화요소 조기 확충을 위해 2025년 문화선도산단 세 곳 모두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 정책의 조기 정

착 및 확산을 위하여 랜드마크를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해서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또 다른 부대의견으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청산에 따라 회수 가능한 금액 규모를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매각 및 수납관리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쪽에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스마트그린산단촉진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9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혁신시물레이션센터를 추가 구축하고 지역특성화제조기반구축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자 210억 3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으로 청주 내 BBC 스케일업 사업 다각화 및 제조현장적용 가상화를 지원하도록 6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성화제조기반구축사업으로 인천지역 DX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보급을 위해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구미 공정혁신시물레이션센터 내에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업 지원을 위해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스마트그린산단 입주 기업의 사업 다각화 지원에 3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지역특성화제조기반구축사업으로 노후 산단 내 지진재해에 따른 플랜트 및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통합지원을 위한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화된 창원 국가산단에 제조특화 산업용 무선통신 하이웨이를 구축하기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인천지역 공정혁신 시물레이션센터를 구축하는 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저탄소 철강 설비부품사업 개발, 실증인프라 구축 등 포항철강산단 소부장 제조혁신 기반 구축에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유무인 해양 모빌리티 제조혁신센터의 기반 조성 및 장비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전체 다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니까 3번 산업단지환경조성 관련해 전체 수용 입장이고.

○이종배 위원 또 한번 얘기하는데 특정 지역이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전체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 있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이건 기존의 스마트그린산단으로 한 2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 기반시설들을 추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번, 산업단지환경조성은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4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번입니다.

제조산업특화초거대제조AI서비스개발및실증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초 계획 및 협약 대비 미반영된 14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번도 증액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번,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입니다.

먼저 24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25년 예산이 편성되면서 23년 신규 과제 선정 시 계획한 지원금보다 적게 편성되었으므로 507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울산지역 부품기업의 전기차 전환 지연 및 지역경제 악화 방지를 위해 24억 9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강원 주력산업인 디지털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34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세 가지 사업 모두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내가 또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역 나오는 거 어떤 거는 빼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웃음소리)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소위원장님, 지금 3개로 설명을 드렸는데 맨 위에 507억 500만 원이 그 밑의 2개 사업을 모두 포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위엣것 하나만 반영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첫 번째만 수용,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불수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강승규 다음, 6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러면 6번에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제주)하고 7번에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세종)이 있는데 5번에서 507억 반영해 주신 거에 이 사업들도 다 포함될 수 있다 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6번, 7번도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소위원장 강승규 그럼 6번, 7번 다 불수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렇게 하면 507억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하고 7번은 각각 보시면 되는데요. 6번 같은 경우에 42억 6600만 원 안에 바로 밑에 있는 26억 8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소위원장 강승규 오케이. 6-1은 수용, 6-2 불수용. 그렇게 하면 되지요? 정리되는 거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소위원장 강승규 7번은?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수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8번입니다.

지역균형발전지원입니다.

먼저 지방시대위원회 및 지원단의 실질적인 업무 지원, 전문성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110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정책과제도출 및 추진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활성화지원 사업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혁신생태계 청사진 수립에 지역혁신체계지원 사업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

○이종배 위원 지방시대위원회에 주는 것을 우리 산자부 예산에다 담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강승규 원래 행안부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이 지특회계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아니고요, 전문기관들의 지역 혁신 역량을 높여 주기 위한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런데 지금 이종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것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개 행안부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 산자위에서도 같이, 아까 이재관 위원님 말대로 공통으로 발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게…… 저도 여기 위원이기도 합니다만.

○이종배 위원 이 예산은 지방시대위원회 거예요, 아니면 산업부 거예요? 산업부 것 아니야?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이 예산은 산업부 거고요. 옛날에 자치분권위원회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2개를 합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되었는데 전체 예산은 이 지특회계 산업부 예산에 담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8번은 다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9번입니다.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 사업에 지역전략 품목들이 신속하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5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 사업에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교히 하고 재원의 이원화로 인해 집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1번 증액하고 부대의견 채택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0번입니다.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호남권 의료헬스케어뷰티 관련 기업 제품의 전주기 신속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서 초광역클러스터 조성비 33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일부 수용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기존에 정부가 편성해 놓은, 요청드리고 있는 예산은 R&D 사업이고 지금 여기서 의료헬스케어뷰티 관련해서 제안해 주신 사업은 기반 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R&D 사업에 기반 예산 사업을 담을 수가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제안을 제가 드리면 이런 취지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메가시티 의료헬스케어뷰티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별도로 사업을 만들어서 신규 사업으로 제안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종배 위원 이런 의료헬스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호남권만 따로 하고 그러면 각 권역별로 따로 예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호남권만 공모가 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이거는 그냥 호남권이라고 일단 사업에는 특정하지 말고 메가시티……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런 걸 답변할 때, 정부 의견 넣을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아까 청주권 빼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래서 메가시티 의료헬스케어뷰티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정부 의견과 위원님 의견대로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조정을 하고 메가시티 의료헬스케어뷰티 관련 활용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조성비 용역 이렇게 해

서 신규 사업으로 넣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R&D가 아니고 구축사업비.

○소위원장 강승규 R&D가 아닙니다, 구축사업비.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1번입니다.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이차전지 핵심소재·부품 검증 플랫폼 구축 사업의 3차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12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탄소저감을 위한 반도체융합부품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장비구축비 10억 6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배터리 성능 평가와 기술 지원 등에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스파 연계 재활헬스케어 제품 안전 및 고도화 사업의 연구장비 구축 등으로 6억 4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코스메슈티컬 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에 5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미래차 전동화부품 설계·검증 지원 기반구축 사업 등을 위해 5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전기차 각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실증화 센터 구축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4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6개 세부사업 모두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 2번하고 4번이 유사해서 그것을 묶어 가지고 육성이든 기반 구축을 거기다가 넣어야 되는데 지금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데요? 안정산업 그다음에 이것도 안정테 제조……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9쪽입니다.

○오세희 위원 60쪽 나갔네, 내가. 죄송해요.

○박상웅 위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지금.

○오세희 위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소위원장 강승규 11번 항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2번입니다.

생활산업경쟁력강화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 사업에 헬스·뷰티 분야 스마트기술 및 디자인 산업 융합을 통한 혁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서 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내역사업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 사업에 브랜드 육성, 디자인 역량 강화, 첨단산업 융복합화 등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내역사업 K-아이웨어 메타버스 플랫폼구축 사업에는 기구축된 플랫폼의 정상 추진 및 활성화 등을 위해서 8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내역사업 3D융합 안경테제조 기반구축 사업은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기업 수 확대를 위해서 3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네 가지 세부 내역사업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 2번하고 4번은 안경에 관한 테 제조하고 고도화인데 이것을 따로따로 보다는 육성하고 디자인 역량 이런 거랑 좀 같이 묶어 가지고, 안경산업이 업종 지원인데 이것이 너무 따로따로 있어 가지고, 아까 내가 안경산업 말하다 보니까…… 이 산업을 좀 어떻게, 묶어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지금 현재 내역사업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사업들을 지금 증액하는 의견이라서…… 나름대로는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는 안경산업 전반에 안경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네 번째 사업은 디지털 이런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소재를 혁신하는, 신소재 안경테를 개발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현재 지금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저희가 증액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오세희 위원 제 의견은 이것을 묶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그 산업에 대한 집중 이런 것, 1 스텝, 2 스텝 이런 식으로 쪽 가서 그래야지 여기에 따로따로 할 필요가, 거기다 묶어 가지고 기반 구축도 하고 브랜드 육성도 하고 이렇게 묶어서 효율성 있게 하면 어떨까, 업종이 똑같은 업종인데.

○이종배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내역사업이 달라 가지고 기왕에 예산이 서 있고 이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묶기는 뭣하지요.

○소위원장 강승규 오세희 위원님은 앞으로 사업을 좀 통합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여기는 이미 내역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에 대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13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3번,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유치지원입니다.

한국스탠퍼드센터 지원 연장을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14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4번, 지능형 펌프전 제품 실증 및 실용화기반 구축입니다.

펌프전 제품의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펌프전 시장 규모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펌프전 실증, 시험, 인증, 실용화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기존 가전제품의 펌프전용 가전제품의 고도화, 다각화를 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증액 및 부대의견 채택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5번입니다.

지역첨단전략산업기반구축사업입니다.

지역 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개발지원 장비 구축비 등에 6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62쪽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입니다.

세출입니다.

세부사업은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입니다.

산학 특성화 장비, SW 활용 교육 도입을 통한 첨단·지역주력산업 인재 양성에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1차관님 것 일단 끝나셨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승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에너지및자원산업특별회계 1번 항목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42쪽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 1번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에너지국제협력입니다.

먼저 내역사업 기후·에너지 국제협력기반구축은 국제회의 참석 및 주요국과의 협력위원회 개최 등을 위해서 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내역사업 자발적기여금은 주요 다자회의체 내 기후·에너지 관련 논의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3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두 의견 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번,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두 번째, 미래 지역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모델 발굴 및 특화지역 지원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58억 6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4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두 의견 다 사실 정확한 예산 내역이 없어서요, 저희가 24년의 경우에는 11건 지원을 했고요 내년의 경우에는 6건 또는 8건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액해 주시면, 이게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액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얼마지요, 그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러니까 11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11억 동의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억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번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입니다.

먼저 열 재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냉난방비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미활용열 활용촉진 기반구축사업에 4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현행과 같이 해외자원개발특별용자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용자취급수수료를 수취하여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계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수행을 위한 직접비를 산출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45억 원 증액 의견은 수용을 하고요.

부대의견은 사실은 이게 한국에너지공단이 수지차 보전기관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입을 다 계상을 하고 쓸 거를 다 한 다음에 남은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수료 받는, 용자취급수수료는 사실은 에너지공단뿐만 아니라 모든 용자 취급을 하는 데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일부 수용은 하겠습니다만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별도 사업으로 계상하더라도 오히려 정부 재정 부담만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차원에서 그냥 저희가 김원이 위원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 45억 증액을 하고요, 부대의견은 산업부에서 김원이 위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나중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저기하고 일단 이거는 불수용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네 번째,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입니다.

LPG 벌크로리에 대한 순회 안전점검 및 운전자 교육을 위해서 2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결산잉여금을 차년도와 차차년도 자체수입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벌크로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2.2억 원 신규 예산 자체는 LPG판매협회중앙회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잉여금 문제는 사실은 예산편성 시점하고 결산 시점하고 좀 불일치하기 때문에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걸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개 다 채택하는 것으로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다섯 번째,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삭감된 예산액 복원을 위해 1842억 4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원 대상 연령 확대 등을 위해 73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삭감된 1842억 원은 대상이나 지원금액 때문에 삭감된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22년에 규정 없이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22년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 21년도의 12.7만 원 단가를 34.4만 원으로 올리면서 그해에는 저희가 예비비로 활용을 했고요, 23년도에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라 23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24년에 반영을 한 게 184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깎인 게 아니고요, 저희가 25년안에는 36.7만 원을 계상해서 했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이유 없이 증액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원 대상 연령 확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노령자를 저희는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60세 이상을 노령자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 요청을 지금 수용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이미 지원 대상도 넓혔고 지원 단가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저희한테 운영을 맡겨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수용해서 이것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6번,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입니다.

CCUS 국산화 기술개발을 위해서 경남 CCUS 설비 및 기자재 시험·인증·실증센터 구축 사업에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7번,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입니다.

내역사업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지원 기반구축은 당초 계획대로 설비 및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9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내역사업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공동개최는 2025년에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91억 부분은 사실 연차별 26년까지 끝나는 사업인데요, 이게 91억 원이 반영이 되어야 26년에 무리 없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1억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다만 제주도 포럼의 경우에는 매해 2억 50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내역 없이 5억 원, 이게 원칙이 국비가 2억 5000에 도비가 2억 5000씩 지원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

유 없이 갑자기 5억 원으로 올리는 것은 좀 부담이 되니까요 2억 5000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1은 91억 증액으로 하고요, 7-2는 2억 5000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2년, 23년·24년 다 2억 5000만 원……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반영이 안 돼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억 5000씩 계속 반영이 됐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재정 당국과 계속 지원을 해 왔고 또 제주도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은 했습니다만 행사 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재정 당국에서 논의하다 보니까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성이 2억 5000만 원씩 지원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예.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8번입니다. 수소유통기반구축입니다.

내역사업 수소 수급 안정화 지원은 수송용 수소 비상공급 지원 및 수급 대응체계 운영 등을 위해 4억 6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9번입니다. 액화수소신뢰성평가센터구축입니다.

액화수소 기자재 수명측정 시스템 등 3차년도 장비 11종 구축에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0번입니다. 수소저장·운송클러스터구축사업입니다.

수소저장용기 비용 일부와 물가상승 반영 등을 위해 예비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7억 7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1번,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입니다.

적기에 센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13종의 대형 장비 발주를 위해 5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얼마를 반영하느냐는 이게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장비별로 개별적으로 가능성을 봤고요. 사실은 한 30억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추가 장비를 도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9억 원 중에서 30억 원 정도를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억 원 증액으로 조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2번,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 구축입니다.

이미 CCU 관련 기진행된 실증센터 구축 사업이 다수 존재하므로 기존 인프라 활용 우선을 위해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향후 CCUS 산업을 총괄·육성하는 국가진흥센터 설립을 위해서 일정 요건의 시설 및 장비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장비 구축비 1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것도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CCU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실증센터 3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월과 단양, 여수, 서산에 각각 CCU 실증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CCUS는 CCU보다는 CCS에 저희가 중점을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3억 원이 반영됐고요. 물론 장소는 저희가 공모로 하겠습니다만 초년도 또 CCS 자체 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17억 원 증액을 저희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3억 원 감액 부분은요? 불수용? 3억 원은 불수용이라고 그랬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감액보다는 저희는 증액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 이게 지금 전국에 영월하고 단양, 여수, 서산에 존재하는데 지금에 있는 탄소 포집·활용과 탄소 포집·저장인데 그게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또 하나를 해서 돈을 들이고 하는 게 효과가 있나. CCU 플러스 CCS인데 그것을 그냥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단양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시멘트에 융합해서 놓는 그 기술을 지금 실증을 하고 있고요. 영월 같은 경우에는 융복합으로 해서 하는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여수·서산은 이런 활용된 CCU로 융합된 부분에 대한 실증센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CCUS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데 지금 초점을 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포집해서 수송해서 지하 또는

해저에 박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실증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실증센터에 하려고 하면 내역에 플러스해야 되는데 목적이 다르니까 저희는 그것보다는 별도로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야겠다는 취지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3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세희 위원 장소가 지금 영월하고 단양하고 여수하고 서산인데 공모를 할 거라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정해지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현재 CCS 저장에 서해, 남해 또는 동해의 해변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실증센터는 아마 바닷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 필요성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지역에, 바닷가라도 지역에 끌고루 갈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12번, 12-1은 불수용하고 12-2는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3번, 석유유통구조개선입니다.

내역사업인 석유유통정보고도화는 노후한 시스템 개선 및 모바일 시스템 도입을 위해 1억 6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오피넷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석유유통협회에서 쓰던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폐기되어서 벌어진 문제인데요. 현재는 매달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4번, 친환경석유대체연료보급기반구축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석유대체연료 검증시설 구축은 석유대체연료 검증시설의 조속한 건축을 위해서 17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5번, 석탄비축자산관리비입니다.

내역사업 인천비축탄 방출비는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지역 슬럼화를 야기한 인천

정부비축장의 비축탄 조기 방출 및 조기 폐쇄를 위해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인천 비축장에 저희가 지금 6만 6000t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2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방진망이라든지 살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추가로 투입해서요, 또 인천시하고도 사실은 이 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시다만 더 적극 협조해서 조기에라도 최대한 방출을 빨리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차관님, 이게 지금 10년 넘게 비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알고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래서 불소 문제라든지 토양오염 문제가 심각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올해 안까지 3만 t 정도를 방출하고 내년도에 방출하는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억이 내년도 방출하는 예산으로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이것은 저희가 인천시하고 적극 협조해서요, 지금 또 강원도 비축탄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교체를 해 가지고 다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 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15번, 2억 원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6번, 폐광대책비입니다.

먼저 조기 폐광 지역의 경제진흥사업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토지보상비 2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의 조기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비 10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서 태백 드롭타워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조기 폐광 지역 경제진흥사업은 태백, 삼척, 화순 폐광을 하면서 관련해서 저희가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예타가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라서요.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두 번째 것은 예타 통과를, 금년에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만 예타 통과를 전제로 하나 조건을 달아 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교흥 위원 예타 통과도 안 됐는데 뭘 예산을 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반영한다고 해도 이것 분명히 예결위에서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지역이 워낙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화순도 마찬가지고 태백도 그렇고 삼척도 그렇고 좀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사이에라도, 저희가 12월 이전까지는 끊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예결위 올라가기 전까지라도 이게 예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예결위 소위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서 통과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롭타위는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16-1과 16-2는 정부에서는 예타 통과를 전제 조건으로 예산 증액을 동의하겠다, 조건부 동의.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소위원장 강승규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6-1, 16-2는 예타 통과를 전제 조건으로 증액에 동의하고 16-3은 통과, 증액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잠깐만요, 이것 관련된 것은 아닌데 폐광대책비 쪽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석탄공사 관련되어 가지고 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느 기관에 합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맞습니다.

○장철민 위원 사실은 석탄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어떤 식으로 재정적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한 상황이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금년 중반서부터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은 연구용역도 내부적으로 보냈고요 내부적으로는 복안도 쒀습니다만 그게 정부안이 확정 안 됐고 부처 간에 협제도 필요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도 있지만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하여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사실 석탄공사가 기존에 수십 년간 쌓아 온 이 부채와 손실이 사실 경영을 잘못하거나 누가 방만하게 해서 한 게 아니고 국가가 사실은 정책적으로 만든 부분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사실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답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고해 주실 때 그 내용들을 조금 감안해서, 일단 그게 해결이 돼야 그 이후에 기관을 어떻게 할지 논의가 가능해질 테니까 그것 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위원님들 다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연착륙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대외에 공개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쨌든 수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어떻게 연착륙을 시키냐에 대한 내부적인 방안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분명히 재정 당국 포함하여 여러 부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장철민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근거를 남기고자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 기재부하고 그 부채 이슈를 정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희 산자위에서는 어쨌든 기재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중앙정부가 역할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근거를 남기고 싶어 가지고 얘기를 꺼낸 거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17번 보고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7번, 탄가안정대책보조입니다.

먼저 동 사업은 석탄의 수급 안정 및 연탄의 저렴한 공급을 위해서 석탄광업자, 연탄공장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대표적인 화석연료 지원금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고 24년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32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내역사업 석탄가격안정지원은 예산 부족으로 발생한 산재보험료 미지급금의 정산 등을 위해서 280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것도 저희가 설명을 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4년도 사업비가 68%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은 이게 겨울에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1월서부터 겨울에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가서 또 11월서부터 집행이 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68%, 나머지 뒤에 12% 하면 항상 100% 지원이 되는 거고 이게 연탄비 보조거든요. 그래서 연탄 쓰시는 가정에 대한 보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시는 것은 조금,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 저희는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280억 정도 증액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게 지원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산재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산재보험료 지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23년하고 24년도에 산재 당하신 분들의 산재보험료 지급을 못 해서, 그 부분과 탄가안정대책비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해서 증액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1번 예산 감액은 정부의 보충 설명이 있었으므로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17-2번은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8번,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입니다.

내역사업인 전용 비축기지 구축은 정부의 핵심 광물 비축확대정책 및 조달청 희소금속 이관에 따라서 국가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결과 총사업비가 감소했고 사업일정 지연 등이 예상되므로 249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 부분 타당성 재검토 과정에서 한 6개월이 지연됐고요 또 재검토 과정에서 부지 가격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4억 7900만 원이 부지 매입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까만 사업일정 지연 부분은, 저희가 조달청의 군산 비축장을 임대해서 쓰는데 그 비축장 자체가 지금 94.5%로 포화가 돼서 일정 지연은 하게 되면 비축을 못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248억 원 중에 124억 7900만 원만 감액에 동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대로 249억 중에서 124억 감액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9번, 유전개발사업출자입니다.

동 사업은 우리나라의 석유 자원안보 강화와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서일준 위원 위원장님, 이것 좀 이따가 합시다. 유전개발사업은 다른 문제 하고, 19번은 다른 것 먼저 하고 합시다.

○소위원장 강승규 하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보류해 놓으면 됩니다. 하시지요.

○서일준 위원 그것 안 맞을 게 뻔한데.

○소위원장 강승규 그래도 얘기는 해 봐야지.

○박상웅 위원 오늘 분위기로는 잘될 것 같은데.

(웃음소리)

○김교홍 위원 위원장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소위원장 강승규 일단 보고해 보세요. 김교홍 위원께서 어떻게 나오시나 좀 보고.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동 사업은 우리나라의 석유 자원안보 강화와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가스전 탐사 개발 및 생산광구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평가가 부재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예산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8·6-1 북부 광구 예산 497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석유공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출자비율 20% 상향 조정을 위한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대의견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1차 탐사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을 경우 시추 예정인 4공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저희가 시추하려는 것은 탐사 시추가 되겠습니다. 탐사 시추는 기본적으로 탐사 단계에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전체 탐사 비용 505억 5700만 원이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왕고래에 대한 시추 비용은 497억 2000만 원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서·남해 일원에 있는 나머지 광구에 대한 탐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탐사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2021년도 방어 시추 때도 탐사 비용으로 해서 똑같은 출자 예산이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보통 탐사 비용 같은 경우는 50% 또 그다음에 기타 개발에는 20%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물론 논의를 해 주시겠지만 여태까지 저희 부에서 했던 원칙은 탐사 부분에 있어서 50% 출자 지원해 주는 부분 또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20%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대왕고래 탐사 시추 부분은 현재 조광계약상 남아 있는 마지막 의무 시추가 되겠고요 나머지 추가 시추를 어떻게 할 건지는 이 대왕고래 시추 결과를 놓고 추후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징후가 있다면 저희 방향은 추가 평가 시추 쪽으로 갈 거고요 드라이(dry)가 나게 되면 나머지 공에

대한 시추로 가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1차 시추와는 별개의 사업이 될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타 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계약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탐사 시추, 과거의 관례를 비추어 볼 때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송재봉 위원 아니, 이걸 애초부터 처음에 분명히 5공을 한꺼번에 해서 5000억이라고 발표를 해 놓고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의무 시추니 뭐니 하면서 분리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분리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국감 할 때 계속 지적한 것처럼 이후의 5공 시추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경제성평가를 하고 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걸 무리하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국민적 동의도 없고. 이것 여론조사 해 보세요. 국민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잖아요.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에다 대고 예산을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것도 저희가 설명이 좀 미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재봉 위원 아니, 설명 충분히 하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기본적인 E&P 사업에 있어서는요 기본적으로 먼저 평가 시추 후에 전략을 정하게 돼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맞고요. 저희가 5공 시추를 말씀드린 것은 잠재 유망 구조가 7개가 발견돼 있고 또 성공률이 20% 정도 되기 때문에 5공 시추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방식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현재 조광계약상은 하나에 대한 의무 시추 남은 것도 맞고요. 또 필요하면 해외 투자 유치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5공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짤 때는 분명히 이것은 1공 시추 후의 결과를 놓고 봐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과거 방어 시추할 때도 똑같은 논리로 예산을 요청했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별도 것도 아니고요 방어 시추 때보다도 오히려 더 유망 구조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왜 안 해 주시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방어 시추하고 다른 문제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방어 시추보다도 더 유망 구조를 발견한 거고요.

○송재봉 위원 유망 구조라고 하는 믿을 만한 자료도 없고 신뢰성도 없으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자료를 저희가 열람시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차관님! 지금 차관 자세가 영 아니야, 내가 보기에. 위원님들의 태도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둥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허성무 위원 이해를 못 시킨 차관이 문제지……

○김교흥 위원 그리고 국정감사……

○허성무 위원 왜 위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김교흥 위원 잠깐만, 내 얘기 들어 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죄송합니다.

○김교흥 위원 국정감사를 하면서 또 우리가 전체회의 상임위 하면서도 수없이 얘기를 했고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도 다 블랭크 띄워서 오고 거의 자료를 안 줘서 우리가

하다못해 이 덧칠한 것을, 기술을 발휘해서 덧칠도 벗겨 내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나한테 자료 온 것도 우리 보좌관이 사진 찍어서 파악하고 여러 가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박형수 위원 그래, 저……

○김교흥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내 발언 시간이니까.

차관이 그것 참……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표현이 과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위원장 강승규 차관께서 사과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표현이 과했던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허성무 위원 내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구조 시추할 때 대통령이 발표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른 구조 할 때는 다 이렇게 지출 승인해 줬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예산을?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통령이 왜 한 번도 발표 안 했어요, 매번 발표하시지. 지금 차관님이 그런 식으로 위원들을 모욕하면 안 돼요.

○소위원장 강승규 말씀하시지요.

○이종배 위원 차관이 업무에 대한 열정이 지나쳐 가지고 좀 발언이 지나친 점이 있고 또 차관이 사과를 했으니깐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심해 가스전에서 20% 정도 성공 확률이 있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우리가 동해 가스전, 동해 유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나온 전례도 있고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유망한 구조들이 발견됐고 그렇게 평가가 됐으니깐 이것은 누가 뭐래도 꼭 시추를 해야지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시고요.

1차로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는 할지 안 할지 또 어디에 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몇 회 정도 할지 그것은 그때 모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예타를 해야지 된다 그러면 예타를 꼭 해야 될 거고. 우선 이번은 여러 가지로 계속사업인 점 또 2000억 이하인 점 이런 점 고려해서 기재부에서도 예타를 안 해도 된다고 기재부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시니까 이번에 이 예산은 위원님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산유국이라는 소리 한번 들어 볼 수 있기를 다들 희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주시면 2차부터는 그쪽 유공에서도 많이 들어 보신 바와 같이 정부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505억은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예타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정부 측의 입장은 충분히 들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기본적으로 지금 하는 500억짜리 이 부분은 계약의 주체가, 시추의 주체가 석유공사가 되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석유공사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시추하고 난 이후에 조광권 부분에 대해서 이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할지, 다른 해외 메이저사와 같이 할지 지금 아직 안 정해진 상태입니다. 만약에 개정된 후에 하게 되면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타 대상 자체가 이번에는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예산을 내년에 당장 시추해야 되고 또 시추선인가가 어디 지금 오고 있다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출발했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런 상황에서 예산 통과 안 시킨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걸 통과시키되 부대의견으로 2차 이후에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조광권계약이, 조광권 문제가 법령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단일한 주체가 10년 동안 보통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연속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보여요.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그런 부분을 달고 이 예산은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야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교흥 위원 잠깐만, 내가 아까는 그 사안에 차관 태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것 좀 보세요. 이 대왕고래 유전에 지금 국민들이나 야당 위원들은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20%가 나올지, 50%가 나올지 그건 추후의 문제고. 그것을 정부 측에서 간과를 했어요. 우리 위원들, 최소한 산자위원들한테만이라도 설명도 하고 자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좀 설득적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대왕고래 유전을 발표하면서 가스공사 주식만 많이 팔렸어, 높은 가격에. 6만 얼마까지 갔잖아요. 이런 형태를 정부 측에서 만들어 낸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용역을 하는 회사도 사실 불신이 있다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와서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앞으로 나머지 공구도 마찬가지로예요. 국회와 정부가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무조건 이걸 해 줘야 됩니다. 답답합니다, 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정부가 오만불손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에 유전 나온다고 하는데 반대할 위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정쟁화시키고 정치화해 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랬으면 정부 측이라도 좀 더 위원들을 찾아다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또 국감 때 우리가 예산 안 주면 석유공사가 석유공사 예산으로 다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예산 달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어느 야당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홍보와 설득의 논리를 만들어서 위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해야지…… 아니, 지난번에 이철규 위원장도 찾아다니면서 좀 설득을 하라는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오셨습니까,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죄송합니다.

○송재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액트지오의……

○소위원장 강승규 권향엽 위원님 먼저……

○송재봉 위원 먼저 하시지요.

○권향엽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위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계획이 언제 수립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몇 차례 질문도 했었고 그럴 때마다 또 산자부에서는 반박을 해서 거기에 대해 재반박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월 달에 1차공 시추를 하기 위해서 산자부장관께서 이번 주에 그 세부 계획에 대해서 승인하실 거지요? 승인하신다고 그랬어요, 예결위에서 제가 질문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 부분은 저희가 해외투자개발전략회의가 있고요, 또 저희가 해저광물자원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 줄 계획입니다.

○권향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자부장관께서 승인하면 12월 달에 시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권향엽 위원 지금 현재 이것 시추를 하기 위해서 노르웨이 시드릴사 배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리고 저희가 삭감 의견을 냈던 내년도 예산안 497억 그 예산이 올 1차 시공을 하는 예산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통상적인 예산집행으로 보면 가장 확률이 높은,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 석유공사 1월 26일 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명태가 24%, 대왕고래가 18%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권향엽 위원 그러면 확률이 더 높은 명태에다 시추를 하지 않고 왜 대왕고래로 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해 달라, 하겠다, 문제없다라고만 이야기해 갖고는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약 주체인 석유공사가 5년째 자본잠식 중이고 연간 이자비용만 해도 5000억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권향엽 위원 주작·홍계·방어 시추계획 실패해서 한 1840억 원 이상 날렸고 그랬는데 유독 대왕고래 프로젝트만은 다시 재추진 의사를, 대통령이 이미 발표를 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모든 상황들이 끼워 맞춰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저희들한테 이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시추 위치를 잡는 것은 제가 듣기에, 이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4%냐 21%냐 그것보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시추 위치는 동일 구조 내에서도 어느 지역이 가장 좋겠냐, 또 천연가스가 가지고 있는 물성이라든가 전반적인 지질구조를 보면서 시추 위치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추 위치를 정할 때는 위치를 통해서 탄성과 특성을 어느 정도 광범위한 지역에 할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전문가들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순히 어떤 구조가 더 확률이 높고 매장량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러면요 통상적으로 올 12월 달에 시추 승인을 하고 시추를 할 것 같으면 내년도 2025년에 시추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추를 왜 12월 달에 서둘러서 해야 하고 그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오고,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사용한다고 하고…… 이게 무언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저희는 충분히 검증을 거쳐서 자료에 대해서 유망 구조라고 확신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납기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것이고요. 다만 또 전반적인 조광계약이라든지 봤을 때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추가 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유증을 정확히 발견을 하게 되면 저희의 개발 방향은 추가적인 평가 시추를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이제 갈 거고요. 다만 매장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쪽에 시추가 필요하게 되면 그건 또 해외투자 유치를 통해서 방향을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1차 시추를 빨리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어찌 됐든 전반적인 천연가스 가격의 미래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봤을 때는 최대한 조속한 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생산도 최대한 당겨서 하는 것이 국익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향엽 위원 생산이 된다고 할 때는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과정에 있어서 산업자원부가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상당히 왜곡해서 계속 대응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시인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석유공사에서 3월에 세부 시추계획을 세웠던 것을 보면 시추 위치 그리고 소요 비용이 정확하게 달러로 해 가지고 다 추산이 되었고 사실 그것을 산자부는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계획 수립 중이다’, 6월 3일 날 발표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계획 수립 중이다’, 이미 그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석유공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에, 최근에 비용이 달러로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니까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미 진행이 되어 왔었던 것을 산업자원부장관님은 계속해서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었던 것도 문제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8-1뿐만이 아니라 4·5 광구라든가 1·2·3 광구라든가 지금 현재 내년도 유전개발 사업 총출자 사업 예산을 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다 다 몰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올 스톱시키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요, 저희가……

○권향엽 위원 그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요, 예산편성한 그 내용들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물리탐사로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일단은 유망 구조를 노력을 해서……

○권향엽 위원 예산이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물뽕이라기보다는 평가 시추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탐사는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내 유전 개발이고 이 부분은 당연히 석유공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사회라든지 이미 사전에 많이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설명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산업부장관이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으로서 확정이 되는 것은 산업부장관이 승인하는 시점에서 확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 말씀대로라면요 산업부장관이 승인하고 나서 예산심의 다시 하십니까. 그렇게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장철민 위원 궁금한 것은 좀 여쭙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서요.

저희가 내년도 505억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대왕고래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맞는 얘기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닙니다. 497억이 시추에 들어가는 거고요.

○장철민 위원 나머지는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4광구, 5광구 부분의 탐사하고요 1·2·3 광구 탐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해하고 남해안 부분의 유망성 평가와 관련된 탐사를 또 할 겁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합쳐서 한 8억 정도를 쓰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면 시드릴이랑 계약한 금액이 얼마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시드릴은 한 60억 정도 됩니다, 시드릴 자체는.

○장철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거의 한 100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러니까 시추 용선……

○장철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편성이 어떤 식의 설계와 디자인이 돼 있는지 이해를 못 하고 그냥 돈만, 액수만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저희가 내역을 제출했었는데요, 시추선 용선비가 한 590억 정도 되고요. 또 보급선 용선비가 한 85억 원 정도 되고요.

○장철민 위원 시추선 용선비가 시드릴하고 계약하신 게 아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맞습니다. 그게 590억입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했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면 아까 60억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59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철민 위원 590억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장철민 위원 혹시 그 계약서 같은 것은 열람을 시켜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왜냐하면 방금 시드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시제도 같은 것을 좀 봤더니 3200만 불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게 그것이라고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건 아마 내역을 확인해 봐야 될 건데, 그건 저희가 열람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시드릴 자기네들이 올려 놓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새로운 드릴십인 웨스트 카펠라(West Capella)……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맞습니다, 웨스트 카펠라.

○장철민 위원 뭔가를 투입하기로 했고 그게 3200만 불이라고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어나운스먼트(announcement)를 해 놔어요, 자기네들이 이런 종류의 커미트먼트(commitment)를 코리아랑 했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게 갑자기 또 590억이면, 이게 3200만 불이 590억이 되려면 환율이 2배 가까이 뛰어야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닙니다. 용선비에 어떤 부분이 불냐에 따라서 그게 시드릴사로 다 가는지, 그 추가적인 내역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열람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약간 묻지 마 예산처럼 돼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죄송합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이런 종류의 투명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었던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부가 어떤 종류의 정보도 투명하게 보고하거나 얘기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1000억이든 5000억이든 그냥 묻지 마로 얘기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투자비 세부 내역은 저희가 다 열람시켜 드리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예, 한번 확인해서 일단 그런 것들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일단 1차 의견들을 주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하고 다른 진행 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20번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0번입니다.

일반광업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광량확보는 태백 면산층 타이타늄의 탐광 시추를 위해 3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역사업 광업선진화는 디지털마이닝 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의 광업 분야 특화훈련을 위해서 30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내역사업 광산안전시설은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해임 업무 위탁사업을 위해서 5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광업육성지원은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1번, 해외자원개발 특별용자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특별용자 사업의 단계별 용자 실적을 고려해서 탐사단계와 개발·생산단계별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최근 2년에 사실은 일반용자가 한 30% 내외였었고 특별용자가 70% 내외였었는데요, 예산 협의 과정에서 너무 또 특별용자 중심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조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의견 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2번,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입니다.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36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63억 9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수용이 곤란한 게요 수소환원제철 공정 같은 경우는 24년이 마지막 해가 돼 가지고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세부내역사업 중에 RE100 전 주기 공정이라든지 넷제로 수요관리도 25년, 26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신규 과제가 추가 발굴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에너지효율 혁신기술개발하고 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 두 내역사업만 계속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불수용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3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3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타이타늄 최적화 기술개발입니다.

고효율 타이타늄 광석 공정 및 부산물 활용 기술개발을 위해서 10억 8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4번, 에너지국제공동연구입니다.

먼저 추진이 지연된 10건의 과제에 대해서 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2개월분 과제비 전액인 186억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공동연구 사업 진행 성과 확인 후에 예산 확대가 필요하므로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반액 삭감을 위해 123억 4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관련 선진기술 확보를 위해 선진국 및 개도국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기존 내역사업과 차별성이 없으므로 국제공동연구센터 37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면에 수소, 에너지 저장, 무탄소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 협력연구를 위해 3개 이상의 국제공동연구센터 선정이 필요하나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위해 18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앞의 두 의견은 에너지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과제 협약 체결이 좀 늦어지면서 나오는 문제가 되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일치 사업의 예외는 인정을 해 줍니다. 아무래도 국제기관 간 협의 과정에서 좀 지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10개 과제 중에 8개 과제는 11월 중에 체결을 할 계획이고요 2개 과제는 12월 중에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제공동연구센터 37억 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미국하고 독일하고 국제공동연구센터를 개설할 계획이고, 두 국가 다 각각 별도의 의미에서 에너지 부분에 저희보다 많이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센터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 저장, 무탄소 발전과 관련된 증액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니까 정부 측은 증액만요?

○김교홍 위원 얘기해도 돼요?

○소위원장 강승규 예, 말씀하십시오.

○김교홍 위원 차관님, 지금 보니까 국제공동연구센터 37억이 돼 있는데 기존의 내역사업에도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가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내역사업에도 글로벌 기술 협력 플랫폼을 통해서 국제기구·주요국과 협력 추진 과제가 들어가 있고 또 다른 거에도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러니까 기존에는 주로 단일 과제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센터를 구축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같이해 보자라는 차원이고요.

○김교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기존의 그것들은 단일 과제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주로 단일 과제여서 단기간에 이제……

○김교흥 위원 그리고 이 센터는 별도의 센터를 건립해서 미국하고 독일하고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과제에 대한 선정권도 거기에 주고 그다음에 한 5년 이상 기간 동안 센터에서 별도로 한 5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라라는 취지입니다.

○김교흥 위원 그런데 센터를 별도로 만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공동으로 하지요. 별도로 구축을 합니다. 독일하고 하나 미국하고 하나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독일·미국 현지에서 하나씩 만든다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김교흥 위원 그러면 이게 37억 갖고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러니까 단년도 예산이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계속사업으로 더 추가적인 지원은 들어갑니다.

○김교흥 위원 아, 그래서 5개년 동안 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재봉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국제공동연구가 에너지 분야든 필요한 것일 수는 있는데 연구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국제공동연구가 사실 쉽지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맞습니다.

○송재봉 위원 여간해서 성과도 잘 안 난다. 그런데 이상하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제공동연구가 과기부 쪽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산자부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 성과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저도 절반 정도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에너지 쪽은 다른 첨단산업보다는 저희가 외국에 배워야 될 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부문별로 저희가 에너지 쪽은 앞서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송재봉 위원 그러니까 당위적인 얘기는 이해를 하겠는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다만 제가 앞부분에 말씀은 못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선택을 해 주실 문제라고 보입시다만 이것을 꼭 연도를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저희가 실제 타이트하게 연도를 맞추면 어느 정도 감액이 필요하냐도 물어봤습니다. 10개 과제에 대해서 다 물어봤고요. 25년도 연도에 완전히 일치를 시키려면 물리적으로는 25억 4170만 원 정도의 감액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논의 과정에서 연도를 맞추라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그거에 맞는 감액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25억 4170만 원 정도 감액은 가능하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원활한, 조금 여유를 주려면 연도를 맞추기보다는 유연성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래도 회계연도 일치의 기준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맞추는 게 재정 운용에 중요하다고 판단이 드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25억 4170만 원 정도 감액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제 의견은 연도를 타이트하게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실제 이 공동연구가 성과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 결과치를, 이게 정말 제가 볼 때 걱정이 돼서 그래요. 돈만 쓰고 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허성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차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허성무 위원** 그러면 23년도, 올해 24년도 성과를 설명할 만한, 손에 잡히는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송재봉 위원** 이게 연구단 구성하는 것도 잘 안 됐을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화 매출이 21년도에 36.9억 원, 22년도에 49.9억 원 그다음 23년도에 104.2억 원 이렇게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것보다 이 국제공동은 저희가 주로 선진국들하고 하거든요. 결국은 유럽 국가 아니면 미주 쪽이랑 주로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1차관실의 여러 산업 부문을 거쳤었는데 에너지 쪽은 기술개발보다는 주로 기술 도입을 통해서 항상 해결을 해 왔던 분야가 맞거든요. 그래서 가스 터빈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성무 위원** 차관님, 가스 터빈, 발전의 천연가스 터빈 이야기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허성무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정부가 지원하고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국내에서 다 개발했잖아요, 해외 공동연구 한 거도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 시작서부터 제가 담당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허성무 위원** 제가 잘 알지요, 마지막 단계 개발은 제가 다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해 본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제공동연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어느 기관의 어느 연구원들이 독일이나 미국이나 해외 다른 어느 기관의 어떤 연구원들하고 어떻게 결합돼서 어떤 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연구의 진척도는 얼마고 이런 상세한 내역들을 우리한테 제출해 줘야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

○**허성무 위원** 이거야말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증액해 주고 이렇게 가는 거 이상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혼소발전 같은 경우는 지금 독일이 제일 앞서가고 있고요. 제 기억에는 상업 운전을 최근……

○허성무 위원 수소발전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지금 수소전소발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프라운호퍼라든지 그런 기관과 연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계통망과 관련해서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 애플이라는 기관이 있고 그런 기관과 한전하고 연계해서 또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연료전지 같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될 것 같고요. 텀셀 같은 태양전지 같은 부분은 우리보다 독일이나 미국이 조금 더 앞서 있지만 저희도 또 계속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같이 연구하면서 시장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산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김교흥 위원 차관님, 지금 여기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너무 장황하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이 국제공동연구나 센터가 별로 가시화되는 게 없다. 그리고 특히나 센터 건립도 있지만 내년도에 신규 과제로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에도 180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군데 있다고. 그런데 또 센터를 구축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로 체계화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저도 질문이 좀 있어 가지고요. 약간 오해들이 있는, 이해가 정확하게 안 돼서요. 37억 센터 부분 있잖아요. 이게 센터를 세우고 운영하는 그 37억이에요, 아니면 센터가 뭔가 과제를 몇 가지 수행하는 그 예산인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후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센터를 지정을 할 거예요. 새로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과거에도……

○장철민 위원 그 센터의 예산, 그러니까 과제 8개 말으면 8개 관련된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설립하는 예산이 아니고 그 센터가 지정돼서 수행하는 과제의 예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맞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조지아텍하고도 공동센터 만들었듯이……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랑 독일 어디에 설치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예산이 아니고……

○김교흥 위원 아니, 미국 하나 독일 하나 이렇게 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현재로서 계획은,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장철민 위원 얘기하신 내용이 달라요.

○김교흥 위원 달라.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닙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건립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지정을 합니다. 그거를 별도로……

○김교흥 위원 그러면 국제공동연구하고 뭘 차이가 있냐고. 참, 답답하네.

○**장철민 위원** 그래서 제 궁금증은 그거예요. 이게 센터, 그러니까 오해가 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센터 건립 예산이 아니라 그 센터가 수행하는 8개 과제에 대한 예산인데 그러면 이 8개 과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알아서 정해서 알아서 쓰신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러니까 국제공동연구는 과제가 정해져 있고요.

○**장철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제공동연구에 원래 내역사업들 3개 있었던 것은 알고요. 그러면 이 센터가 8개의 신규 과제를 지정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요, 센터는 5개 세부 과제 수행……

○**장철민 위원** 5개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5개입니다.

○**장철민 위원** 예정처는 8개라고 돼 있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5개 세부 과제 할 계획이고요.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그 세부 과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특정 연구, 그러니까 내셔널랩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내 출연연하고 내셔널랩하고, 그 내셔널랩에 별도로 연구센터가 지정이 되면 거기서 5개 과제를 자기들이 각자……

○**장철민 위원** 그러면 사실 아직까지 센터 지정도 안 돼 있고 거기서 협의가 안 돼 있어서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시킬지에 대한 대충의 드래프트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내년엔 신규로 저희가 지정하려는 계획이고요, 37억 원은.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요 신규로 지정하고 신규로 과제를 하면 지금은 그러면 저희 국회에서는 돈만 주는 거지, 제목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만 편성하는 거잖아요. 형식논리적으로는 완전 진짜 묻지 마 예산편성이 되는 건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닙니다.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해야 돼서 저희도…… 물론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모하기 전에는 지역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저희가 외국의 기술 수준이라든가 내셔널랩의 그런 것을 봤을 때 독일 하나, 미국 하나 정도면 우리나라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구체적인 기관이나 지역은 공모를 통해서 정해질 계획입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독일이랑 미국에 센터를 지정하는 거고 그것은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아닌 거고 어쨌든 미국하고 독일이 5개 신규로 하면 3개·2개든 하여튼 나눠 가지고 과제를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운영비 일부 들어가고요, 센터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운영을 하려면 국내에서도 과제 관리라든지 같이 연구하는 해당 국내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파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장철민 위원** 그러면 그거는 국제공동연구 R&D라고 사실 너무 많은 자율성을 주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국내에서 R&D 할 때는 사실 대충 어떤 분야에 어떤 구체적인 R&D 목표로 할지를 다 심의하고 하는데 국제공동연구에, 특히나 이 센터에서 하는 사업

이라고 사실은 그냥 예산 액수만 있고 이후의 어떤 절차 추진 방식만 있고 이렇게 병병한 상황에서 굳이 예산 달라는 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저희가 자료를 드릴 건데, 설명만 간단히 드리는데 세부 과제는 저희가 안 정한 게 국제공동연구센터의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부 과제는 안 정했고요. 다만 네 가지 방향은 정해 뒀습니다. 저희가 좀 약한 부분이 수소 또 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무탄소 발전 이 네 가지 기본 방향은 정해 뒀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서. 다만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 과제는 국제공동연구센터로 지정된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이 합의해서 정하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차관님, 한 가지만…… 바로 앞 22번 보면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앞부분에서 논의했었는데 그것은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에너지수요관리기반기술 개발이요?

○이재관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것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수요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율 향상 그다음에 수요 관리 계층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관 위원 예상은 되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서의 과제와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서의 어떤 과제가 같이 갈 수도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개발은 줄이고 국제공동 개발은 늘리는 어떤 형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 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은 내역사업에서 일몰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벌어졌는데요……

○이재관 위원 그래도 일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또 일몰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래서 에너지효율혁신기술 개발하고 수요관리기반기술을 저희가 20년에 추가로 2개를 넣고 그 2개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재관 위원 그런데 아까 거기에서 했을 때는 문제의식을 못 느꼈었는데 여기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사실 구체적으로 그런 추진체계를 만들고 과제를 선정하는 시간들이 앞으로 많이 소요가 될 텐데, 그렇지만 국내에서 에너지수요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을 하는 것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 또 국내의 학계 전문가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내 수요를 오히려 더 늘리고, 물론 국제공동연구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내부는 줄이고 공동연구는 확장하는 그런 것은 조금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 이 부분도 최소한 현재의 수준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수요관리기반기술하고 에너지효율혁신기술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신규 과제를 조금 늘리는 형태로 저희가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늘리는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수요관리기반기술하고 에너지효율혁신기술 개발에 현재 신규 과제가 6개·5개로 돼 있는데요 이것을 10개 수준으로 다 맞춰서 예산을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2번, 조금 전에 심사하신 사업 불수용하는 것에서 10개 사업을

신규로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설명을 드리고 금액을 증액하겠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금액을 10개 수준에 맞춰서……

○허성무 위원 현행 6개 하고 있는데 4개를 추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렇습니다. 4개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수요관리 기반기술도 신규 과제 5개 예상했지만 그것을 5개 더 추가해서 10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22번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22번입니다.

○송재봉 위원 어쨌든 국제공조연구는 결국은 이게 내년도 국감쯤에 가면 결과치를 가지고 판단을, 평가를 받아야 될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에서 22번과 24번을 어떤 조건으로 수용 또는 불수용하는지를 다시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보류해 놓고 조금 이따가, 22번·24번 보류하고 나중에 추가 논의해 주세요.

25번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5번 사항입니다.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기반구축입니다.

충남 도내 LNG 인수기지에서 발생하는 냉열에너지를 냉매물류단지에 공급하는 기반 구축 사업에 50억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 부분 사업 자체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여태까지 항상 사업자들이 투자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평택에 있는 한국초저온 경우도 사업자와 한국가스공사가 일부 투자를 했고요, 인천시나 콜드체인도 물론 지분 가지고 논란은 있습니다만 사업자들이 투자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투자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비가 투입되는 게 논리에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는 불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재관 위원 이게 공모 선정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마무리하고 앞으로 신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러니까 이게 냉매물류단지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재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연구를 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중단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투자하려면 공익성이 입증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물류단지에 공공 목적으로 쓰겠다라는 것은……

○이재관 위원 아니, 좋습니다. 공익성이 없으면 처음부터 공모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그러면 순수하게 어떤 정부 예산이 투자가 안 된 부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공모해서 저희가 2억은 갓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다고……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기존에 2개가 가고 있는데 그것은 가스공사가 일부 투자하고 그다음에 해당 해외 기업 또는 국내 기업이 투자해서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요하면 가스공사에서 투자하면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국비에서 투자하는 것은 앞에 있는 두 사업하고도 형평성이 안 맞아요. 필요하시면 제가, 이 부분에 현재 나온 기획 연구한 결과는 공공성이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을 조금 더 다시 하라고 제가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가려면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업 모델과 너무나 흡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국비가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관 위원** 우선 내가 거기까지 깊이는 모르지만 경험상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잘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5번은 불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6번입니다.

대규모 CO₂ 저장소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1억 t급 대규모 국내 CCS 저장소 확보를 위해 한반도 인접 해역 종합탐사 수행을 지속하기 위한 40억 5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7번, 수출특화형 복합에너지 미래팜 MG 플랫폼 구축입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기술 기반 미래팜 MG 플랫폼 수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사업비 3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8번입니다.

부울경 시·도민 체감형 건물 에너지 진단·시설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노후 아파트 및 민간 건축물 에너지시설 개선을 위해 1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저희가 그린홈 패키지 사업이라고 그래서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부울경으로 찍어 주시면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부울경은 좀 더 노력해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기존에 있던 그린홈 패키지의 노후 변압기 교체 사업에 통합해서 저희가 증액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배 위원 그렇다고 부울경만 더 신경 쓰면……

○김교흥 위원 ‘부울경’은 빼도 되잖아요.

○소위원장 강승규 체감형 건물 에너지, 증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충주도 좀 신경 써 주세요, 충주.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부울경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노후된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조금 많이 봐 달라는 취지로……

○오세희 위원 아이고, 뭘 소리를…… 다 똑같지.

○장철민 위원 충주가 더 많아요. 대구가 더 많아, 부울정보다.

(웃음소리)

○박상웅 위원 충주를 포함해서.

○서일준 위원 허성무 위원은 이럴 때 안 계시네.

○김종민 위원 바깥시다, 부울경 말고 충청권.

○소위원장 강승규 아까 충북을 태클 건 게 문제였습니다.

○송재봉 위원 부울경, 충청 이렇게 표결로……

○김종민 위원 표결로 합시다, 그냥. 지역은 표결로 결정을 하자고.

○소위원장 강승규 오늘 충청도가 다수네.

○장철민 위원 충주로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강승규 이재관 위원까지 몇 명이야, 지금?

○김교흥 위원 충청도가 많다. 세종시도 충청도에 들어가잖아.

○소위원장 강승규 다섯이야, 다섯. 최대 계파야.

○김종민 위원 다 충청도야, 여기.

○이재관 위원 충남 것 하나 얘기했는데 반영 안 해 주시더라고.

○소위원장 강승규 자, 29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9번, 도심형 저소음 소형 수소 충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입니다.

소형 수소모빌리티 보급 확산을 위한 도심형 저소음 소형 수소 충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설계비 및 연구개발비에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전기화학식 수소압축기를 개발하겠다는 사업이고요. 사실은 기존에 수소충전소에서의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전기화학식 수소압축기가 분리막을 통해서 압축시켜서 하는 방식인데 굉장히 기술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행 연구기획비로 한 2억 정도만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하세요, 2억.

○송재봉 위원 너무 쉽게 양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종배 위원 안 하고 싶은데 저거 그냥 억지로 해 주는 거야.

(웃음소리)

○김교흥 위원 충북을 빼 가지고 배려 차원에서 2억을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종배 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소형 드론이라든지 또는 이륜차, 카트 이런 것을 도심에서 해야 되는데 도심은 시끄럽고, 시끄러워서 안 돼 가지고 저소음으로 바꾸는 것을 연구를 하겠다 이런 것인데 우선 선행 사업비로 2억 받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번은 2억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0번입니다.

냉열발전을 활용한 에너지자립형 액화수소충전소 개발 및 실증입니다.

액화수소의 잉여 냉열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액화수소충전소 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설계비, 연구개발비 등에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냉열발전 시스템의 경제성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에서 논란이 좀 있지만 이게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냉열발전소 모델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것도 좀 너무 앞서 나간 수준이라서요 앞엿것과 마찬가지로 균형을 맞춰서 2억 원 선행 연구비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행 연구비 2억 원으로 조정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1번, 무탄소 에너지 실증연구단지 구축입니다.

탄소 감축 관련 실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 부분은 기존에 여러 가지 마이크로 그리드 관련된 사업도 많이 있어서 조금…… 이게 아마 영광 쪽에 풍력이 많이 들어가서 실증연구단지와 관련된 구축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세부내역, 연구하겠다는 내역이 너무 없어서 이것도 그냥 2억 정도 선행 연구비만 반영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2억 조정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 신규 반영이군요. 2억 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력산업기반기금 63쪽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노후공동주택세대별점검입니다.

점검대상 및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서 재난안전 관리 강화에 필요한 지원 확대를 위한 4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번입니다.

전기설비안전점검입니다.

먼저 내역사업 사용전점검은 법정 의무점검 물량 요청분 2만 6000호 미반영분 추가 및 수행기관 일원화에 따른 공사 점검단가 반영을 위해 69억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내역사업 정기점검은 점검대상 및 항목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지원 확대를 위한 47억 4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조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번, 전력효율향상입니다.

사업의 수혜 대상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복원하고 수요가 높은 소상공인 히트펌프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한데 59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52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저희가 수요를 감안했을 때 590억이나 550억은 감당이 안 되는 숫자고요. 저희가 세부 내역사업 중에 냉장고문달기라든지 일반 소상공인 1등급 전자제품 교체해 주는 것은 잘 안 나가서…… 다만 저희가 목욕업이라든지 이런 히트펌프 설치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히트펌프 설치 지원되는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에 100억 정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무리 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니까 3-2에 100억 지원하고 윗부분 3-1은 불수용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아니,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소위원장 강승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3-1이 100억이고요.

○소위원장 강승규 3-2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2는 가정용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 지원 사업인데 196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가정용 히트펌프는 국내가 온돌난방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이 낮다 보니까 가정용 히트펌프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게 되면 국내 개발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오케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 100억 증액으로 조정하고요 3-2 불수용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번, 전기화재대응소방활동 지원입니다.

전기화재 예방·대응에 필요한 배터리·전기화재 정밀 감정장비 도입을 위해서 3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 부분은 저희도 재정 당국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정 당국에서는 이것은 소방청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뺐는데요. 사실은 논리는 그게 맞는데, 다만 소방청에서 시급하다는 협의 요청을 저희 산업부에 계속해 왔고…… 다만 이온분석기하고 원소분석장비, 대형 3D형상측정기인데 이 중에서 전기하고 밀접한 것은 이온분석기가 되겠습니다. 이온분석기가 배터리 셀에서 나오는 화재에 대한 감식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 하나 받는 걸로 해서 20억 증액을 수용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강승규 그렇게 20억 증액으로 조정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번, 전선로 지중화 지원입니다.

먼저 인천 서구 등 5개 원도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지원에 20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대불산단 주거단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에 10억 원, 그다음에 하동군 진교면 학교 통학로 주변 전선로 지중화에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게 앞의 부울경하고 같은 건데요. 저희가 지중화 지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열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노후 산단이라든지 통학로 주변에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역을 짚어 주시면 저희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소위원장 강승규 지금 지중화 사업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지금 230억 배정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230억?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부족한 지역을 더 살펴보는 걸로 해서 한 50억 정도……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니까 지역 이것 3개 다 뭉뚱그려서 지중화 사업에 50억 증액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장철민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계속하잖아요. 수십 년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사실 앞으로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한 계획이 다 잡혔는데 20년 걸려요.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그런데 대전은…… 장철민 위원님, 너무 죄송한데요, 옆에 김교홍 위원님한테는 너무 죄송한데 대전이 2등이고요 인천이 3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전은 다른……

○장철민 위원 아니, 대전이 2등인 이유가 신도시가 많아서 그래요, 서구·유성구에.

그런데 여하간 이 계획은 아무리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도 20년 계획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20년 계획 세우면 사실 이 건 거의 30년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정 단축을 위한 어떤 방법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런데 다만 지중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망과 관련된 사업이고요, 우리나라 망 사업자는 한전 하나기 때문에 이 건 수혜자,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기본적으로 한전과 지자체 비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는 요금에 반영하는 게 맞는데 다만 정부는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통학로라든지 전통시장이나 필요한 부분에만 저희가 지중화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사실은 재정 당국에서 계속 이것 망 사업자의 기본 임무를 왜 자꾸 정부가 지원하냐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할 하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차관님이 한전 관리 감독도 하시니까 한전에게 전체적인 일정을 단축시키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잠깐, 저도 의견을 좀 드릴게요.

지금 장철민 위원 얘기하고 약간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개별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지금 산자부에서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지중화 사업의 R&D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 지중화 사업을 어떻게 돌파를 해 나갔는지, 예를 들면 철도나 도로, 인근 라인을 따라서 한다든가 또는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갈등 해소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50억을 담더라도 개별 사업도 필요하지만, 그건 알아서 하시고, 반드시 이 50억 내에 지중화 사업의 R&D를 위해서, R&D를 위한 예산으로, 그 50억 내에서 R&D를 추진하는 예산 항목을 꼭 담아 달라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전선로 지중화에는 R&D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다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 전력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제가 꼭 금년도에 수요조사할 때 지중화에 대한 기술개발 항목도 하나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이것 가지고 현장이나 전문가들 얘기해 보면 하여간 선진국 사례들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산자부에서도 알아서 다 조사는 하셨겠지만 R&D 접근을 한번 해 보는 게 좋다 이런 의견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깜빡했는데 5-2의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사실은 송전선로 지중화는 이미 폐지를 해서 배전선로만 저희가 지중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전선로가 일반 국민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배전선로만 지중화를 합니다. 그래서 송전선로 사업은 항목 자체가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0억은 저희가 다 배전선로 지중화하는 데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5-2는 안 된다고, 고압송전선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소위원장 강승규** 정리합니다.

5번의 5-1과 5-3을 종합해서 전선로 지중화 지원 사업에 50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5-2는 불수용으로 합니다.

○**김종민 위원** 50억이면 훨씬 늘었네, 예산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수요가 항상 많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6번,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의 보조금·직접융자 등 예산사업은 줄이고 민간과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781억 86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육성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해서 22년 예산 수준으로 1650억 6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전년 대비 삭감액 130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111억 1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영월 관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 지원사업 계획 기간 내 완공을 위한 공사비 7억 9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잠시, 밑의 산업단지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37억 72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6-2번 산업단지 공장 부분은 필요성이 있고 또 앞으로 계통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산업단지 쪽이 상대적으로 계통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고요.

그 앞의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전반적으로 증감액 의견이 섞여 있습니다만 저희가 과거에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의무 지출이 있었던 부분이 400억 정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어든 부분은 한 30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융자 사업에서 주로 많이 줄었는데요, 융자 사업 대신 이제 보증지원 사업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지원 사업을 감안하면 이 부분은 그냥, 물론 이것은 주로 보급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정부안대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셀값 자체가 23년에 17년 대비 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고요 태양광과 관련된 정부 지원 보조율도 조금씩 낮춰 가기 때문에 수혜 대상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부안대로 갔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상웅 위원 셀값이 그렇게 떨어져서 했다가 이 것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6번은……

○송재봉 위원 아니, 전년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줄어드는 거나 현상 유지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는 보급이 확산되고 더 키워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여러 차례 우리가 의견을 냈던 것 같은데 그냥 현상 유지만 하시겠다 이러는 건 좀 우리가 있는 건 아닌가요, 다른 사업에 대비해 봐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위원님.

○김종민 위원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오해인지 실제 문제인지 모르지만 원전과 재생에너지에서 편애한다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돼요. 문제인 정부 때도 이걸 대립적인 쟁점으로 가져왔던 게 사실 문제였는데 또 거꾸로 이제 원전하고 재생에너지는 하던 것을 이렇게 이렇게 좀 줄인다 이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22년도 예산 수준을 감안해서 증액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공공형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다 여기에 포함되지요? 그런 경우도 하다가 줄어든다 또는 정권이 바뀌니까 사업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현장 가 보면 파다하단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 보급사업이 주택용, 자가용 태양광 보급에 주로 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금년도 전기료 인상을 산업용만 시켰기 때문에 산업단지 태양광 위주의 논리가 맞는 거고, 주택용하고 일반용 전기요금은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다시 태양광 보조까지 이렇게 해 주면 과도하게 보조가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들리고요.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송재봉 위원 보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확대가 안 되는 이유가 보조 예산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제도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송재봉 위원 어떤 제도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너무 소규모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계통망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법 정부 개정안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중앙 중심의 입찰시장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해상풍력이 요즘 속도를 내는 거는 개별 사업에서 정부가 입찰 물량을 정해서 매회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매해 7GW면 7GW, 6GW면 6GW 정부가 입찰공고를 내고 그거에 있어서 책임지고 들어오게 하는 게 우선이지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배전망에 문제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인 면으로 푸는 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어떻게……

○김종민 위원 그런데 제도 개선으로 푸는 거 그거는 입찰방식으로 가는 거는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시장이나 현장의 분위기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무슨 해법이 뭐 있어요?

○소위원장 강승규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정부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신재생에너지를 위원님들이 많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확대해야 되고 RE100 등에 대해서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그저 개별적으로 지원함으로 인해서 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 전력의 효율적인 이용에 문제가 생기니 그리고 이것은 전기요금에 다 영향을 미치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신재생에너지도 그 전력 생산에 따른 사회적 책임, 계통의 여러 가지 역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입찰공고 등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겠다는 정부 방침, 그런 제도화 이런 쪽을 체계를 잡아 가야지 계속 확대된다고 그래서 보조금 확대하고 그러면 지금도 많은 호남에 문제가 있던 것처럼 여러 곳에서, 저도 충청도에서 가니까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나 지금 이런 부분을 군이나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부가 체계적으로 계통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또 그만큼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신재생 정책을 저기해서 오해가 없도록……

위원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정부가 무슨 신재생에너지를 방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고 이걸 안 되면 보류시키든지……

○김교흥 위원 보류시키세요.

○소위원장 강승규 어떠세요?

○이재관 위원 우선 이 예산이 갖는 메시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도적인 접근은 옳게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또 현장에서 느끼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이 예산 규모를 가지고서도 많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년 수준은 유지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저는 사실은 과거에도 제가 신재생 담당 국장을 했었고요. 이 예산이 사실은 6년 전으로 가면 2400억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조 3000억 원인가까지 올랐다가 9000억으로 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단일 에너지원, 이게 8.3%밖에 안 되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규모로 보면 제일 많이 지원이 되고요. 저희도 이게 민간 풀뿌리 태양광이라든지 해풍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규모로 보면 가장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독일이나 다른 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정부가 보조나 금융지원 중심으로 가다가 시장으로 바꾸고 입찰제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늘려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만 제가 뒷부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그래서 금융지원을 융자는 줄이는 대신에 보증 사업을 추가로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스테이지에 맞게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보조율 조정이라든지 단가라는 걸 감안해서 수혜 대상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메시지라든지 정무적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지금 6번, 7번, 8번, 9번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리고 말씀 못 드렸는데 거기 중간에 영월 관내 신재생에너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융복합 사업 다른 부분도 있어서 영월 관내만 딱 짚어서 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래서요 6번, 7번, 8번, 9번까지인가요, 무탄소에너지? 여기까지는 일단 상정은 해 놓고요 보류를 하지요.

○김종민 위원 좋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런데 8번은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해풍법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계속 적합 입지 발굴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해상풍력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8번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오케이, 8번 수용. 그렇게 하시고.

○김종민 위원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물어볼게요. 따질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러면 10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입니다.

4대 과기원 정부 출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최소한 24년 예산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서 150억 원 증액 또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 부분은 사실은 학사운영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최소한도로 저희가 맞췄는데요, 다만 150억이나 100억이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필요한 장비 도입이라든지 연구과제 수행 일정 등을 감안하면 100억 증액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번은 100억 증액으로 조정합니다.

11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1번입니다.

국산무연탄사용 발전소 한시적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국산무연탄 발전 물량을 발전사에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이로 인한 발전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석탄 중에서 가장 연료 효율이 낮은 무연탄을 사용하는 발전소는 탈석탄 차원에서 조기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17억 400만 원 감액 또 17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 부분을 두 부분 다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연탄은 저희가 석탄산업 합리화 과정에서 국내에서 캐는 무연탄에 대한 사용처가 필요하

기 때문에 딱 하나, 지금 동해화력 하나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돌려 주지 않으면 무연탄 싸 놓고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릴 것도 아니고 29년까지 폐지는 저희가 이미 확정을 지었고요. 다만 이것도 여러 가지 수급 여건이라든지를 감안해서 조기 폐쇄가 가능하면 조기 폐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늘릴 계획은 전혀 없고요, 29년까지 하는 사업이고, 국내 무연탄을 버릴 수는 없어서 쓰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그냥 불수용으로 정부안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송재봉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보다 늘어난 거 아니에요, 예산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거는 저희가 매해 계획 대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늘어난 거는 수입하는 무연탄하고 국내 무연탄하고 가격 차액만큼만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으면 남는 대로 저희가 토해 내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더 추가로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29년까지 계획에 맞게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불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2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2번, 농어촌전기공급사업입니다.

내역사업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은 국민의 기본생활권 보장과 한전의 재무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필요하므로 294억 9700만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내역사업 농어촌전기공급지원은 도서 벽지 전기공급 환경 유지에 대해서 지자체 비용 부담 지원을 위해 81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3억 8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오세희 위원 2개 다 수용?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둘 다 수용.

○소위원장 강승규 증액으로 조정합니다.

○박상웅 위원 12-2는 금액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건 81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13, 1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3번입니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입니다.

먼저 내역사업 USC급 보일러 암모니아혼소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 연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73억 9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내역사업 계통유연자원서비스화기술개발은 내륙 광역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발전소 실증을 위해 4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역사업 수소는 7대 전략 분야인 수전해·수소충전소 상용화,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제성

확보 등을 위해서 9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내역사업 연료전지도 유사한 취지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13-1은 이것도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석탄화력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고요. 설계 수명까지만 쓰도록 돼 있고요. 다만 설계 수명까지 쓰더라도 암모니아혼소나 수소혼소를 안 하면 발전량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계획이 돼야 CO₂가 감축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수명 연장을 안 하고 기존대로 가야지 NDC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수용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계통유연자원서비스화기술개발은요 이게 26년도 종료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73억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기술개발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실증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라 조금 이르지 싶습니다. 26년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사전 기획 용도로 2억 정도만 반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3-3하고 13-4는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400억, 그러니까 13-2는 2억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요. 그리고 13-3, 13-4는 수용, 13-1은 불수용.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부 측 의견대로 조정하겠습니다.

14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4번입니다.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신뢰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세부 과제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평가 및 성능검증 플랫폼 개발의 4차년도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10억 9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9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승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위원장님, 앞의 22번하고 24번, 소위 책자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 아까 에너지공동연구하고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2개가 보류됐는데요

저희 의견은 너무 또 보류가 많으면 그러니 저희가 그 앞에……

○이재관 위원 아니, 다시 논의할 거예요.

○소위원장 강승규 아니아니, 이따 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지금 바로 털고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허성무 위원 다 끝내 놓고 합시다.

○김종민 위원 다 끝내 놓고 마지막에 논의하는 거예요, 마무리할 때.

○소위원장 강승규 일단 보류된 거는 마지막에 털든지 어찌든지 할 거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15번 항목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5번, 원전산업글로벌시장맞춤형기술개발입니다.

2024년 기준 사업화율이 39.5%에 불과하고 과제 종료 시점에도 사업매출은 8억 5500만 원에 그치는 등 기술개발 실효성이 낮으므로 20억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마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억 5500만 원은 사업비 10억 원당 매출액 예상 기준이 8억 5500만 원이라는 게 되겠고요. 사실 이 사업은 지난 정부 때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요, 시작된 계기는 사고저항성 핵연료 자체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기반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EU 텍소노미라든지 우리나라 텍소노미에도 사고저항성 연료를 쓰게 돼 있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과 관련된 기술개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는 불수용이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여기 안에 신규 사업은 없고 다 계속사업, 사고저항성 연료만 있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저희가 총 5개 과제를 시작했었고 그중의 3개 과제는 지금 종료가 됐고요. 원전의 코어 캐처 설계 최적화하고 안전 강화 노심 기술개발, 두 가지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거로 지속적으로……

○장철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두 가지만 계속사업을 하는 거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두 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신규 사업 예산은 없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없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면 그냥 원안 유지하시지요, 계속사업 하고 있고 2개 남아 있는데.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불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6번입니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입니다.

SMR 개발 이후에도 높은 안전 비용이 필요하므로 낮은 시장 전망, 높은 사업 리스크 등을 감안해서 329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8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거는 이미 22년 5월에 예타를 통과해서 23년에서부터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18억 8000만 원의 경우에는 사업단과 관련된 운영비를 말씀을 하셔서 18억 80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다부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의 사업단을 꾸려서 그 사업단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SMR 사업단에만 특출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바이오라든지 다른 부분도 다부처 공동사업 사업단에는 동일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타를 통과한 기존 사업이고 또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불수용으로.

○김교흥 위원 차관님, SMR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SMR 상용화는 29년, 30년에 테라파워하고 뉴스케일은 들어갈 거고요.

○김교흥 위원 29년도?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29년하고 30년에 미국하고, 미국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도 몇 개 나라는 이미 입찰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조금 늦었습니다, SMR 자체는.

○김교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28년도에 일단 저희가 기술개발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소위원장 강승규 미국의 29년 상용화라는 것은 지금 미국은 기술개발은 끝났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래서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해서 29년에 상용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상용화 계획이 언제쯤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저희는 전기본 제11차에 이 i-SMR 기술개발이, 물론 그것도 다 공모로 가야 되는데요 어찌 됐든 i-SMR에 대해서는 170MW짜리 4개 해서 680MW를 실증용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만 들어와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몇 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34년까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상용화하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김교흥 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이렇게 예산을 넣어서 되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거는 안전과 관련된 거고 이것도 대형 원전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똑같이 이제 부지 선정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해도 아주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SMR은 사실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히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기술, 다만 우리나라 SMR은 경수로형이기 때문에 특징점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저희는 성공한다고 가정하고 있고 또 과기부하고 산업부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국내 실증용 들어가면 그렇게 크게, 분산형 전원으로서는 분명히 그렇게 크게 의의가 있고요.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안전성을 얼마나 잘 확보하고 증명해 낼 수 있는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재관 위원** 지금 이 SMR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거기에도 기본적인 구상이 들어가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구상돼 있는 건 하나도 없고요. LNG 3GW만 들어가 있고요. 분산전원으로서의 장점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형 원전의 경우에는 화강암반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 정도의 균질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화강암반과 유사한 형태의 굉장히 단단한 암반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대형 원전보다는 조금 완화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원전이기 때문에 부지 선정 절차를 별도의 규제 기준을 마련해서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지금 우리 원전과 SMR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대략 몇 분의 1 정도……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요즘 원전은 유럽형이 보통 1000MW짜리, 그러니까 1GW짜리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대형 원전 몰려 있는 데는 1.4GW에서 1.6GW가 나가고요. 소형 원전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70~300MW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분산전원으로서의 특성이 있어서, 이게 송전망을 좀 최소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와이오밍이라든지 아이다호가 도시 규모가 30만~40만 정도 되는 조그만 데에 이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데이터센터용으로 별도로, 데이터센터하고 묶어서 들어가는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에는 분산전원이 필요할 정도로 흩어져 있지 않고 이미 송전망도 대부분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실증용을 일부 한 다음에는 대부분 수출용으로 나갈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지금 김성환 위원님의 지적에 보면 높은 안전 비용, 낮은 시장 전망, 높은 사업 리스크가 있어서 이것이 성공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한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안전 비용은 대형 원전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일체형이고요 그다음에 피동형 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성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단점은 이게 대형 원전보다는 발전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다만 분산전원, 그러니까 송전망을 줄이는 비용만큼 발전단가가 올라가는 것을 캄프라치가 되면 이게 효용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새로 개발되는 원전 노형은 대부분 다 SMR입니다. 그래서 송전망 구축이 어렵다는 것하고 이게 지금 동시에 가고 있고요. 영국 포함해서 대부분 원전을 하고 있는 나라는 차세대로서는 다 SMR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대형

원전은 3.5세대 이후에 추가적인 대형 원전 논의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지금 SMR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제 의견은 저는 SMR 문제는 실행과 관련해서는 여기 김성환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우려나 미지수들이 많아서 실행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행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R&D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이거나 아니면 준비된 대응들이 필요하니까 R&D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것은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실행을 신중하게 한다는 전제는 산자위에서 계속 케어를, 그것은 끌고 나가야 되는 어젠다거든요.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불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7번입니다.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입니다.

세계 원전해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을 위해서 71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저희가 원전해체를 이제 고리 1호기부터 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요, 이것은 새로 발주되는 것도 있지만 해체되는 것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71억 1700만 원 증액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 정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8번, 현장수요대응원전첨단제조기술및부품·장비개발 사업입니다.

SMR 중복 지원 우려, 연구 지원비율 과다 책정, 25년도 사업화 매출액 부족 예상 등을 고려해서 8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것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SMR 공급망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 창원이라든지 김해 일원에 있는 기업들 지원을 위한 예산이거든요. i-SMR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해외 공급망에 들어가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 중복성 여부보다는 계속 정부 의견을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니까 이것은 SMR 등 원전에 들어가는 부품·장비나 제조기술을 위한 중소기업, 관련 기업들 지원 예산이라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MR은 전체 공급망 중에서, i-SMR은 전체 세트를 설계하는 건데 이것은 i-SMR이랑 직접 연계라기보다는 각종 부품 단위에서는 여러 군데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기업들이 쓰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원전의 냉각제품이라든지 이런 것……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불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9번입니다.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입니다.

차세대 태양전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것은 광주 GIST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세부 항목별로 GIST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20억은 사실은 조금 과다한 측면이 있고요, 내년도에 들어올 기술개발 과제 내역을 보면 10억 원 증액 정도로 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성무 위원 고마 20억으로 해 주이소. 다른 것은 다 깎으면서……

○김종민 위원 차관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것 GIST의 얘기를 좀 들어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 행정부가, 이것은 사실 산자부 문제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에서 예산관리를 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게요 기본적으로 120억이 잡혀 있는 사업이에요. 잡혀 있는데 이 잡혀 있는 것을 지금 올해 10개 기관 모아 가지고 당장 올해 딱 10억 해서, 12개인데 1억도 안 돌아가, 지금. 그렇게 해 놓고 내년도에 또 여기에서 55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35억으로 20억 깎자는 거야.

이게 탁상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집중적으로 장비 들여와야 되지요. 초기에 투자가 되어야 나머지 2년 차, 3년 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거든. 이것 120억이 원래 나가야 될 돈인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120억 총사업비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35억 이것도 사실 재정 당국하고 좀 싸워서 35억 올렸는데 사실은 20억 증액이나 40억 증액이나 10억 장비 부분에 대한 선발주, 후발주 문제인데요. 지금……

○김종민 위원 최소한 20억 증액이 되어야 실증환경 구축이 된다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알겠습니다. 20억 받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종민 위원 그런 건 현장 목소리를 좀 받아 줘야지, 이게 뭐 추가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소위원장 강승규 20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0번입니다.

원전탄력운전기술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기술 수준으로도 출력감소운전, 부하추종운전 등이 가능하므로 사업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 3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지금 물론 80% 출력 감발이 가능하긴 한데요 이게

18개월, 그러니까 원전 연료 한 주기가 18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 18개월당 한 20일 이내 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태양광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감안하면…… 지금 경직성 전원이 태양광하고 원전, 2개인데요 태양광은 출력을 끊는 형태로 하고 있고 이것은 감발 형태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 기본적인 전력망을 위해서라도 감발 연구는 해야 됩니다.

저희는 욕심 같아서는 원전도 한 50%까지 감발을 해야, 2030년에 20%까지 재생이 늘어나면 이렇게까지 감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니까 이것은 출력계통이나 출력제어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태양광이든 신재생이든 원전이든 뭐든 하여튼 이렇게 탄력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계통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맞습니다. 지금 봄철하고 가을철에는요 태양광하고 원전, 2개만 합쳐도 85% 이상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2030년에 태양광 숫자가 지금보다 3배로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원전은 추가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운전을 높인다 하더라도 아마 감발하고 출력제어가 둘 다 동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원전 제어, 감발이 제대로 안 되면 태양광이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래서 양쪽을 다 유연성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오세희 위원님께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것은 정부안을 줍……

○오세희 위원 아니, 잠깐 제가 할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우리 의원실에서 어떤 출력 감발에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것을 안전장치를 해야 되냐니까 ‘이제 안전성이 필요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안전성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것이 또 예산에 올라온 거야.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런 출력 감발을 갑자기 줄였을 때 스트레스가 없다고 안전성이 필요 없다 한 분들이 이제 와서 안전성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그렇게 출력감소운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왜 앞뒤가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 의원실에서 물어 가지고 했더니 그것 없다고 분명히 말했었는데 이제는 또 있다고 하니 그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건 제가 한수원을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한수원 얘기는……

○오세희 위원 아니, 한수원에서 분명히 그래 가지고 이게 진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18개월에서 20일 내외로 80% 출력 감발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일 한도 내에서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2030년에 태양광이 더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감발 일수도 늘려야 되고 출력제어도 더 줄여 줘야 되거든요.

○오세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 한수원이 기술적 문제가 없고 영국·프랑스 해외 국가에서도 수십 년을 감발 운전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최고 수준이라고 자평하고 말이야.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닙니다, 최고 수준 아닙니다.

○오세희 위원 이러면서 필요 없다고 한 사람들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저희는 많이 부족하고요.

○소위원장 강승규 정리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것 한수원에 그러면 다시 의견을 달라고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20번 문제에 대해서는 오세희 의원님실에 소통을 잘해서 오해가 있던 부분은 풀어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불수용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1번, 전력산업홍보입니다.

내역사업 에너지정보소통은 원전에 편중되어 진행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24년 예산 수준에 맞춰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게 아마 저희가 무탄소에너지 뉴미디어 홍보라는 새로운 홍보 항목이 추가되면서 그게 4억 5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수정 의견입니다만 ‘무탄소에너지’ 앞부분에 아예 특정을 해서 ‘재생에너지·수소 등’이라는 말을 붙여서 ‘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뉴미디어 홍보’라고 내역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탄소에너지’ 앞에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이렇게 추가해서……

○송재봉 위원 이름만 붙이고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태양광이나 그쪽에만 쓸 겁니다.

○김종민 위원 이름 붙이고 안 하면 나중에 책임져야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그것은 저희가 사후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다음 22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2번,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은 원전수출산업 지원사업이 최근 5년간 대폭 확대되고 있고 해외 홍보에 집중된 문제 등이 있으므로 98억 7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1억 7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내역사업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은 수출 다변화 및 중점 추진국 확대에 따른 기본경비 확보와 원전기업 해외사업 참여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서 13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부대의견으로는 내역사업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사업은 기업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므로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게 과거에 별도로 나뉘어 있던 사업을 전력해외

진출이라는 것으로 한데 묶어서 내역사업 3개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중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에 대해서 증액·감액 의견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은 별도로 분리시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은 두 번째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전 증·감액 부분은 그냥 현행 유지로 해 주시되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을 한 20억 정도 증액으로 해 주셔서 차라리 이것은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더 높여 주시는 쪽으로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상웅 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웃음소리)

○송재봉 위원 그러니까 증감이 없이?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아니요. 정부 원안에다가 신재생에너지는 20억 증액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받지 않는 것으로……

○소위원장 강승규 부대의견 받지 않고 신재생 20억 증액하고 원전 부분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은 23번,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입니다.

원자력 분야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 등 인력양성 예산은 부정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고 장기적으로 원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12억 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8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 부분은 사실은 퇴직자·재직자 역량강화 하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실 이게 신한울 3·4호기가 들어오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서 퇴직자 지원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 감액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교육비가 많이 듭니까?

○송재봉 위원 감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허성무 위원 이미 이 사람들은 원전 전문가들인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교육보다는 사실 인건비 90% 보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취직을 해 주면, 퇴직하신 분들 취직을 받아 주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6개월 동안 90% 정도 보조를 해 줍니다, 6개월간만. 그다음에는 회사에서 주는 게 되겠고요.

○송재봉 위원 그런데 이게 원전 쪽만 이렇게 특별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김교홍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소위원장 강승규 인력이 부족하다잖아.

○김종민 위원 퇴직자를 왜 보조해 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신한울 3·4호기 추가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는.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시장원리에 의해서 회사에서 돈을 더 주고 고용을 하면 되지.

○**박상웅 위원** 경험자가 없잖아.

○**김교흥 위원** 인력을 양성할 생각을 해야지.

○**김종민 위원** 인력이 남을 때나 보조해 줘야지.

○**박상웅 위원** 금방 대학 나온 사람 쓸 수 있나. 몇십 년 경험자를 써야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런데 과거에 특정 분야별로 계속 이런 사업을 해 왔고요. 조선에서도 이 사업을 했었고 제 기억에 자동차에서도 했었고요. 분야별로 한시적으로 항상 인력 수요 부족한 부분에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조선업 갑자기 활황이 왔을 때는 용접이라든지 그쪽이 부족해서 똑같은 형태로 이 사업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분야의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항상 정부에서 특정 부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이 이 사업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분야별로 돌아가면서 했었던 거ですよ. 그래서 제가……

○**김교흥 위원** 차관님, 지금 원자력 쪽의 전문가가 총 몇 명 정도 돼요? 데이터 갖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데이터는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얼마나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것은 제가 지금 바로 자료는……

○**김교흥 위원** 그중에 퇴직자가 몇 명인데요?

○**박상웅 위원** 많지요.

○**김교흥 위원** 그렇게 많지 않아.

○**송재봉 위원** 이걸 금액도 너무 크고.

○**김교흥 위원** 이게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닌데, 112억.

○**박상웅 위원** 그 정도면 모자라면 모자랐지 많지도 않아.

○**허성무 위원** 그런데 조기 퇴직하신 분들이 상당한 위로금을 받고 다 퇴직들도 많이 하셨는데 재취업을 하게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런데 이게 대부분……

○**김교흥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 건 대답을 안 하고 왜……

○**김종민 위원** 숫자가 몇 명이나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원전기업 인력이 전체적으로 2만 명 내외고요.

○**김교흥 위원** 여러분들이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2021년 기준으로 1만 8700명……

○**김교흥 위원** 잠깐만…… 얼마, 몇 명?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1만 8700명입니다.

○**김교흥 위원** 퇴직자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요, 원전기업 전체 인력이 그만큼 됩니다.

○**김교흥 위원** 그러면 퇴직자는?

○**송재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직자 중에 재취업이 가능한 인력이 몇 명이에요?

○**김교흥 위원** 퇴직자의 재취업, 그러니까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나온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저희가 기존에 과거에는 350명 내외로 보통 지원을 했습니다.

○김종민 위원 350명?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김종민 위원 그러면 112억이면 한 4000만 원? 그런데 다는 아닐 것 아니야.

○송재봉 위원 그 인원이 100% 다 재취업을 한다는 말이야?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래서 저희가 인턴 채용까지 합쳐서 이 예산 자체는 280명을 기준으로 짰고요.

○김교흥 위원 280명?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허성무 위원 지금 감액이 2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12억 800하고 28억 7000, 각각 뭐가 다른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112억 800만 원은 전체를 다 감액하시자는 의견이시고요, 28억 7000만 원은 전공자, 인턴십 또 비정규자 정규직 전환은 살리고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삭제하자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정부 원안대로 잡시다.

○송재봉 위원 이걸 좀 무리한 계획인 것 같아요.

○박형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차관님, 우리가 원전 생태계가 파괴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맞습니다.

○박형수 위원 원전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그 인력들 그다음에 그 기술 그다음에 장비 이런 것들이 5년 정도 문제인 정권 때 탈원전을 하면서 이 부분이 다 무너지고 그걸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 버렸어요. 특히 중국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 자체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재개되고 그게 돌아가게 되면 이 인력이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발전소도 가 봤지 마는 그 자격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원전 운전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간에 양성할 수가 없어서 즉 계속해서 이런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사실은 제가 또 기업간담회도 해 봤는데요. 기업들이 새로운 분들을 뽑으면 교육훈련비도 많이 들어가고 검증이 안 돼서 물어보면 항상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더 선호는 하십니다. 다만 거꾸로 취업을 바라는 데가,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중소·중견기업들이다 보니까 대우가 아주 좋지는 않다 보니 자금 여력도 없어서 정부가 일정 비율 지원을 해 주는 게 되겠고요. 퇴직자분들이 대부분 숙련공들이 주로 가시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기업들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잠깐만요. 질문드릴게요.

퇴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이 재취업을 하면 몇 년이나 더 추가 근무를 할 수가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것은 제가 기업한테 물어봤을 때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이분들이 대부분 60세 정도 되신 분들이라서 그 기간은 사실은…… 그분들의 역량이라든지 계약 조건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권향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제조업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동안에 숙련되신 분들을 재취업시키는 것이 우선 직무교육이라든가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더 쉬우니까 더 편리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많이들 선호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신기술을 익혀 간다라든가 우리가 지속 가능한 그 상태로 한다면 새로운 인력들을 양성하고 채용하려고 하는 데 더 방점을 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이렇게 퇴직자 지원으로 계속 연명해 간다면 이 생태계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여기가 아주……

○권향엽 위원 나는 그 발상 자체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허성무 위원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퇴직자를 위한 28억 7000만 원, 사실 이분들은 재교육할 게 없어요. 최고의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분들이 이미 취업이 되고 있고. 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도 필요하고 워낙 저임금이니까 임금 보조도 필요하고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김정호 위원이 이야기한 28억 7000 이천 감액을 하고 앞엿것은 살려 주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싶은데요.

○이종배 위원 이 28억 7000만 원이 교육훈련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인건비 보조 비용입니다.

○이종배 위원 중소·중견기업 이렇게 좀 열악한 기업체에 대한, 퇴직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 사업인데 요즘 일거리는 자꾸 늘어나는데 당장 인력을 양성해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허 위원님도 그쪽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허성무 위원 잘 알지요.

○이종배 위원 그래서 이 인력들이, 그전에 조선업들도 많이 떠나가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똑같이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당장 인력이 없어 가지고 다시 끌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분들,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놔두서는 안 되거든요. 이분들로 우선 채워 놓고 그러면서 신규 인력 양성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이종배 위원 그건 그것대로 하고 여기는 퇴직자들을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보조 사업이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렇습니다. 6개월간 보조해 줍니다.

○이종배 위원 6개월만 주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6개월만 보조를 해 줍니다.

○김종민 위원 한 가지 질문이요. 인건비 보조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보조를 해 주면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내거든요, 사실은.

○김종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기업이 월급을 주고 해서 이익을 남기면 되잖아요.

○박상웅 위원 차관님, 전에 바라카 원전 공사하고 나서 우리 한국 전문 근로자들 또 기술자들, 한전 소속 엔지니어들이 그 이후에 탈원전과 맞물려 가지고 거의 외국계 회사로 다 많이 갔더라고요. 나도 그런 사람들 몇 아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한걱정을 하던데. 자기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외국계 회사에 그냥 팔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우려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웃돈을 얹어서라도 그런 사람들 다 잡아 놓아야 돼요, 일단은.

그런데 이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쓰일 데가 안 있겠습니까? 젊은 엔지니어의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용도로도 쓰이고 또 원자핵공학과라든지 이쪽 관련 학과의 교육에 좀 보탬이 되도록 장학금 지원을 해 준다는가 여러 용도로 쓰일 것이고.

지금 이 부분 재취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절박한 이야기니까, 우리 국회에서 그런 문제를 사실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 잘못 다루어 가지고 자꾸 소홀히 하고 삭감하고 이러면 그런 게 우리 원전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할 테니까 이것은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도록 정부가 소신 발언하시고.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도 다 아십니다, 이 상황을. 그러니까 조금 동의.....

○송재봉 위원 저는 112억을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모자라는데 왜 돈을 줍니까?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우리 청년내일채움 공제 이야기할 때 그 인건비나 목돈 마련 지원하는 건 돈 없어서 한 푼도 못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는 퇴직자를 위해서 또 인건비를 얹어 주겠다고 하고. 논리가 일관성이 없어요, 정부가.

○박상웅 위원 퇴직자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송재봉 위원 그 산업이 더 중요하지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소기업이 지금 인력 못 구해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박상웅 위원 그렇게 초점을 흐려 버리면 곤란하고.

○송재봉 위원 아니, 초점을 흐리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박상웅 위원 아니, 소상공인 지원하는 돈은 수천억을 보내도 모자라지.

○송재봉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쓰냐는 말이에요.

○김종민 위원 제가 정식으로 마이크를 켜고 질문드릴게요, 아까 내가 마이크를 끄고 질문했더니 대답을 안 하셔서 가지고.

일단은 신규 인력을 이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은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퇴직자 재취업에 인건비 보조를 해야 될 이유가 납득이 안 가요. 일반적으로 시장을 놓고 보면 신규 인력을 하려면 기업이 교육비까지 투자해서 하려면 기업 부담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재취업은 일단 그만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가가치가 그만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 가격이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생태계에서 정리가 되는데 굳이 이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삼사 년 끌고 오기 위해서 2억씩 준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니, 몇천만 원, 4000만 원 정도 해서 6개월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원전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요 숙련공 분야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통 처음에 인력난이 났을 때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인건비 보조를 통해서 중소·중견기업들이 그 해당 분야 퇴직자라도 다시 쓰도록 했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왜 안 됐냐 하면 그때 조선업 할 때 제가 물어보니까 중소·중견기업 월급을 받느니 배달이라든지 다른 데로 간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아주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다시 돌아오는 성향이 있고요. 다만 이것도 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조선업은 결국 안 돼서 E-9비자 통해서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로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국내 인력으로 풀어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이것을 몇 년 동안 해서 안 되면 결국은 E-9비자로 갈 거고요. 전력공도 이번에 E-9비자 인도에서 들여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래도 끊임없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고급 인력이 아니라 숙련공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제가 기업 분들하고도 다 만나 봤고요 이게 원전만 한 게 아니라 분야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했고요, 이 사업을 제일 많이 썼던 건 조선업입니다, 사실은.

○김종민 위원 아니, 조선업은 산업 전체가 어려울 때 그 필요한 수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건 이해가 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어려울 때 한 게 아니고요. 조선업은 언제 했냐 하면 어려울 때 다 퇴직을 했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그때 이걸 썼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조선업이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수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서 한 거고 이것은 이제 새로 원전을 만든다면서요. 그러면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주받아서 월급 주면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똑같은 게……

○송재봉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산업이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나서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2차 협력업체…… 그것은 꼭 원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이 그렇게 임금 수준이…… 물론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야 그나마 중소·중견기업에서 뽑겠다고 오거든요.

○김종민 위원 그러면 발주처에서 돈을 좀 더 많이 주지 그래요?

○송재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전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핵심 사업인데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 그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일준 위원 저기, 차관님 설명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현장의 중소·중견기업 대표님들을 만나 보면 이렇게 인건비를 보조해 줘도 원청에서 그것까지 계산해서 단가를 깎아 버려요.

○송재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만을 위한 일 아니야.

○**허성무 위원** 그러니까 중소·중견기업 CEO들이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인건비 보조 안 해 줘도 된다, 해 줘 봐야 그것까지 계산해서 나중에 단가 다 깎아 버리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현장의 대표들을 다 만나 보셨다 하니까……

○**송재봉 위원** 대표들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허성무 위원** 대표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지금은 급작스럽게 인력이 필요한 때고 인력을 뽑아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아까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강력하게 두 분이, 전액 감액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아주 일부분을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재취업자는 이미 퇴직할 때 퇴직금도 받고 위로금도 받고 충분하게 그때 많은 걸 받은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재취업의 기회가 주어지면 오히려 굉장히 해피한 거지요, 그게 임금 차이가 어떻든 간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맞습니다.

○**허성무 위원** 오히려 좋은 기회가 생겨서 해피한데 이런 분들까지 보조를 주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데 초기에 새로운 인력들을 교육해야 되고……

○**소위원장 강승규** 정리를 좀 할까요?

○**허성무 위원** 젊은 인력들에게 인건비 보조를 해서 기업들도 여유를 갖도록 해 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러면 전제 조건을 이렇게 달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내년까지 사업만 하시면은요, 저희가 3년간 사업을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성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성과 분석을 해서 그것을 26년 사업에 환류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받아 주시면……

○**김교흥 위원** 잠깐만요, 차관님,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박상웅 위원** 아니, 우리 서일준 위원은 발언 기회를 영 안 주네.

(웃음소리)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영 아까부터……

○**김교흥 위원** 본인이 마이크를 켜는데.

○**박상웅 위원** 하도 기회를 안 주니까 마이크를 켜네.

○**김교흥 위원** 차관님, 이 기술자들이 아주 하이테크한 고급 기술자는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렇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러면 사실은 시장의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면서 기업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면 몰라도, 이분들은 이미 퇴직을 한 분들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김교흥 위원** 그걸 또 새롭게 재취업하면 거기다가 6개월 동안 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6개월 뒤에는 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렇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부담하는 이유는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그걸 통해서 조금 더 고용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송재봉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인력이 모자란다면.

○김교흥 위원 회사가 기업을 해서 이윤을 남기려면 퇴직자 아니라 그 이상의 퇴직자라도 가서 모셔 오지. 그러면 정부가 회사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여기서 기업 고용 창출을 위해서 인력비를 지원해 준다 그래서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그래서 제가 성과 분석을 하겠다는 의미는……

○김교흥 위원 아니, 성과 분석 2년 했으면 나올 것 아니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저희가 과거에 보면 이게 6개월치 대 줬을 때 1년 뒤에 잘리는 경우도 있고 2년 뒤에…… 그건 업종마다 특성이 좀 달리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년을 한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김교흥 위원 2년 했으면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니에요? 꼭 3년 해야 나오냐고, 그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런데 이게 수요도 많고 그래서……

○송재봉 위원 아니, 당연히 이렇게 돈 주면 수요가 있지요. 돈 주면 수요가 생기지.

○김교흥 위원 아니, 수요가 많으면 기업에서 왜 사람을 못 구하냐고. 아니, 그걸 꼭 인건비를 6개월 지원해 줘야……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을 너무 상세히 드리면 또 논쟁이 격화될 것 같아서 상세히는 못 드리겠지만요……

○김교흥 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자,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불수용 의사를 밝히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감액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웅 위원 아니, 그런데 발언도 한 번 못 하고……

(웃음소리)

허성무 위원님이 너무 발언을 길게 해서 그래.

○허성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되지, 굳이 전액 삭제할 것 없이.

○박상웅 위원 경상도끼리 발언 기회를 나눠 줘야지.

○소위원장 강승규 다음 보고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4번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입니다.

원전 분야 부실기업 지원이 우려되고 협회 추천 과정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5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2025년 원전 생태계 융자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상의 금액을 상회하고 원전산업에 특화된 자금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5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융자 예산에 2025년 원전기업 자금 수요의 90%를 반영하기 위하여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것은 당초 총사업비가 5000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냈을 때는 매해 1000억씩 해서 5년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신한울 3·4가 들어오면서 자금 용자 수요가 높아져서 연도별로 당겨 쓰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1500억이 반영됐고요. 500억이 반영된 만큼 뒷부분에서 거꾸로 줄어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전 자금 수요를 했을 때 많아서 추가 증액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겨쓰나 뒤로 미루나 전체 사업 규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자금 수요가 많을 때 많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불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상웅 위원** 어차피 나가는 돈이니까 정부 원안대로 하지요.

○**장철민 위원** 아니, 그런데 기업들의 자금 수요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시점으로 따지면 연차적으로 기업들도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기업들이 이 원전산업 생태계 안에서 자금 수요가 100억이 생겼다고 해도 당장 내년도에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프로젝트도 이것에 맞춰 가지고 연차별로 이렇게 나뉘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에서도 사실 이렇게 1000억씩, 뭔가 연착륙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저희가 신재생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효율 용자도 마찬가지로 이차보전으로 했는데 안 나갔는데, 이 정부자금이 시중금리보다 좀 저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운용하기에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보 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정부자금을 먼저 쓰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한울 3·4호기가 바로 초기 자금 투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3·4가 착공되면서 내년에 초기 발주가 많다 보니까 기왕이면 내년에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했고요. 다만 이걸 원산협회에서 추천을 합니다만 어차피 은행에 가서는 다시 또 담보 여력을 보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부실화될 염려는 없는 돈이고, 연차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이 제일 많아지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중금리보다는 정부 정책 금리가 낮다 보니까 정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현재까지 부실 통계 잡힌 것은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것은 담보 여력 보고 나가는 거라서요.

○**이종배 위원** 은행에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은행에서 담보 여력 보고 나갑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부실로 결정된 것은 아예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별로 없습니다. 그것 다 담보 잡고 나갑니다.

○**이종배 위원** 담보대출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이종배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니까 요구한 거고 또 전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고, 내년에 많이 있으면 이게 좀 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늘어난 만큼 내년, 후년에 줄어듭니다. 그것을 250억 씩 나눠서 줄일지 아니면 마지막 해에 500억을 통으로 줄일지는 자금 수요를 보고 정하게 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전체 규모는 정해져 있고 내년도 수요 조사를 했는데 내년도에 가장 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1500억 하신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건 정부 판단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재관 위원 연관된 건데,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에 15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계획했던 것 아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매해 동일하게 그냥 1000억씩 해서 5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렸드시피 총사업비가 정해진 사업이라 앞에서 당겨쓰면 뒤에서 깎아야 되는 거고 자금 수요상 사실은 균일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수요 봐서 들쭉날쭉해 주는 게 맞거든요.

○허성무 위원 그러면 원금은 다 들어온다는 것 아니야?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담보 잡고 나갑니다, 무조건.

○허성무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과시켜 줘. 돈 다 들어오는 건데, 뭐.

○오세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감액을 안 하더라도 증액이 또 있어요. 오히려 감액은 안 되고 증액만 하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런데 증액도 저희가 왜 불수용을 했냐 하면 지금 증액하면 뒤에서 더 깎아야 되거든요.

○김종민 위원 너무 갖다 쓰면 안 돼. 당겨쓰면 안 돼.

○소위원장 강승규 그래서 어떻게, 다 불수용입니까? 감액, 증액 다 불수용?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4번 감액, 증액 다 불수용으로 정리합니다.

25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5번,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입니다.

SMR R&D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았고 안전성·경제성 문제 해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SMR 제작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54억 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2억 6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부산시 센터 완공 이전에 도입이 시급한 혁신제조장비 일부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기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내역사업 소형모듈원전 제조부품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은 경남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와 연계하고 제조부품에 대한 신속한 시험·검사를 위한 필수 사업이므로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게 부산하고 경남이 지정이 돼 있고요. 물론 감액 의견 하신 분하고 증액 의견 2개가 다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사실은 국비보다 지방비 부담이 훨씬 큰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시험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제작·시험과 관련된 장비를 구축하겠다는 사업이 되겠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 97억 원에 지방비가 198억 원이고요 또 경남은 97억 원에 지방비가 또 226억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정부안대로 유지시켜 줬으면 어떨까 싶고요. 부산시 센터 완공 이전에 5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되면 경남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저희가 또 이것보다 뒤의 경북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희망하는 지역이 있어서 정부안대로 그냥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에 소형모듈원전 제조부품시험검사 지원센터 부분은 저희도 이 부분을 받고 싶습니다만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도 좀 안 맞고 아직 검토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한 1억 원 정도 상세 기획 정도로만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정부 의견대로……

○**김교흥 위원** 아니, 없는 게 아니고……

(웃음소리)

○**권향엽 위원** 절대, 아무도 동의가 안 되는 거지요.

○**김교흥 위원** 적시가 돼 있는데 왜…… 적시가 돼 있잖아, 감액으로. 아니, 얘기를 들어 봐야지.

○**김종민 위원** 줄줄이 감액 의견 내왔는데 바로 넘어가면 어떡해.

○**소위원장 강승규** 아니, 한 10초 없으면 없는 거지요.

○**허성무 위원** 경남은 어디에 만듭니까,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경남이요?

○**허성무 위원** 예,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창원에 들어갑니다.

○**허성무 위원** 제 지역구에 한답니다. 좀 봐주세요.

○**권향엽 위원** 원자력과 SMR에 대한 것은 지금 정부의 기본 스탠스가 야당의 의견은 전혀 안 듣겠다라고 입장이 정리돼 있는데 무슨 말을 더 합니까? 안 하는 거지. 하나 하나 한 이야기지.

○**박상웅 위원** 차관님,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SMR 원천기술 개발이 우리보다 상당히 많이 앞서가는데 제작·제조기술 이 부분만큼은 우리도 남한테 지지 않는다, 원천기술은 어디에 있든. 그래서 제작지원센터 이 사업을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작기술 이 부분을 강화하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원천기술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제작하는 팀이 우리의 제작 능력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호기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가지고도 우리가 바라카도 짓고 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런 것처럼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남한테 선수를 뺏길 수 없다, 그런

전략적인 목표를 삼고…… 지난번에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54억 갖고 안 된다, 오히려 이것 한 50억 더해서 100억 이상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좀 용감하게 나가라 했는데 이 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래 가지고 쪼그라들어 갖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눈치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애초에 저희가 기획할 때부터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어서요 그 총사업비 내에서 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애초에 당초 기획을 3개소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예타를 추가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정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우선 그냥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시급해서 예타보다는 단기적으로……

○**박상웅 위원** 이것 없으면 안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기업 지원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창원하고 부산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것은 기업들 시험평가 같은 것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니까 이것 없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오세희 위원** 창원하고 부산이 왜 이렇게 많아.

○**박상웅 위원** 원전기술 죽을 때 같이 죽었어, 창원도.

○**오세희 위원** 창원하고 부산이 왜 이렇게 많냐고, 경남하고 왜 이렇게 많아.

○**허성무 위원** 오세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SMR 파운드리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SMR 파운드리를 거기 주 기업이 하게 되고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부품이 들어가는 데 충분한 성능 검증, 부품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지원센터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물론 철학에 따라서 또 당론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제 지역구의 산업들이 여러 가지 전환이 빨리 안 돼서 어려운 점도 많고 한데 이 부분은 반도체만 파운드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SMR도 파운드리가 있다,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진행하는 거라서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

○**박상웅 위원** 아이고, 이제 됐다. 빨리 이야기하지.

(웃음소리)

○**김교흥 위원**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여당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오늘 예산 하면서 좀 답답해요. 원전이나 SMR, i-SMR,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 할 때 여야가 극명하게 이분법적으로 썩 갈리고 정부는……

○**박상웅 위원** 아까 태양광 팍팍 밀어드렸잖아요.

○**김교흥 위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 쪽이나 이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 부분은 뒤에 제가……

○**김교흥 위원** 아니, 잠깐, 내 얘기 아직 하고 있는데 왜……

i-SMR 기술개발이 R&D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지금 시작했습니다.

○김교흥 위원 본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미 벌써 출범해서……

○김교흥 위원 시작은 했는데 본격적인 시작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런데 벌써 권역별 3개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요, i-SMR하고는 별개고요.

○김교흥 위원 별개인데 i-SMR도 본격적으로 이게 진행이 안 됐는데 지금 SMR 제작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3개 지역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김교흥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빠르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나는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원전 해야지. 신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우리가 산업을 일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게 스탠스가 바뀌어 가지고 원전을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줄여 버리고 어떤 때는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을 좀 줄이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는 거기에 이끌려 다니면 안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부처가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알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우리 허성무 위원이 얘기해서 아는데 부처가 중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 무조건 원전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어떻게든지 줄이고 또 해 줘 봐야 20억 기분 쓰듯이 그냥 증액시켜 주고 이런 태도로 하면 안 된다, 저는 그거예요. 여태까지 오늘 내가 보면서 정말 답답해, 이게.

○박형수 위원 우리가 할 말인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러면 제가 대답을……

○이종배 위원 잠깐만요.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고 그렇게 정부에서, 계속 우리가 강조했는데 신재생도 신재생대로 가고 원전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탄소중립 꼭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어요. 지금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다 보니 생태계가 망가졌으니까 이 생태계를 다시 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원전 수출도 하고 신한울 3·4호기도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전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또 전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하는 데 무리하게 한 측면도 있습니다. 저도 그때 산자위에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 좀 정상적으로 바뀌 나가려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는 소홀한 것 같고 원전에 많이 투자하는, 추진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다, 이런 지적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생각하니까 그런 점을 잘 조화롭게 정부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리합시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한마디만, 양해해 주시면,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26번을 논의하면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오해가 쌓였는데요.

신재생 금융지원하고 보급지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전반적인 수요라든지 필요성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26번에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 금액 4조 원의 10%, 4000억 원을 증액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 전력망은 기본적으로 망 사업자의 기본 소관이기 때문에 전력망에 대해서 정부가 국비를 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부분을 신재생으로 돌려서, 신재생에 금융지원이 있고 이것도 금융지원으로 바뀌어서, 4000억은 좀 너무 과다하니 한 2000억 정도를 해풍이나 태양광의 공동접속구 전력망 사업으로 돌려서 금융지원을 해 주고 거꾸로 한전이 임차한 부분 2000억만큼을 나중에 망 이용료를 통해서 되갚으면 어떻겠냐라고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신재생사업도 전년보다 플러스가 되고 망은 망대로 또 이게 융자사업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국가재정의 부담 없이 한전이 해풍이라든지 태양광의 공동접속구에 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뒤 순서에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필요한 데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원전이나 재생이나, 무탄소전원에서는 똑같이 추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26번도 논의를 좀 바뀌서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26번을 2000억 원 깎자는 말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4000억은 너무 과합니다. 공동접속구가 지금 해풍 같은 경우에 신안이나 전남에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접속구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 순번이 뒤로 밀려지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려지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공동접속구 필요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자들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먼저 정부가 좀 용자를 해 줘서 한전이 먼저 짓게 해 주고 거꾸로 그것에 대한 망 이용료를 통해서 되갚게 해 주고, 이것은 마침 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의 내역사업으로 넣으면 신재생에너지도 늘어나고 망 측면에서도 좋고 전반적으로 다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뒤에 있다 보니까 앞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앞엣것 논의하다가 또 거기 가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까 SMR 말씀 좀 드리자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말씀을 하셔서 드렸습니다.

○**이재관 위원** 감액 의견을 냈는데 감액 의견을 낸 이유가 아까 28년 목표로 기술개발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이재관 위원** 기술개발은 지금 현재 됐고, 그러면 장비를 구축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표준설계 어떤 그 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나오려고 그러면 기술개발이 끝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원안위에서 어떤 표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규제랑 다 나와야 됩니다.

○**이재관 위원** 규제가 나와야 되고 그것에 맞는 장비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그런데 이것은요 i-SMR이 아니라, SMR이 하도 전 세계에 많이 가고 있는데 거기 부품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의 많은 부분이

부산하고 창원에 있는 기업들이예요. 그리고 마침 뉴스케일에는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들어가 있고 또 지금 GS도 투자가 되어 있고 SK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MR이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미국에 들어가도 되고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하는 데에도 들어가도 되고. 다만 거기에 있는 부품 기업은 어차피 우리 기업을 쓸 테니 거기에 있는, 거기에 맞는 부품을 개발할 때 들어가는 시험평가나 제작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i-SMR하고 직접 연관은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재관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리하겠습니다.

25번은, 25-1·2는 불수용으로 정리를 하고요. 25-3은 1억 원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번, 아까 차관께서 했는데 일단 보고를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6번,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입니다.

제10차 전기본 설비 계획에 따른 2025년도 전력망 건설 예상 투자비의 10%를 지원하기 위하여 4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아까 차관께서 설명하신 것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4000억 원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 수요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공동접속 지역의 송전망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입찰 물량도 들어오고 있고. 선투자가 되면 추가적인 입찰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그 내역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으로 옮겨 주면서 2000억 원 공동접속구 선투자 용자 사업으로 해 주시면, 다만 세부적인 사업 설계는 산업부에 일임해 주시면 좀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정부 측에서 설명한 대로 신재생에너지 금융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공동접속구 예산으로 20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정리는 하셨는데요.

차관님, 이것 4조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허성무 위원 이것 전력기금을 좀 써야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것 언제 하겠습니까?

○김교흥 위원 이게 전력기금이야.

○허성무 위원 세게 써야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런데 한전이 다른 사업에서 진짜 기본적인 망 사업 자입니다.

○허성무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법률 조항도 봤고 시행령도 봤고 다 봤는데, 조금 전에 예결위 질문에서도 산자부장관님하고 기재부장관님한테 다 공동 질문을 했어요. 한전이 망해야만 지원하겠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규정대로 하면. 그런데 200조, 300조의 적자가 있는데 사실상 망한 거나 같지요, 경제 논리로 그대로 가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전기요금 이번에 올려서요.

○**허성무 위원** 그래요. 전기요금 이번에 올렸지만 앞으로 20%, 30% 올릴 그런 용기도 없고 올릴 수도 없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런데 이것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망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요금에 산정하는 게 기본 방향이 맞고요. 저도 물론 해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허성무 위원** 자꾸 느려지니까 전력기금을 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신속하게 빨리 진행해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래서 정부로서도 필요하고 재생에도 좋고 그래서 공동접속구 같은 데 금융지원이 들어가면 여러 군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26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7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7번입니다.

원전산업성장펀드 신규 사업입니다.

국내 SMR 산업 조기 육성 및 원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펀드 조성 40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것은 사실은 저희 소관 예산이라기보다는 금융위 소관 예산의 이전 문제인데요. 금융위에서 통과된다면 이관을 받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차원에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교흥 위원** 철회하세요, 그동안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정부 예산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올린 건데, 이것.

○**김종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산업부로 이관한 거예요?

○**김교흥 위원** 산업부 예산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게 산업은행에서 여러 가지 펀드를 운영하는데요.

○**김종민 위원** 부대끼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끼기 싫어서 이관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게 필요하면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하든지 아니면……

○**소위원장 강승규** 어떻게 정리할까요, 위원님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서일준 위원** 그래요. 부대의견으로 합시다.

○**김교흥 위원** 어떻게 부대의견으로 해?

○**소위원장 강승규** 지금.

○**김교흥 위원** 이것 철회하세요,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이것을 무슨 부대의견 달아서 하려고 그래.

○**장철민 위원** 성격이 안 맞잖아요.

○**소위원장 강승규** 왜 안 맞아? 안 뺏겨야……

○**김교흥 위원** SMR 가지고, 원전 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해 줬으면 철회를 해야지. 참나, 이것은 산업부 소관도 아닌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금융위에서 논의할 주제니까요.

○**박형수 위원** 철회하고 금융위에서 하라고 해.

○**김교흥 위원** 그럼. 철회해, 철회.

○**소위원장 강승규** 27번,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박상웅 위원** 아이고, 됐다, 이제. 잘 풀렸어.

○**소위원장 강승규** 28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은 28번입니다.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신규입니다.

내역사업 융합시스템보급사업은 계통포화지역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 연계 ESS 보급을 위해서 37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것은 사실은 28번, 29번, 30번, 31번이 다 비슷한 재생에너지 ESS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고요.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 28번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는데 과거에 저희가 개별 사업자들에게 ESS를 붙여놨더니 화재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중앙 차원에서 ESS를 관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차원에서 23년도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9번, 30번, 31번이 마찬가지로 ESS 사업이 되겠는데 그중의 31번 사업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제일 부합하기 때문에 31번 사업을 수용하고 28, 29, 30은 31에 통합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31의 2개는 다 받아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2개 다입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도 금액이 제일 적네.

○**소위원장 강승규** 28, 29, 30을 철회하고 31을 수용해서……

○**김교흥 위원** 포함시킨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2개 다입니다. 92억 4000만 원과 77억 5600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포함한다는 것이 28, 29, 30이 이미 31에 다 반영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169억 96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아니, 그런데 28번에……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ESS 보급이 공공기관에도 보급률을 보니까 그때도 설치율이 이삼십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적어도 공공기관만이라도 우선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그에 걸맞은 예산이라든가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대책은 없나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공공기관 ESS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치 장소 때문에 초기에 지하 밑에 있는 걸 꺼내기가 어려워서 이게 과연 거

기서 혹시라도 화재 문제라든지, 그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ESS를 개별 기관에 붙여 왔더니, ESS가 kW당 200원이 되다 보니까 비쌌니다. 이분들이 '제로에너지빌딩이라는 거기에 맞춰서 이거 했습니다'만 했지 실제 활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실태조사 후에 공공기관이라든지 개별 사업자들이 ESS 쓰는 것에 있어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ESS는 전체적인 계통망을 감안해서 중앙집중형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큼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별 사업자들에게 가면 단순히 지원사업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하나는 시장에서 전반적인 가격을 쳐 주면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 플러스 계통을 감안해서 중앙집중형으로 중앙에서 풀어 주는 것, 2개가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VPP……

○**송재봉 위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사실은 거의 죽은 상태 아닙니까, ESS 쪽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11차 전기본 계획에 21.5GW가 들어가 있고요.

○**송재봉 위원** 그렇지요. 계획에 들어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첫 번째의 28번 예산은 그런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래서 저희가 VPP와 엮어서 31번에 그 내용이 ESS에 들어가 있는데요.

○**송재봉 위원**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래도 일단 시작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일단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VPP 사업이 활성화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강승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8, 29, 30은 철회하고 31번, 31-1과 31-2는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2번, 컨테이너급 ESS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구축입니다.

컨테이너급 ESS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구축을 위해서 연구시설 장비 59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건 사실은 강원도 삼척하고 완주에 검증센터가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은 컨테이너급으로 큰 걸 해 보겠다는 취지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다만 이게 아직은 사업 중복성 여부의 추가 연구가 필요해서 이 부분도 앞엿것과 동일하게 기획연구비 2억 원 정도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송재봉 위원** 아니, 사실은 이걸 현재 국내에 컨테이너급은 없다 보니까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주로 미국에 가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요. 그런데 내용 면에서도 조금 봐 줘야 될 게 있어서…… 저도 충분히 알긴 아는데 이게 조금 더 사업 내용을 중복성 없이, 그냥 단순히 규모가 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기에는 한 번은 조금 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러니까 국내에는 지금 규모가 큰 컨테이너급은 성능 검사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현실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리고 이게 또 KTC가 지금 삼척에서 운영하다가 또 똑같이 이쪽에서 운영하겠다고 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KTC랑 상의를 해서 조금 더 차별성을 두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조금 더 중복성을 회피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좀 손봐 주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얼마를 반영해서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2억 원 정도를 선행 연구비로 반영을 해 주시고.

○**송재봉 위원**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김교흥 위원** 너무 적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선행 연구비 2억 원이면 큰데요.

○**박상웅 위원** 일단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하는 거지.

○**소위원장 강승규** 32번은 선행 기획연구비 2억 원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3번입니다.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고방사선 환경 내 로봇, 장비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원전해체 추진에 필요한 실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4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재봉 위원** 아니, 그런데 방사선 이런 것만 나오면 무조건 수용이네.

○**박상웅 위원** 이거 해체, 원전해체.

○**송재봉 위원** 원전 방사선은 무조건 수용이고 어쨌 다른 사업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다 안 된다 그러고.

○**소위원장 강승규** 34번 보고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4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잠깐, 33번도 맞추자는 의미에서 선행 연구비 2억만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송재봉 위원** 그래요. 그런 균형을 맞춰야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33번 수정합니다. 선행 기획연구비 2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4번입니다.

풍력발전 핵심소재 원료화 지원센터입니다.

충북의 전략산업 및 기구축된 인프라와 연계해서 풍력설비 폐기 후 체계적 재활용을 위한 풍력발전 핵심소재 원료화 지원센터 건립에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구체적으로 폐자원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져서 선행 연구비만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이종배 위원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풍력 설비들이 대개 내구연한이 20년부터 25년까지 다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상풍력 설비의 폐자재에서 핵심 광물을 추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벌써 끝나고 고물로 팔고 있는데 선행 연구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한 10억 반영하시지요.

○소위원장 강승규 형평성 차원에서 이거는 2억 원으로 다, 32·33·34 통일하시지요.

○이종배 위원 아니, 선행 연구할 것은 우리가 앞서간다 할 때 이럴 때 선행 연구비 하는 건데 이걸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미 폐기된 상태란 말이야.

○장철민 위원 이걸 단계상 센터 건립 용역을 해야지요.

○허성무 위원 그럼요. 이런 거 잘해야 돼. 그걸 반영해 주셔야 돼.

○권향엽 위원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이걸 10억 가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장철민 위원 이걸 선행 연구가 아니라 센터 건립 용역이니까 좀 더 크게 해도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영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중복이니까……

○이종배 위원 아니, ‘중복’ 자 빼고.

○송재봉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가요.

○이종배 위원 다른 데 가도.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5번 설명드리겠습니다.

50MW급 수소융합발전기 핵심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수소융합발전 방식 설계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거는 애초에 사업 기획비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억 원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기획비용으로 2억 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번, 2억 수용으로 정리합니다.

36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마지막으로 36번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실시간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ISP 수립을 위해서 1억 8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수용으로 정리합니다.

○장철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한전이 갖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에 깔려 있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위원장 강승규 잠깐만요. 정리됐지요?

○장철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이 업체들이랑 동의가 돼야, 업체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다 준다는 게 동의가 돼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전체가 아니라 다중이용시설하고 의료시설에 있는 충전시설에 대해서 전체 통합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장철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통합관리 정책이 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또 환경부에서 깔 게 있고 환경부에서 충전기 민간 이양 정책이 이미 잡혀 가지고 지금 있는 것도,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민간 이양으로 넘기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통합이 되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개인에 들어가 있는 전기차, 물론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일단은 피해 정도는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 있는 게 화재가 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최소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그런 곳만 먼저 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면 완속 쪽만 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완속이 아니라 대부분 급속이지요.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 있는 게 급속이 많은데요.

○장철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무슨 아파트 이런 데는 급속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전부 다 완속이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1차는 다중이용시설하고 의료시설 중심으로 갈 겁니다. 급속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요.

○장철민 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조건부로 해야 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충전시설 민간 이양 정책이 진짜 수년째 지금, 계획을 수년 전부터 세워 갖고 진행되고 있는 것 하나와, 지금 충전사업자들이 수백 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장철민 위원 그러면 수백 개의 충전사업자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정보를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 물리려면 다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법체계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그냥 사업비만 가는 게 그렇게 심플한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허성무 위원 이 비용도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ISP 전략 수립을 위한 비용입니다.

○장철민 위원 나중에 구체적 내용은 보고 한번 따로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심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다 봤는데요. 그 다음에 보류 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들, 어제 중기부 예산에서 2개가 전체 회의에 회부돼 있고 오늘도, 다시 심사를 하겠지만 10개 좀 넘게 보류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보류 심사를 위해서 원칙을 정합니다. 소위의 소위는 안 합니다. 오늘 여기서

결론 내서 전체회의로, 보류시킬 건 보류시키고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사해 가지고 채택이 되면 어제오늘 심사한 내용도 채택이 되는 것이고 전체회의에서 한두 건이라도 부결되면 소위와는 무관하게 정부 원안대로 올라갈 텐데, 이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마지막 남은 보류 10건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치고 이견이 있으면 전체회의로 가고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거기에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김교흥 위원 왜 반대하냐면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는 마치 소위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전체회의에 가서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원안대로 간다. 이건 엄청난 협박으로 들려요.

○소위원장 강승규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김교흥 위원 제가 보기에 협박으로 들려서, 여기 지금 무수한 보좌진이 있는데 미묘히 보류된 것들은 우선 우리 위원들끼리, 소회의를 하기 어렵다면 조정 회의를 한번 여기서 하고, 다 물리시고 여기서 조정 회의를 하고 거기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오케이, 지금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똑같은 얘기에요.

○김교흥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웬만하면 전체회의로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회의로 가면 소위에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고생하고 소위가 할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국회는 여야 간의 협의 속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해서 전체회의로 가면 전체회의에 여러 위원들이 있으면 서로 시끄럽게 하다 보면 이것은 파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보좌진들 물리고 우리 위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소위원장 강승규 저도 그 얘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기에서 빨리 보류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좀 진지하게 해서 여기서 타결을 지을 건지 아니면 그래도 안 되겠으면 전체회의로 할 건지 그 얘기입니다.

○장철민 위원 특히 오늘 것은 전체회의로 갔다가는 파행될 위험이 너무 커 가지고 정리해야 됩니다.

○김교흥 위원 전체회의로 가면 더 쉽지 않아. 한 10분만 쉬었다가……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중기부까지 다 오라고 그러지요. 정부도 중기부를 오라고 그래야지. 온누리가 지금 2개가 보류, 전체회의에 넘어가 있잖아요.

○김교흥 위원 그렇지, 그렇지. 오라고 그래.

○박형수 위원 중기부가 어디 있는데 지금 오라고 해요?

○장철민 위원 중기부는 밑에 있지요, 예결위장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지금 바로 참석이 가능한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9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1분 회의중지)

(21시4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승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 항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심사자료 4쪽, 일반회계 연번 5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몇 번부터 보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4쪽입니다. 그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세 번째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 부실 운영 등이 지적되고 있는 세계한인무역협회를 지원하는 교포무역인 네트워크 사업비 1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기록을 위해서.

옥타의 재정 방안 운용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고 저희들도 이해해서 그동안 죽 조사를 해 봤더니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제출한 옥타 자료를 보면 3억 5000만 원 횡령 의혹에 대해서 언론사 후원금으로 국고와 무관하다며 자체 점검으로 일부 부정사용액은 협회비로 거둬들였다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는데 비목과 상관없이 국가 재정으로 사업비를 보조받는 단체에서 거액의 횡령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이에 대해서 바로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후원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고를 유용하고도 계속 지원받고 있다는 것이 제가 문제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등이 진행됐는데 자료를 내가 처음에 달라 했더니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된 게 없다고 해 놓았지만 아직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2020년에 해외에서 열리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으면, 온라인 수출 상담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편성예산 3억 4000만 원 중에서 2억 7000만 원을 소요했다고 그래요,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는데. 어떻게 온라인 비대면 회의를 하는데 3억 4000 예산 중에서 2억 7000만 원을 소요했다든지 근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예산 절감 계획도 없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7000만 원이 남았는데, 코로나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7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또 다른 사업 예산으로 전용 활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제 케이스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대한야구협회 회장으로 재직 당시에 정부에서 지원받은 한 10억 원 예산 중에서 사업비 절감해 가지고 5억 남은 것을 그냥 협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내년, 그다음 해 이월해 가지고 그대로 예산 썼는데 이것 가지고 특수부 수사까지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국가 예산이 민간으로 지원됐을 때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 국고에 환수 조치해야 된다는 것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감사원 감사나 코트라나 정부 측에서 이에 대해서 저기 않고 계속 변명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것 관련해서 국회의원들 한 20명한테 전화받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자료를 좀 제출하라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님의 요청도 있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민간 지원비 등이 이렇게 싹쓸이처럼 쓰이면 안 된다는 것 등을 분명히 이번에 예산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계속 고집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 부분 등이 아무리 민간 재단

에다가, 민간 협회에다가 지원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쓰면 다, 이에 대해서 투서가 제가 대통령실 수석으로 있을 때도 이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투서가 지금도 와서 보니까 그대로, 아무도 이에 대해서, 그냥 거기 누군가가 반대하는 사람이 계속 떠든다 이렇게만 하는데 제가 이걸 따져 보니까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기록을 해 주시고 정부에서 저기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꼭 코트라라든지 정부 측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이 부분이 앞으로고 있고,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이것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흥 위원** 강승규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월드옥타에 대해서 눈여겨보신 것 같은데 저는 몇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지금 감사원이 코트라를 감사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월드옥타에 대해서 ‘너희 문제 있으니까 이 자료 내라, 자료 내라’ 이런 게 없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 감사는 끝났대요. 다만 감사 결과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못 주는 것 같은데 감사를 받으면서 월드옥타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아마 몇 년 전부터 월드옥타에 대해서 비리가 있다라고 제보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미국 어디의 지회장 출신인데 아마 월드옥타에서 퇴출이 된 것 같아요, 그 회원에서.

그런데 하여튼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세계 무역전쟁이나 세계 경쟁체제에서 우리 교포들이 한 7000명이 모여서, 주로 무역과 제조업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1년이면 세계의 두 나라를 가서 지역대회를 하고 한 번은 한국에 와서 하고 또 외국에 가서 대회를 계속 열어 온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안동에서 4월 달에 지도자대회를 하고 10월 달에는 얼마 전에 비엔나에서 했던 대대적인 행사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원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외롭게 무역 전쟁을 하는 이분들이 고무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서 제가 증액을 요청한 거고. 거기다가 차세대 무역스쿨이라고 39세까지의 젊은 청년들을 3만 2000명까지 교육을 해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승규 위원장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만 제가 증액 요구를 해 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증액을 해 주셔서 원만하게 내년도 인천대회가 잘될 수 있게끔 제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이 부분은 감액, 증액 다 저기하고 정부안대로 하시지요. 지금 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했는데 이걸 증액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또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이니까.

○**김교흥 위원** 아니, 그래도 인천에서 하니까 몇 억은 좀 해 줘요.

○**서일준 위원** 아니, 조금만 해 줍시다, 조금만. 정부에서 원한다며.

○**김교흥 위원** 차관님, 이게 정부 예산을 받은 게 꽤, 몇 년 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예, 그렇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리고 많이 받을 때는 35억까지 받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예, 한때는.

○김교흥 위원 29억 받을 때도 있고 35억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비엔나에서는 정말 2400억의 매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위원장 강승규 김교흥 위원님, 이것은 양측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김교흥 위원 양측이 아니라 오히려……

○소위원장 강승규 아니, 제 입장이 있잖아요.

○김교흥 위원 아니, 옥타의……

○소위원장 강승규 아니, 그러면 이것 제가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데 이걸 증액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김교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천에서 하니까 몇 억……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니까 인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정부 원안대로 가자는 거예요.

○김교흥 위원 이게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과 다른 부분도 많아.

○소위원장 강승규 하여튼 이것은 원안대로 그렇게 하시지요.

○송재봉 위원 그래야지 빨리 합의되지요.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지요.

○김교흥 위원 그럼시다.

○서일준 위원 그런데 원안이 얼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32억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5페이지, 7번입니다.

양자산업협력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신설된 민간위탁 비목에 따른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니 10억 5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EU, 미국에 비해……

○소위원장 강승규 이것 아까 이렇게 대략 정리했었어요.

7-1·2·3 불수용하고 7-4 수용하는 쪽으로 대략 정리가 됐었어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맞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렇게 가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번은 7-1·2·3 불수용하고 7-4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4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0쪽입니다.

18번, 산업기술국제협력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역사업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에서 361억 8800만 원 감액 의견, 269억 8800만 원 감액 의견, 8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해서 90억 원 증

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내역사업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에서 37억 4000만 원 감액 의견, 국제협력기반구축 사업에서는 4억 9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다른 내역사업인 글로벌 산업기술연계에서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이것도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글로벌협력 사업에 대해서 R&D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냐 이런 의미에서 감액을 많이 요청하셨는데, 어찌 됐든 R&D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산업기술 관련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을 좀 해서 불수용을 해 주시고 이재관 위원님 등이 한 증액 부분은 받아들여서 이것은 정부 측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다른 것은 정부 원안으로 하고 맨 마지막의 10억 원 증액 요구된 것은 반영하자는 말씀입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데 방금 저희가 논의를 하다가 보류가 되었던 것 중에 신규 과제 4건에 대해서 과제도 없는 것에도가 예산을 태우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소위원장 강승규 아까 그것은 앞엿것하고 보완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지 않았나요, 아까?

○박형수 위원 4개 과제의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장철민 위원 방금 준 게 그거라……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자료를 다 나눠 드렸습니다. 아까 자료로 과제를 공개해 달라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참여 기관, 협력파트너 그다음에 과제를 이렇게 다 적시를 했고요. 내용 보완을 저희가 요청해서 협력센터나 수행기관 이런 것은 다 확정이 되어 있었고 그 과제의 세부적인 추진계획, 성과지표, 역할 분담, 나중에 지재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요청했던 것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연내에 선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어요. 유사 사례도 밑에 보시면 국제협력사업들의 경우에는 상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그동안 유사 사례들도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면 10억 증액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강승규 그렇게 18번도 정리합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 46번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이것도 자료를 봐 주시면, 사업이 지연되어서 집행이 잘 안 될 테니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실증평가·기술개발 사업은 19억 원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내년도 건축비 집행계획도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 착공이라든지 그런 데에 전혀 문제가 없게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46번도 46-1은 원안 유지하고 46-2는 감액하는 것을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52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2쪽 52번, 자동차산업기술개발입니다.

여기서 141억 6800만 원 감액 의견, 83억 감액 의견이 있었고 또 3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장철민 위원님이 또……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지적을 해 주셨는데 회계연도 불일치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에 연 1회 사업 공고를 하던 것을 24년부터 연 3회 공고로 R&D 혁신방안이 나오면서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 1월, 5월, 7월, 세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고 사업자 선정은 각각 4월, 7월, 9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은 사업자 선정이 되는 시점으로 소급해서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월 달 공고한 과제는 12월까지 해서 9개월을 편성을 했고 7월에 사업자 선정이 된 과제는 내년 3월까지, 9월에 선정이 된 과제는 내년 5월까지 협약 기간을 해서 9개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25년 예산은 이런 경우에 내년도 3월, 5월로 넘어가는 이런 회계연도가 불일치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0개월분만 반영하라고 해서 첫 번째 1월 달에 공고된 것만 12개월분, 1년치를 반영하고요 나머지 두 과제는 10개월분만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도에 여전히 회계연도 불일치 기간이 1개월, 3개월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6년도 협약 예산을 편성할 때에 각각 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 내에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3차 공고에 아까 20개 과제가 제대로 진행이 되느냐 의견을 주셨는데 그중에 11개 과제는 협약 체결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9개 과제에 대해서도 사업자 선정이 끝나서 협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의 표에서 보신 것처럼 사업자 선정이 되면 협약을 사업자 선정 시기로 소급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장철민 위원님, 이해……

○장철민 위원 예.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52번도 정부 원안대로 해서 감액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52-3은 증액 수용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53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3번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7억 5000만 원 증액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이견 뭐?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증액에 대해서 아까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그 근거

로 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흡 판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나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체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74.4점이 나왔는데 그 추진계획 과정과 관련 해 가지고 과제 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수혜자들의 평가를 받았는데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성과 측면에서도 일부 KC 인증 획득이라든지 잘된 점도 있지만 향후에 사업화와 연결되는 매출액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환류계획도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던 것이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원칙이라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우리……

○권향엽 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이것은 철회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55번입니다.

특장차 안전 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반시설 구축비 22억 80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이 증액 요청에 대해서 아까 절차를 따져 보고 수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차를 확인해 보니 장비심의위원회의, 금년에는 안됐지만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장비 수시 심의를 거쳐서 장비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이것은 수용으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7페이지, 64번입니다.

디자인산업진흥입니다.

관련해서 25억, 22억, 16억, 16억, 1억의 각각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제조혁신센터와 지역 디자인진흥원이라는 게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지역 디자인진흥원은 지역에 설치된 디자인진흥원의 약간의 유관 기관 그런 개념이고요, 디자인 제조혁신센터는 산단 같은 곳에 디자인 관련 업계나 전문가들이 나가서 기업들이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

디자인 제조혁신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때는 일반적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전국 공모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역 디자인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에 시·도지사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가 사업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지역 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절차를 보시면 이 법에 따라서 그동안 시·도지사가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경우에는 특정 지역을 특정해도 됩니다. 그렇게 반영을 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산업부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공식적인 예산을 국회에 요청해서 반영한 다음에 착공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디자인진흥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바로 지역을 특정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건 어렵지만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사업은 지역을 특정해서 추진을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지금 요구한 64-1·2·3·4·5에서 수용, 불수용을 말씀해 주세요.

1번 디자인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모두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모두 수용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강승규 모두 수용. 64-1·2·3·4·5 수용.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러면 다음, 29쪽의 71번입니다.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사업 2억 원 증액 요청입니다.

○서일준 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71번 철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다음 72번부터 그다음 장 79번까지 산업부 각 실·국의 기본경비입니다. 이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료 받아 보니까 의원실하고 산자부하고 자료에 대한 오해가 원래 있었더라고요. 저희는 국내여비로 다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44억이 국외여비다 그런 오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장보고서가 없다, 국내는 출장보고서를 쓰지 않는다, 이게 다 국내여비다 이렇게 오해가 돼 있었는데 이게 국외여비가 44억인데 실제로 엑스포 관련 건이라서 출장보고서 제출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게 출장보고서가 없는 여비 전용 건이 55억이었어 가지고 이게 약간 오해들이 있었던데. 지금 통상교섭실 같은 경우에는 출장보고서 자체는 제출하지 않고 그냥 누가 항공권으로 얼마, 몇 박 며칠 이 정도만 표기해서 제출하는 것 정도로 같음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제가 출장보고서까지 전체 다 요구하지는 않을 테니까 누가 어느 기간에 항공권이랑 숙박비 어느 정도 썼는지 그 44억에 대한 단순한 결산 자료를 제출받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는 제출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소상하게……

○장철민 위원 아니, 그냥 통상교섭실에서 내신 거랑 똑같이 주세요. 또 부처 내에서 다르면 이상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알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통상교섭실에서 주신 거랑 맞춰 가지고 제출하시면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72~79번 일단 철회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은 에너지특별회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말씀을 주셔서 확인을 해 달라고 하셔서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 나눠 드렸는데 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에 보면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규로 추진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공모는 지정 공모 또는 전국 공모, 자유 공모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 또는 외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른 경우 또는 법령에 따른 경우, 재난 상황인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지역을 특정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세 번째 ‘법령에 따른 경우’가 아까 예를 들면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지역 디자인센터, 원을 설립하는 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이것 관련해 가지고 아까 오전에 심의한 것 중에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 가지고, 52번 자동차산업기술개발 과제 중에 후단에 붙어 있던 충주시와 연계한 모듈러하우스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충주시라는 말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소위원장 강승규 예.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에너지특별회계입니다.

잠시 관계자 들어오는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들어왔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8쪽 19번, 유전개발사업출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505억 5700만 원 삭감 의견과 497억 20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20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이게 대왕고래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맞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이건 아까 정리됐잖아요. 19-1 대왕고래는 10% 감액 이렇게 하고, 다른 것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요. 부대의견 필요 없고.

○허성무 위원 증액 없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증액은 없고 10% 삭감만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10% 감액해 놓고 증액해 주면 좋지요.

(웃음소리)

○김교흥 위원 차관님, 10% 삭감하고 밑에 부대의견은 달아도 아까 차관님 말씀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부대의견 다셔도 됩니다. 부대의견 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부대의견 오케이.

19-1 10% 감액, 19-2 철회 그다음에 부대의견 수용입니다.

○서일준 위원 부대의견도 철회지.

○소위원장 강승규 아니아니, 받아 준대.

○박형수 위원 추후의 4개에 대해서.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도 이걸 수용한다고 했던 거지요?

○서일준 위원 정부에서 19번 부대의견을 수용한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어차피 뒤에는 예타를 가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 다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경제성 없을 경우에 예타 간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2번입니다.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입니다. 이에 대해서 364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이것 수용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까 22번은 저희가 효율혁신 부분하고 수요관리 신규 과제 후보 리스트에 있는 거 다 확인을 해 봤고요. 그래서 효율혁신 신규 과제 40억 원, 수요관리 신규 과제 62억 원 해서 총 102억 원 증액……

○소위원장 강승규 22번은 102억 원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50쪽에 있는 24번입니다.

에너지국제공동연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86억 500만 원, 123억 4200만 원 또 37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18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24-1번은 아까 회계연도 불일치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맞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니까 이것은 철회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4-2번도 철회 의견 쪽으로 아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나요? 그리고 24-3은 어떻게 했지요?

차관님, 아까 대략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24번 한번 정리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앞에 얘기했듯이 22번은 증액을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국제공동연구는 앞의 두 감액 의견은 저희가 수용 못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위원장 강승규 철회하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저장, 무탄소발전 부분에 있어서 증액은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8억 5000 증액.

○허성무 위원 그러면 37억은?

○소위원장 강승규 그 앞엿것 37억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 부분이 결론은 안 났는데요.

○장철민 위원 37억은 감액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런데 이건 요청이, 센터하고 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장철민 위원 제가 다시 또 살펴봤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있어요. 지금 내역 사업 중에 탄소중립선도기술 조기획득 과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동연구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자체 사업으로 탄소중립 관련된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한다 라고 해도 통제할 방법도 없잖아요, 국가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요 이것은……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좀 모순적이에요. 통제 방법이 아예 없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런데 국제공동연구센터는 사실은 저희가 독일하고 미국하고 하면서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굳이 감액을 하시려면 저희가 연도를 일치하려는 노력을 할 테니, 앞에 말씀드렸듯이 25억 4170만 원은 어떻게든지 이 건 회계연도를 일치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차라리 이거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회계연도 일치하도록 그래도 정부가 노력을 해라라는 차원에서 25억 4170만 원 감액 의견으로 통일해 주시면 어떨까요?

○**장철민 위원** 저는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이 사업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제들이 쪽 선정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센터의 어떤 일종의 지원 조직 예산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공동연구센터가 자체 과제를 5개를 뭘 선정할지도 공백으로 남겨 놓고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하고 중복된 사업을 지정할 위험을 회피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산이 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도 월클300 사업을 했을 때ですよ 이것은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이 돼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에게는 과제 선택에 자유권을 주는 게 오히려 성과가 좋더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국립연구소나 프라운호퍼 정도 되면……

○**장철민 위원** 저도 그게 틀린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우리도 R&D 정책 그렇게 다 개편해야지요. 그게 사실은 우리 R&D 생태계에 좋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허성무 위원** 장 위원님 이야기를 관리 잘하도록 부대의견에 달고……

○**소위원장 강승규** 그렇지요. 그래서 25억 417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장철민 위원** 이게 모순적이라 그래요. 누가 책임질 거야.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것은 제가 진짜 보고를, 따로 사후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장철민 위원** 사후 보고를 내년에 주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올해 집행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집행되는 상황인 건데.

○**허성무 위원** 동의하는 액수만큼 감액하고 부대의견 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25억 4170만 원 감액 의견을 저희가 받는 걸로 해서요.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시지요.

○**장철민 위원** 그러면 부대의견을 어떻게 달아요, 정리도 안 돼 있는데?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국제공동연구와 다른 국제공동연구와 연구 과제들이 중복될 수도 있지 않느냐, 나중에 선정을 하면.

○**장철민 위원** 중복될 위험도 있고 사실 그걸 통제 수단을 완전히……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재량권을 너무 많이 준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장철민 위원** 재량권을 다 주고 어떻게 보면 그냥 돈만 주고 과제는 알아서 하라는 방식이라…… 아니, 이런 방식이 좋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해야지요. 이 사업 전체를 그렇게 하든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소위원장 강승규 그쪽이 더 전문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산자부가 그에 대해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부대의견을 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교흥 위원 중복 가능성과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산자부에서 한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그렇게 부대의견을 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렇게 정리합시다.

66쪽 전력기금 얘기하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력기금입니다. 66페이지 6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781억 8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1650억 6200만 원 또 130억 9000만 원, 111억 1600만 원, 7억 9700만 원 등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부분에 수용과 불수용이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사실은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력망, 송전망 부분에 있어서 2000억 원을, 이 뒤에 있는 사업입니다만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의 내역사업으로 2000억을 추가한다고 하면 전체 예산이 크게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걸 묶어서 통으로 보급지원은 현재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고 뒤에 나오는 금융지원은 내역사업 신설로 2000억 추가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게 되거든요.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의견에 야당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고 감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철회해 주시고……

○송재봉 위원 증액을 해야 되는 거야, 증액?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증액은 뒤의 금융지원 사업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송전망 구축의 2000억을 금융지원의 내역사업으로 추가하면 2000억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금융지원에.

○송재봉 위원 그래도 이게 전년 대비 삭감액이라도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전년 대비하면 더 늘어납니다. 저희가 700억 정도 감소했는데 2000억이 늘어나면 1300억이 증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제는 금융지원, 지금은 사실 개별 수용가에 대해서 보급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송재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줄이지 말고 전년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래도 이게 개별 사업으로는 제일 크게 늘어나는 사업이 되는데요, 2000억을 늘리면.

○송재봉 위원 늘어난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송재봉 위원 어디가?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금융지원에 2000억이 추가되는 결과가 나왔으니깐……
- 소위원장 강승규 7번에.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렇게 되면 전년보다도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보면 1300억이 늘어나게 됩니다.
- 소위원장 강승규 그래서 6번은 증액이나 삭감을 다 철회하고 7번 2000억 증액으로 그렇게 정리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맞습니다. 아까 산업단지 37억은 저희가 이미 받는다고 해 났고요. 그다음에 보급지원은 정부안 유지해 주시면 되고, 금융지원에서 2000억 추가로 내역사업 신설해서 공동접속 지역에 대한 송전망 구축 용자사업으로 넣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강승규 그렇게 됐고요. 67페이지까지 됐지요?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7번까지 됐고요.
- 소위원장 강승규 68페이지, 무탄소.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68페이지 9번, 무탄소에너지보증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10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요. 5억 원 감액은 오늘 서왕진 위원이 철회하시면서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이재관 위원님 이것 정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히신 거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마 무탄소에너지라는 명칭 때문에 막상 재생에너지로 안 가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부분 다 태양광 중심으로 나갈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 이재관 위원 철회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원전은 이미 앞에 얘기했던 용자사업 1500억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서일준 위원 철회한답니다.
- 소위원장 강승규 예, 이것 철회해서.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부대의견은 제가 지금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위원이 제시하신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원전·SMR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보증지원은 본 사업에서 제외하고 향후 별도 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 소위원장 강승규 동의하십니까? 정부 동의하십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부대의견 받겠습니다.
- 박형수 위원 제외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여기에 맞는……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게 무탄소에너지원이라 사실상 태양광에 나가는 데 수요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요. 저희는 어차피 원전 용자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부대의견을 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같이 쓰게 하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태양광에서 쓸 겁니다.
-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부대의견은 채택하지 않고?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 소위원장 강승규 양해해 주십니까?

○김교흥 위원 아니, 그런데 부대의견 달아 줘야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제외까지 하는 것은 이게 마치 그러면 무탄소에너지에서…… 보증사업이구요, 이것을 그렇게 여기서……

○소위원장 강승규 제외 부분을 빼고 좀 어떻게 조정……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태양광을 중심으로’ 이런 표현이 오히려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서일준 위원 오히려 그게 맞겠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태양광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식으로 부대의견을 받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 정도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수정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태양광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예.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74쪽입니다.

23번,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입니다.

○서일준 위원 이거 원안 유지하는 것 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원자력 분야 퇴직자 재취업 지원하는 예산인데 112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8억 7000만 원……

○소위원장 강승규 이것은 감액 철회하는 것으로……

○권향엽 위원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성과 분석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대의견을 달아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저희가 내년 사업 이후에 성과 분석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부대의견 달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철민 위원 서일준 위원님 덕분입니다, 정확하게.

○소위원장 강승규 그다음에 이걸 정리하는 동안 중기부 것 빨리 의결해야 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잠시만, 하나 빠진 게 있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에 조금 전에, 바로 전에 무탄소에너지 보증 감액을 철회한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데 그 밑에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 80억 증액 예산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이것은 아까 증액하는 것으로 동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런데 이게 증액을 하게 되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42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80억을 하시면 500억이 돼서 예타 대상이 됩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70억으로 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래서 40억 정도만 증액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오케이, 40억.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한 심사 내용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시 45분에……

○김교흥 위원 차관님, 잠깐만. 내가 한가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아까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2000억을 신재생에너지금융 사업으로 돌린다고 그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맞습니다. 금융지원의 내역사업으로……

○김교흥 위원 그러면 전력망 설비 확충은 안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것은 기본적으로 망 사업자인 한전의 기본 책무고요, 이것은 현재도 차년도 요금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우리 예산을 안 쥐도 자기들이 한다 이거야?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원래 이것은 그 사업에서 하는 거였었고요. 저희도 그러면 그중에서 공익사업이 어떤 걸까를 고민해 보면 최소한 서해안 쪽에 있는 해풍하고 태양광 쪽의 공동접속구 송전망이라도 사업자들 또는 한전에 용자해 쥐서 빨리 구축하게 하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도 공익성이 그 부분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자사업 신설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한 심사가 정리되는 동안 10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7분 회의중지)

(22시4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승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소위원장 강승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조건부 의결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91조제2항, 제71조 및 제57조제8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변경하는 번안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4항을 추가로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번안의 건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2시46분)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참석을 하여야 하나 당일 회의 공지로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정리된 결과 등 오늘 논의할 추가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자료 1쪽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2개의 세부사업의 3개 사항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성장지원에서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과 관련하여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세부사업에서 내역사업인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3쪽입니다.

같은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사업에서 내내역사업인 상권발전기금 조성 사업의 2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같은 금액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하여서도 지난 회의에서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3번 소상공인성장지원 관련해서 오세희 위원님께서 의견 내신 게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지요?

○오세희 위원 제가 얘기할까요?

○소위원장 강승규 예.

○오세희 위원 만약에 증액이 안 됐을 시에 인프라 지원에서 4억만 감액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증액이 7억 5000이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26억 2000에서 인프라 지원 8억에서 4억만 감액하는 걸로, 22억 2000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강승규 그 얘기는 지금 3-2에 7억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는데 이것을 철회한다면 위에서 4억만 감액하는 것으로 동의하는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이대희 기본적으로 4억 금액은 받아들이고요. 다만 항목이 인프라 지원 8억이 아니고 공동마케팅에 있는 10억에서 4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오세희 위원 아, 맞아요, 공동마케팅.

○소위원장 강승규 공동마케팅 10억에서 4억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소상공인성장지원 관련해서는 3-1은 공동마케팅 10억 중에서도 4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3-2의 7억 5000만 원 증액 요구는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어떻게 정리됐지요? 온누리상품권은 아까 정부안 수용하고 감액하는 것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됐는데……

○이재관 위원 증액도 철회.

○소위원장 강승규 증액도 철회.

○**김교흥 위원** 그리고 부대의견 다는 것으로……

○**소위원장 강승규** 부대의견이 어떤 거였지요? 아까 부대의견 달기로 했나요?

○**장철민 위원** 정확한 부대의견은 아니고요.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게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야 된다는 것하고 지류를 줄인다고 하는데 그 지류 목표액 같은 것들을 정확히 설정해라라는 이런 요구들을 제가 했었고 그 요구는 5조 5000억에 대한 발행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유효한 거기 때문에, 특히나 다음 주에 예결소위 전까지는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지류 발행 목표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꼭 공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일단은 전체 5조 5000억 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그러면 부대의견은 별도로 달지 않는 것으로요?

○**김교흥 위원** 아니, 부대의견 달아야지.

○**장철민 위원** 이미 있어요.

○**소위원장 강승규** 어디에?

○**장철민 위원** 이미 지난번에 달았어요.

○**소위원장 강승규** 아, 그래요?

부대의견은 부대의견대로, 감액은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합니다. 증액도 철회합니다.

그다음에 9번.

9번이 어떻게 논의가 됐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이대희** 상권발전기금 조성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원안 유지하되 부대의견 저희가 받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감액 철회하고 상권발전에서 증액도 철회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이대희** 예.

○**소위원장 강승규** 감액 철회, 증액 철회, 그다음 원안 유지하고.

부대의견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이대희** 부대의견은 지난번에 달아 주신 게 있는데 달아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부대의견은 부대의견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추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번안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대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오늘 심사한 내용의 정리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오늘 심사한 내역 총괄 사항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입 수정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8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등 세출·지출 수정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등 4개의 회계에서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증액과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조 14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228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부대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총 19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고 기금과 관련해서는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부 측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내용 다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다 동의합니다.

○장철민 위원 15번, ‘에너지국제공동연구센터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까지는 그대로 괜찮을 것 같고요. 후단은 ‘연구성과를 얻도록’이라기보다 이게 자율성은 주는 만큼 사후통제는 강화한다라는 의미가 더 나올 것 같아서 ‘회계사업관리 등 사후통제를 강화한다’라는 방식으로 후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성을 주니까 ‘사후통제를 강화한다’ 이게 균형에 맞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러니까 ‘연구성과를 얻도록’은 삭제하고……

○장철민 위원 너무 그냥 뺀 얘기잖아요, 연구성과는 당연히 얻도록 하는 거고.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다음에 ‘회계 통제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다’.

○장철민 위원 ‘회계사업관리 등 사후통제를 강화한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승규 정리된 자료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내용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제1차관 또 최남호 제2차관 및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0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승규 권향엽 김교홍 김종민 박상웅 박형수 서일준 송재봉 오세희 이재관
이종배 장철민 허성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유인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제2차관 최남호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산업정책관 강감찬
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중견기업정책관 박덕열
에너지정책관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 정경록
수소경제정책관 박찬기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원전산업정책국장 안세진
통상협력국장 김종철

다자통상법무관 박대규

무역정책관 조익노

무역안보정책관 최우혁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 이현조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이대희